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 매듭장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❷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 매듭장

1997

국립문화재연구소

## 일러두기

---

1. 이 책은 국립 문화재 연구소 예능 민속 연구실의 중요 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과정에서 파생된 해설 책자이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진은 영화 제작 과정 중에 찍은 것이다.
3. 이 책에 수록된 용어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기능 보유자인 김희진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따랐다.

## 차 례

머리말 .....	4
I. 매듭의 역사 .....	7
II. 매듭의 종류와 용도 .....	19
1. 끈목(다회)의 종류와 용도 .....	19
2. 매듭의 종류와 용도 .....	23
1) 기본형 매듭의 종류와 지역별 명칭 .....	23
2) 매듭의 용도 .....	23
3. 술의 종류와 용도 .....	51
III. 매듭 제작 .....	55
1. 매듭 제작 도구 .....	55
2. 매듭의 제작 과정 .....	66
1) 염색 .....	66
2) 다회치기 .....	70
3) 매듭 맺기 .....	86
4) 술 만들기 .....	154
IV. 매듭장과 매듭의 전수 .....	173
1. 매듭장 .....	173
2. 전수 현황 .....	188
V. 매듭의 전승과 개발 .....	189



## 머 리 말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은 그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최은순과 김희진의 매듭 기능을 중심으로 엮은 기록물이다.

매듭은 선사 시대부터 생활의 필요에 의해 맺기 시작한 이래 점차 발전하여 의복의 단추, 여인들의 노리개, 부채의 선추, 도포끈, 관복의 후수 등 복식류를 위시하여, 가마, 상여, 영정(影幀), 족자 등의 장식으로 쓰였다. 매듭은 각종 의기(儀器)와 기물(器物)에 장엄을 갖추고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쓰였다.

우리의 매듭은 실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애용되어 왔으나, 전통 문화의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민족의 수난기를 거치면서 여인들의 손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매듭에 종사하던 장인들도 점차 사라져 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전통 매듭의 맥을 이어오던 정연수가 1968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작고 후 그의 기능은 부인 최은순과 제자 김희진에 의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이 책자는 기록화 사업으로 촬영한 기록 영화 『매듭장』과 짝을 이루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영화의 표현 한계를 극복하면서 손으로 익혀야 하는 섬세한 매듭 기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사진과 그림을 중심으로 매듭의 용도와 종류, 기본 매듭 및 술의 제작과정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예능민속연구실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과거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유산을 통해 각박한 형식 논리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도 진정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와 세계화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 문화의 향기를 드높일 수 있는 기초 작업이다.

이 작업의 성과들인 기록 영화와 책자가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전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국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과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도모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7년 5월

예능민속연구실장 朴相國

## I. 매듭의 역사

매듭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농경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듭은 식물의 줄기나 나무 껍질·짐승의 가죽 등을 이용하여 묶거나 매는 작업으로 인류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생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꼬아서 엮는 방법으로 미적인 표현 옥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돌도끼나 돌칼의 구멍에 끈을 꿰었던 흔적에서 수렵 및 식생활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서 활용된 신석기시대 생활용 매듭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유물인 방추차(紡錘車:가락바퀴)와 관옥(管玉)·곡옥(曲玉)을 통해서도 당시 매듭이 생활에 이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방추차는 섬유질을 이어 꼬임을 주면서 실을 만들거나, 긴 섬유에 꼬임을 주어 실을 만드는데 쓰였던 도구이다.



사진 1. 청동기시대 방추차(紡錘車),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2. 관옥(管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3. 원삼국 시대 쇠뿔항아리(일명 승문(繩文) 토기)의 새끼무늬, 창원 다호리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끈 끈 맺기의 흔적은 원삼국시대 유물인 창원 다호리 출토 승문토기(繩文土器)의 새끼무늬 장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끈 끈이 장식용 매듭으로 발전하여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음은 고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해도 안악군 유순리에 있는 고구려시대 안악 3호분 벽화에서 묘주(墓主) 부부의 초상에 나타난 평상의 단집에 방장(房帳)을 묶은 끈과 술에서 매듭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복식조를 보면 삼국의 복식에서 모두 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듭이 당시 의복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

로 신라 상당(上堂) 대나마(大奈麻)와 적위대사(赤位大舍)의 관(冠)에 땀은 갓끈(組纓)을 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신라 흥덕왕 9년에는 교지를 내려 복식의 호사스런 장식을 금지하고 각 신분별로 적절한 복식 형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눈에 띠는 것이 허리띠와 장화끈 장식에 대한 규제이다. 이것을 볼 때 당대 신라인들은 매듭 맺은 끈이나 띠에 장식하기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또한 말의 가슴걸이에 땀은 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보아 신라의 귀족들이 매듭 끈을 이용해 말 꾸미는 것 역시 즐겼음을 알 수 있다.<sup>2)</sup>

1) 《삼국사기》권 33 잡지(雜志), 제 2 복식(服飾)

2) 《삼국사기》제 33 잡지(雜志), 제 2 거기(車騎)





사진 4. 4세기 중엽 안악 3호분 고분 벽화 중 묘주(墓主) 부분의 술장식

백제의 복식은 고구려와 비슷한데 조화와 제사 때 쓰는 관(冠)에 나솔(奈率) 이상은 은꽃(銀花)으로 장식을 했고, 장덕(將德)은 자색 띠 · 시덕(施德)은 검은색 띠 · 고덕(固德)은 적색 띠 · 계덕(季德)은 푸른색 띠 · 대덕(對德)과 문독(文督)은 황색 띠를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무독(武督)부터 극우(剋虞)까지는 모두 흰색 띠를 했다고 하여 백제에서도 의복에 매듭을 이용해 만든 끈으로 추정되는 띠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 중국 한대 장사 마왕퇴 1호분 출토 T형 채회백갑(彩繪帛匣), 《중국 한대 장사 마왕퇴 1호 한묘(中國 漢代 長沙 馬王堆 一號 漢墓)》하권 참고

한편 중국 한대(漢代)의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 1호 한묘(漢墓) 출토품인 T형 채회백갑(彩繪帛匣)의 각 하단에 술 장식 등을 통해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매듭과 술 장식이 발달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매듭과 술 장식이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짐작된다. 그러한 사실은 신라 진덕왕 때 당나라로부터 복식 문물을 도입하여 의복 제도를 정비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 나라의 매듭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된다. 일본식 복식에 쓰이는 끈의 명칭 중에 아

직도 '시라기구미[新羅組]'라는 것이 있고, 끈을 짜는 틀의 종류 중에는 '고라이우찌[高麗打]'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 우리의 기술이 일본에 전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매듭의 발달은 《고려도경(高麗圖經)》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시대 각종 의식이나 복식에 사용하였던 여러 종류의 물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매듭과 관련된 서술도 많이 발견된다. 그 내용을 보면, 제 9권 곡개(曲蓋: 수레 위에 받쳐 햇빛을 막는 덮개)에 관한 설명에서 곡개의 모양은 6모지고 각기 유소(流蘇: 내려뜨리는 장식물)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청개(靑蓋)는 붉은 비단(絳羅)으로 만들고 노란색 실로 짠 끈으로 장식한다 했다.<sup>3)</sup>

제 10권 의물(儀物)의 화개(華蓋)와 황번(黃幡) 조를 보면, 화개는 문양있는 비단(文羅)에 그림과 수를 섞어 꾸미고 그 위에는 각기 패환(珮環: 패옥의 고리) 모양의 유소로 장식했다고 했다. 황번 역시 문자로 만들고 두 귀에 유소를 늘어뜨렸으며, 이것은 모두 대례(大禮)에 쓰였다고 했다. 그리고 격구할 때 쓰는 공채인 구장(毬杖)을 보면 구장은 나무를 깎아 만들고 가운데 구멍에 채수(彩綬)를 꿰어 늘인다고 했다.<sup>4)</sup> 제 11권에는 패검의 색끈 고리와 오색 무늬 비단으로 장식한 채여의 금수(錦繡)맺음에 대한 설명이 있다.<sup>5)</sup> 제 15권에서 왕마(王馬)에 대해 설명하기를 팔관재(八關齋) 등 큰 예식이 있을 때는 마갑(馬甲) 위에 수놓은 휘장을 씌우고 혁대와 번영(繁纓: 여러 가닥의 끈)으로 장식한다고 했다.<sup>6)</sup> 그리고 제 20권의 귀부(貴婦) 조에는 귀부인들이 채색 끈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으로 만든 향낭을 찻는데, 이것이 많을수록 귀하게 여긴다고 했다.<sup>7)</sup>

3) 《고려도경》 제 9권 의물(儀物)1 곡개(曲蓋)

4) 《고려도경》 제 10권 의물(儀物)2 화개(華蓋), 황번(黃幡)

5) 《고려도경》 제 11권 장위(仗衛)1

6) 《고려도경》 제 15권 거마(車馬) 왕마(王馬)

7) 《고려도경》 제 20권 부인(婦人)





사진 6.  
12C 고려청자상감복사음각  
모란문매병(高麗靑磁象嵌祔  
紗陰刻牧丹文梅瓶)의 매듭  
무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7.  
매듭 무늬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8. 고려시대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  
일본 선도사(善導寺) 소장

고려시대 매듭의 유행은 고려 청자에도 나타나, 고려 청자 중에는 매듭 무늬를 그려 넣어 장식한 것이 있다. 그 중 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상감복사음각모란문매병(靑磁象嵌袱紗陰刻牧丹文梅瓶)에는 네 모서리에 유소가 달린 매듭이 부착된 사각보(褙)가 시문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매듭으로 현존하는 것은 없으나 사찰에 보관된 탕화를 통해 고려시대 매듭의 양식을 찾을 수 있다.



사진 9. 조선 명종 5년(1550) 제작된 관음 32응신도, 일본 지은원(知恩院) 소장

고려시대 그려진 관음 탕화나 지장 탕화 속의 불보살 가슴에 장식된 각종 매듭은 당시 매듭의 화려하고 섬세한 모양을 보여준다. 이러한 매듭 장식들은 조선시대 탕화로 이어져 오는데, 조선 명종 5년(1550) 이자실(李自實)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관음 32응신도(觀音三十二應身圖)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 10. 신윤복의 미인도(美人圖),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매듭은 그 용도가 더욱 다양해져 실생활 전반에 널리 애용되었다.

조선시대 초기 매듭은 《세종실록》의 가례서례(嘉禮序例)와 흥례서례(凶禮序例)의 각종 기물의 유소·매듭·술장식에 관한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악기에서도 매듭 유소로 장식한 것들이 눈에 띈다.

한편 《성종실록》 24년 10월 23일 갑신(甲申) 조에 의하면 “왕자와 군(君), 옹주의 가례 때 혼인하는 집에서 다투어 사치하기를 힘써 … 수를 놓거나 매듭을 지어 그 화려하고 사치함을 극진히 하였고, … 내가 검소하고 절약하기를 힘써 따르게 하는 뜻에 너무 위배된다. 이 뒤로는 다시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알리고 널리 시행하도록 하라”고 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매듭은 화려하고 사치한 장식품으로서 자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중기의 풍속 화가인 신윤복의 〈미인도〉에서도 장신구를 찬 여인을 볼 수 있고, 후기에 나온 《상방정례(尙方定例)》에서 다회와 유소의 여러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궁중과 상류사회에서만 주로 쓰이던 매듭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부터는 점차 일반 평민에게도 많이 쓰이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종류의 장식용 매듭이 생활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동국여지비고》 제 2권의 기록을 보면 한성부 시전의 진사전(眞絲廛)에서 여러 가지 당사실·과실·갓끈·띠·실을 엮어서 만든 끈같은 물건을 판다고 했다. 그리고 분전(粉廛)에서는 분·연지·색실 등을 파는데 이곳을 방물전(方物廛)이라고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비단실과 끈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매듭 유물로는 벼슬아치의 공복인 단령에 달린 연봉매듭으로 만든 단추를 위시하여, 소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든 천익(天翼)의 소매에 있는 단추 등 상류계층의 의복에 달린 매듭 단추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 매듭 단추 중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는 여름철 적삼(赤衫)의 단추를 들 수 있다. 적삼은 서민층이 여름철 입던 옷저고리로 거의 모두가 매듭 단추로 만들어졌다.



사진 11. 관북 단령의 연봉매듭 단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12. 천익의 매듭 단추, 1980년 경기도 양평군 출토, 단국대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13. 천익의 매듭 단추 세부, 단국대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그 외에 반가(班家)와 궁중의 전세품(傳世品)으로 노리개류와, 사찰 및 민가(民家)의 가마·상여의 매듭 장식, 연(輦)·번(幡)·불자(佛子) 등에서 각종 조선시대 매듭의 양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말기 이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화 훼손과, 근대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서구 문물이 급격히 밀려옴으로써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매듭 또한 그 용도가 차츰 줄어들면서 단절될 단계에까지 이르러 그 명맥만이 겨우 유지되어 왔다.



사진 14. 적삼의 매듭 단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15. 매듭 단추 묶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Ⅱ. 매듭의 종류와 용도

### 1. 끈목(다회)의 종류와 용도

매듭을 맺으려면 먼저 끈목이 필요하다. 끈목은 실을 합사(合絲)하여 두가닥 혹은 세가닥 이상으로 꼬는 끈과 네가닥 이상의 여러 가닥으로 쳐서 짜는 끈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짜는 끈을 '다회(多繪)', 끈 만드는 것을 '다회(多繪)친다'고 했다.

다회에는 동다회(圓多繪)와 광다회(廣多繪)가 있다. 동다회는 원다회라고도 하며 끈목의 둘레가 둥글며 4사(絲)·8사(絲) 등이 있는데, 주로 노리개·주머니끈·각종 유소를 만드는데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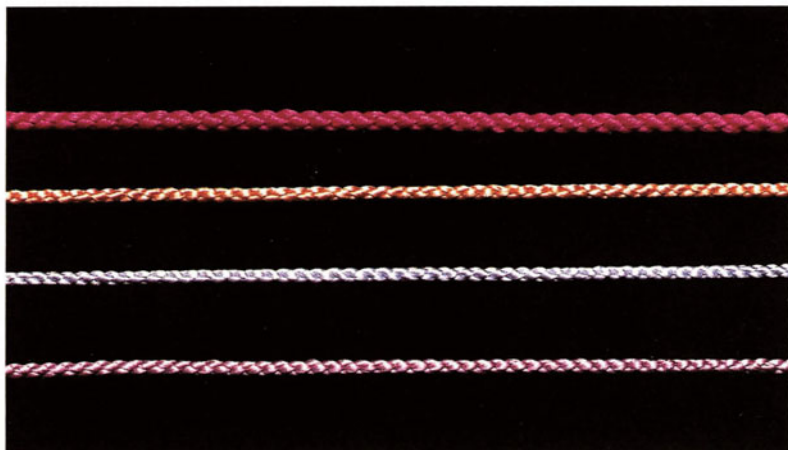


사진 16. 동다회(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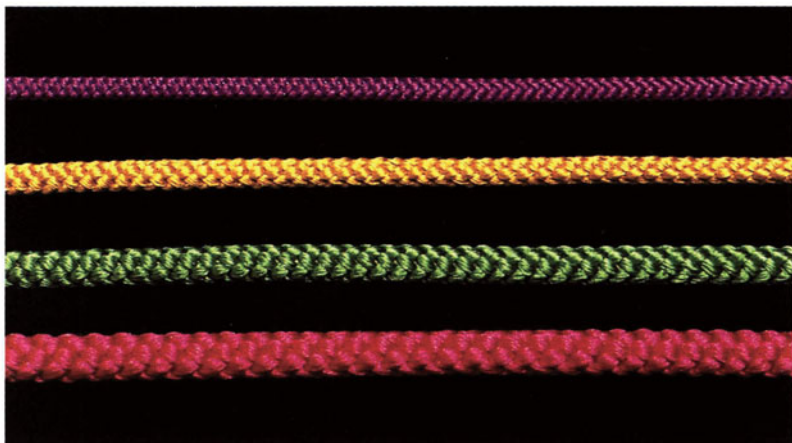


사진 17. 동다회(8사)

광다회는 폭이 넓고 납작한 평직의 끈으로 허리띠로 많이 쓰였고, 방울술 노리개 · 선초 · 안경집 장식 등에 쓰였다. 광다회의 기본 조직은 12사(絲)이며, 다회를 치는데 드는 실의 가닥수에 따라 16사(絲) · 24사(絲) · 36사(絲) 등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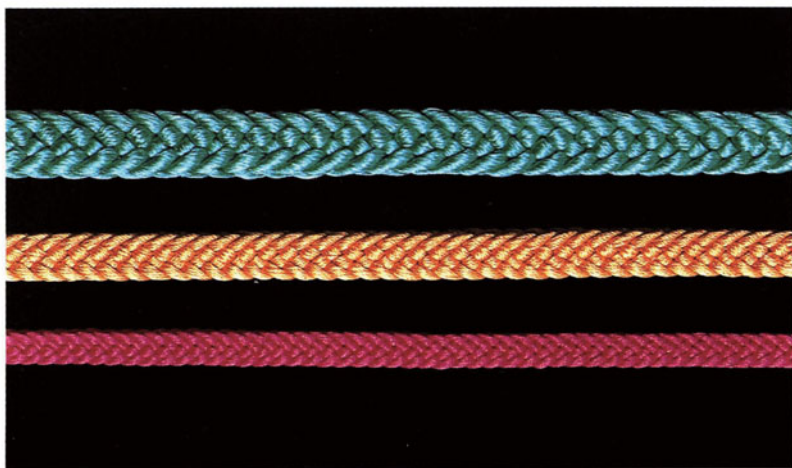


사진 18. 광다회(1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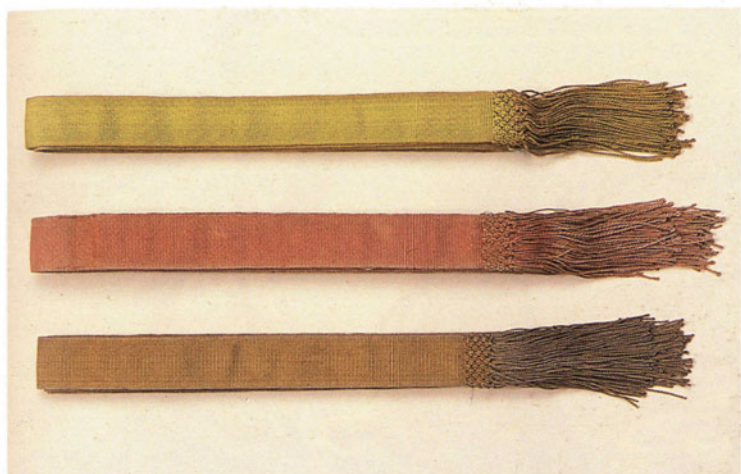


사진 19. 광다회 띠(실 가닥 수 미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우리 나라에서는 광다회의 기법이 단절되었으나, 12사의 경우 김희진씨가 일본의 다회장 구미히모(組ひも)의 실기를 본 후 재현하여 다시 그 기능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16사 이상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마주 앉아 가닥을 돌려가며 켜다고 구전되고 있으나 현재 단절된 상태이다.

아름다운 광다회가 이미 우리 고대 복식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고분 벽화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궁중유물전시관과 이대 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대자띠·분합끈 등의 유물에서도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여러 궁(宮)과 각 사(司)에서 필요한 수공예품을 조달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장인을 궁과 관청에 예속시켰다. 장인들은 한성(漢城) 안의 궁과 관청에 속한 경공장(京工匠)과 각 지방 관아에 속해 있었던 외공장(外工匠)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회장(多繪匠)은 경공장에만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 20. 고구려 무용총(舞踊塚) 고분 벽화의 의상에 나타난 광다회 띠

《동국여지비고》에는 “서울의 여러 중앙 관서의 장인은 그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공조와 소속 관서에 비치했다”고 하며, 다회장은 공조(工曹)에 2명 · 상의원(尙衣院)에 4명 · 전설사(典設司)에 6명이 있었다고 했다. 매듭장은 《대전회통》 공장(工匠)에 따르면 본조에 2명 · 상의원(尙衣院)에 12명이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합사(合絲) · 연사(鍊絲) · 염색(染色) 등 공정을 세분하여 합사장(合絲匠) 10명 · 연사장(鍊絲匠) 75명을 따로 두었고, 홍염장(紅染匠) · 청염장(靑染匠)을 구분해 두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끈목을 만드는 공정이 복잡했고, 궁중과 관청에서 그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2. 매듭의 종류와 용도

### 1) 기본형 매듭의 종류와 지역별 명칭

우리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본형 매듭은 33종에 이르며, 그 호칭은 지방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표로 만들면 <표1>과 같다.

### 2) 매듭의 용도

매듭은 신석기시대부터 이미 실생활 전반에 걸쳐 생활용 매듭으로 활용되었다. 고대 잉카의 퀴푸스 매듭<sup>8)</sup>이나 중국의 《역계사(易繫辭)》·《후한서(後漢書)》·《장자(莊子)》 등에 보이는 결승(結繩)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 매듭은 숫자나 문자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정사(政事)에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매듭은 삼국시대·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접어들면서 보다 용도가 다양해지고 사용 계층이 확산되는 등 실생활 전반에 널리 장식용으로 애용되었다. 이러한 장식용 매듭을 가지고 좀더 자세히 용도를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 (1) 장신구용

장신구로는 노리개, 선추술, 도포끈, 호패술, 귀걸이 등을 위시하여 귀주머니·두루 주머니·필낭·약낭·수저집 등 각종 주머니에 꿰어 매는 여러 가지 양식의 매듭이 있다.

8) quipu(quipu)는 고대 잉카 제국에서 계산할 때 쓰던 도구이다. 하나의 길고 굵은 끈에 여러 가닥의 가는 끈을 직각으로 달아매 엮었다. 가는 끈은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용도를 나타내고, 매듭은 수효를 나타낸다. 즉 적당한 간격을 두고 48개의 제 1끈을 묶어 늘어뜨리고, 제 2의 끈에 다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제 3의 끈을 매듭지어 단 단위·10 단위·100 단위를 나타냈다.

퀴푸스 매듭은 인구통계나 재산목록 등 계산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보전되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노끈의 색을 달리하여 공물·토지·생산물·의식 및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국가 업무를 나타냈다.

〈표1〉 기본형 매듭의 종류와 지역별 명칭

순서	궁중 <sup>9)</sup>	서울 지방 <sup>10)</sup>	대구 지방	남원 지방
1		외벌도래매듭	외도리매듭	
2	도래매듭	도래매듭	도리매듭	도리매듭
3	외귀매듭	납짝이매듭	귀도리매듭	콩매듭
4	단추매듭	연봉매듭	단추매듭	단추매듭
5	매화매듭			
6	잠자리매듭	잠자리매듭	온정자매듭	오발창매듭
7	나비매듭	나비매듭	암나비매듭	나비매듭
8			수나비매듭	
9	안경매듭		안경매듭	안경매듭
10		동심결매듭	동결매듭	동승결매듭
11	생쪽매듭	생쪽매듭	정자(井字)매듭	정자매듭
12		파리매듭		
13	이귀매듭	장구매듭	삼정자(三井字)매듭	삼정자(三井字)매듭
14	벌매듭	벌매듭		
15	가지방석 매듭			

9) 궁중 매듭의 명칭과 종류에 대해서는 순조의 외증손녀인 윤백영 할머니(1963년 당시 76세)가 김희진 씨에게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10) 19번에서 23번까지는 모두 합쳐서 방상(方相)매듭이라고도 한다.

순서	궁중	서울 지방	대구 지방	남원 지방
16		십일고매듭		십일고매듭
17		석씨매듭		
18	난간매듭	난간매듭		
19	국화매듭	두벌감개매듭	국화매듭	국화매듭
20	소차매듭	세벌감개매듭	세벌강정매듭	방석매듭
21	대차매듭	네벌감개매듭	네벌강정매듭	
22		다섯벌감개매듭	다섯벌강정매듭	
23		사색판매듭	거북매듭	
24				가재눈매듭
25			매미매듭	게눈매듭
26				끈디기매듭
27				날개매듭
28		전복술매듭		
29		망사매듭		
30	생(生)동심결매듭			
31	사(死)동심결매듭			
32				흔백매듭
33		가락지	가락지	가락지





사진 21. 향갑투호은장도 노리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① 노리개

조선시대 여성의 장신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형태와 재질, 용도와 계절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노리개는 저고리의 겹고름이나 안고름·치마허리 또는 대례복의 띠에 달아 단조롭게 보이기 쉬운 우리 고유 의상의미를 한층 더 화사하면서도 우아하게 강조해 준다.

노리개는 패물의 진귀함과 그 규모에 따라 예복용과 평복용으로 구분하여 궁중과 상류 사회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애용하였다. 궁중 의식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에 차기도 했고, 종류에 따라서는 평상시에도 사용했다. 또한 친가(親家)나 시가(姻家)에서 예물로 받아 자손에게 물려주는 대물림으로 인해 가보(家寶)로서 귀히 여겼다.

홍·남·황의 삼원색을 기본으로 하고 분홍·연두·보라·자

주·옥색 등 다채로운 색의 다회로 매듭을 맺고, 술을 늘어뜨린 노리개 세점을 한벌로 하여 '노리개 삼작'이라 불렀다. 노리개에 쓰이는 매듭은 주로 도래·생쪽·매화·국화·삼정자·병아리·나비·가지방석매듭 등이고, 색실과 금실로 만든 가락지를 끼우고 봉술·딸기술·낙지발술 등을 늘어뜨렸다. 그리고 노리개의 형태나 무늬에는 조선조 여인들의 현세에 대한 희망과 기원을 뜻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

또 단작 노리개로 장식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겸한 노리개도 있다. 향집·비취발향·줄향 등은 고체 향제를 넣어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베어 나오도록 했다. 특히 향갑에는 사향을 주로 넣어 바깥 출입시 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급체 때에는 그것을 갈아서 먹는 등 구급 약품으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바늘거리는 갑자기 옷을 손불 일이 생겼을 때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한 휴대용 바늘 보관 도구의 역할을 했다. 장도 노리개는 호신용으로 여성의 정절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사진 22.  
색동봉술 노리개  
대삼작, 이대 박  
물관 소장



사진 23. 나비향낭, 이대 박물관 소장



사진 24. 비취발향, 이대 박물관 소장



사진 25. 줄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26. 대례복에 장식한 노리개대삼작, 김희진 소장



### ② 각종 주머니

우리 옛 의상의 특징 중 하나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용과 미를 겸한 장신구로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몸에 지녔다. 주머니는 형태·장식·용도별로 또는 그 소재에 따라 귀주머니·염낭[두루 주머니]·약낭(藥囊)·필낭(筆囊)·수저집·안경집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주머니의 종류만큼 매듭과 술의 종류도 다양해서 끈술·딸기술·봉술·오발창매듭·안경매듭·잠자리매듭·생쪽매듭·국화매듭·병아리매듭 등 다양한 형태의 매듭과 술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기록된 《규합총서(閨閣叢書)》의 주머니끈과 갓끈 매듭에 의하면, “당사(唐絲) 팔척(八尺)에 날아 동다회를 치면 예자[六尺]되니, 도래매듭 상·중·하 모두 열, 외귀매듭 상·하 둘, 가운데에 나비매듭 하나하면 되니, 이것이 궁중의 주머니 만드는 모양이니 품스럽고 좋다. 그러나 요즘 주머니끈은 방석매듭으로 코를 빼어 드리우고 거꾸로 꿰니 몹시 천하되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하여 궁중의 주머니 매듭이 까다로운 격식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궁중 주머니 매듭은 《규합총서》의 저자인 빙허각 이씨의 신분 계층인 사대부 집안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기록은 매듭이 점차 간략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진 27. 귀주머니,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사진 28. 봉술로 장식한 엄낭,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사진 29. 필낭(左)과 수저집,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사진 30. 수저집,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③ 도포끈(쾌자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편복으로 애용한 도포에는 동다회 양끝에 딸기술을 단 띠를 했고, 길다란 쾌자띠를 가슴에 둘러 생동심결로 매고 두끝을 무릎 아래까지 늘어뜨려 멋을 냈다. 쾌자띠의 빛깔은 계급에 따라 구분되어 당상관은 다홍·분홍·자주색, 선비는 초록색, 참봉이나 주사는 회색, 초시는 보라색을 사용했고 상주(喪主)는 어느 계층이든 간에 흰색을 들었다.

《동국여지비고》 제 2권 한성부의 의장조서에 의하면, 조선시대 사대부들 중 1품관과 당상관 3품 이상은 중단(中單: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을 입을 때 구름과 학을 수놓은 금고리에 술있는 띠(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를, 3품관 이상이 중단을 착용할 때도 수리가 앉아 있는 수놓은 고리에 술있는 띠(반조은환수:盤雕銀環綬)를 했으며, 4품관의 중단에는 은고리에 술띠(연은환수:鍊銀環綬)를, 5·6품 이상은 중단 착용시에 동환수(銅環綬)를 사용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1품관 이하 나장·조예(皂隸)까지도 사복에는 색채를 달리한 실띠를 사용하였다고 했다.



사진 31. 도포끈 - 원다회에 딸기술 · 광다회에 딸기술 · 원다회에 딸기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32. 호패술 - 광다화에 방망이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33. 선추술 - 딸기술 · 방울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④ 호패술

남자의 바지 허리끈에 달았던 호패는 대부분 방망이술로 장식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호패의 재료와 새겨진 명문(銘文)이 달랐으며, 술이나 끈목의 색깔도 달랐다.

#### ⑤ 선추술

부채의 고리에는 다화에 선추를 끼워 술을 늘어뜨렸다.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선추·초혜집 등이 사용되었으며, 끈목의 색깔도 달리하였다.

선추에 늘어뜨린 끈목은 대체로 가늘고 뽕뽕한 8사를 썼고 중간에 양옆의 고를 길게 뺀 동심결을 맺었으며, 방울술이나 딸기술을 주로 달았다. 여자용인 경우에는 딸기술·봉술을 쓰기도 했다.

⑥ 대자띠

대자띠란 평직으로 짠 넓은 띠 양끝에 전복술 매듭을 여러 단 맺고 그 끝을 그대로 늘어뜨린 허리띠로, 궁중유물전시관에 연두·분홍·남색·색동으로 된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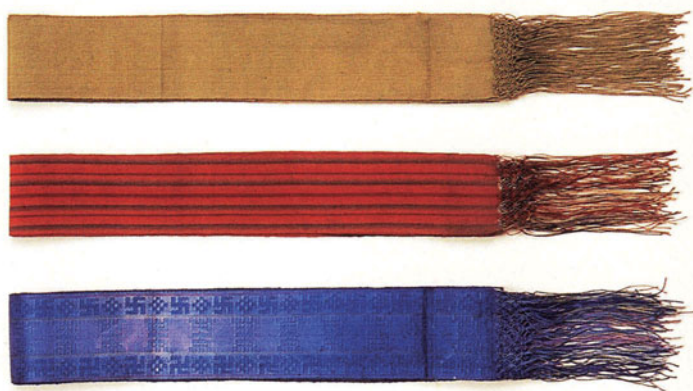


사진 34. 광다회 대자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35. 전(傳) 윤급의 초상화에 장식된 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2) 실내 장식용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매듭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발걸이 · 방장걸이 · 헛대 · 족자 · 편액 · 붓걸이 · 고비 등 실내용 기물에 매듭을 장식하여 무미한 실내 분위기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몄다. 발걸이는 매듭을 맺고 딸기술 · 봉술 · 끈술을 썼으며,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는 방장이나 옷을 걸어두는 헛대에도 발걸이와 같이 매듭 장식을 했다.

조선 후기 문신(文臣)으로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尹斗壽)의 5대손인 윤급(尹汲:숙종 23~영

조 46)의 초상화라고 전해지는 초상화의 걸이로 만든 유소는 장식과 실용을 겸한 술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사진 36. 순종 어진 걸이에 장식된 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3) 종교 의식용

사찰에서 사용하던 연·번·불자 등에도 매듭 장식을 하여 장엄하였다. 특히 연(輦:부처를 모셔 오는 가마)에는 옥·유리 구슬·수향갑·조각한 나무 등에 매듭과 술을 달아 연의 처마 밑에 사방으로 촘촘히 둘러 늘였으며, 네 모서리에는 석씨매듭을 넣은 대봉유소를 달아 길게 늘어 장엄하였다. 현재 연의 오래된 완벽한 일습의 매듭 유물은 없으나, 일부 보수되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유물로 그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인로왕번(引路王幡)<sup>11)</sup>의 양쪽 옆에도 쪽빛·다홍·노랑·검정·흰색의 오방색으로 매듭을 맺고 오색 방망이술로 장식한 대봉유소를 늘어뜨렸다. 그리고 스님들이 지니는 불자에도 내면에 매듭 장식이 있다.



사진 37. 연의 장엄 장식, 서울 봉원사 소장

11) 죽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의 이름을 쓴 깃발



사진 38. 인로왕번의 매듭 장식,  
밀양 표충사 소장



사진 39. 송광사 국사전(國師殿) 제 5세 조사  
(第五世祖師) 영정(影幀)의 불자,  
조선시대(17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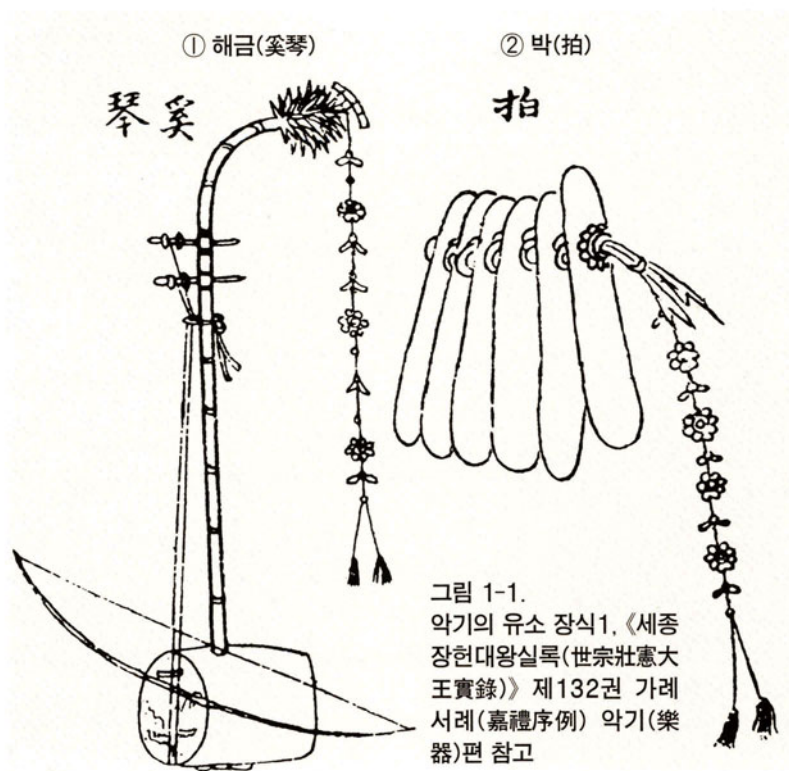
사진 40.  
불자(佛子)의 매듭 장식,  
사명대사 유품,  
밀양 표충사 소장



#### (4) 악기 장식용

조선시대 악기 중 유소 장식을 단 것이 많다. 《세종실록》악기조(樂器條)에 의하면, 건고(建鼓)·방향(方響)·당필률(唐觔栗)·적(笛)·향필률(鄉觔栗)·대적(大笛)·장구채·통소(洞簫)·해금(奚琴)·박(拍) 등에 유소를 장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철제은상감적(鐵製銀象嵌笛)·죽간자(竹竿子)·황개(黃蓋)·라(螺)·편종(編鐘)·대금(大琴)·방향(方響) 등의 악기에도 유소를 늘어뜨려 장식했다. 그리고 박(拍)의 고리에는 사색판매듭을 넣고 사봉 딸기술을 늘어뜨린 유소로 장식하기도 했다.





③ 향필률(鄉鶯栗) ④ 대적(大笛)

⑤ 통소(洞簫)

栗鶯鄉

大笛

洞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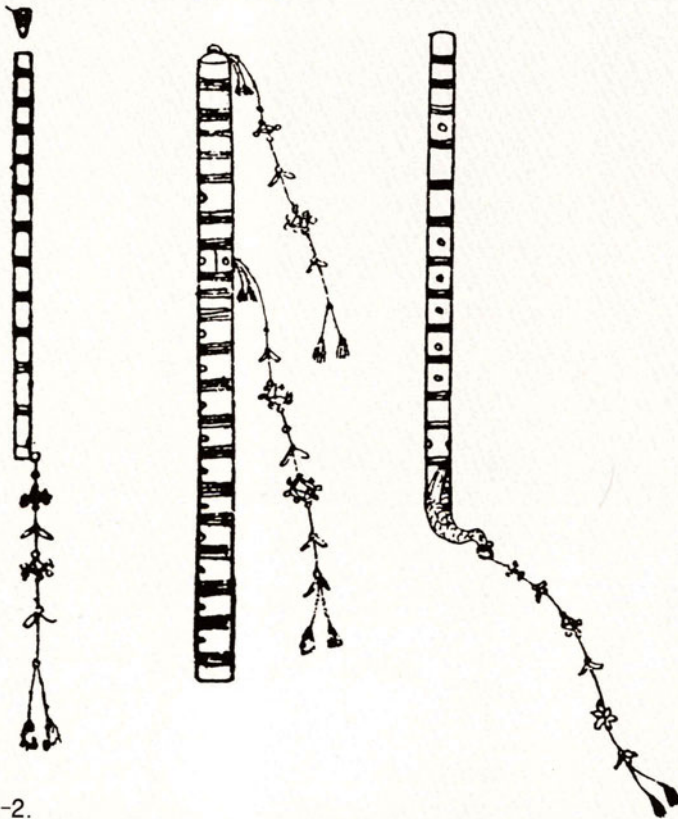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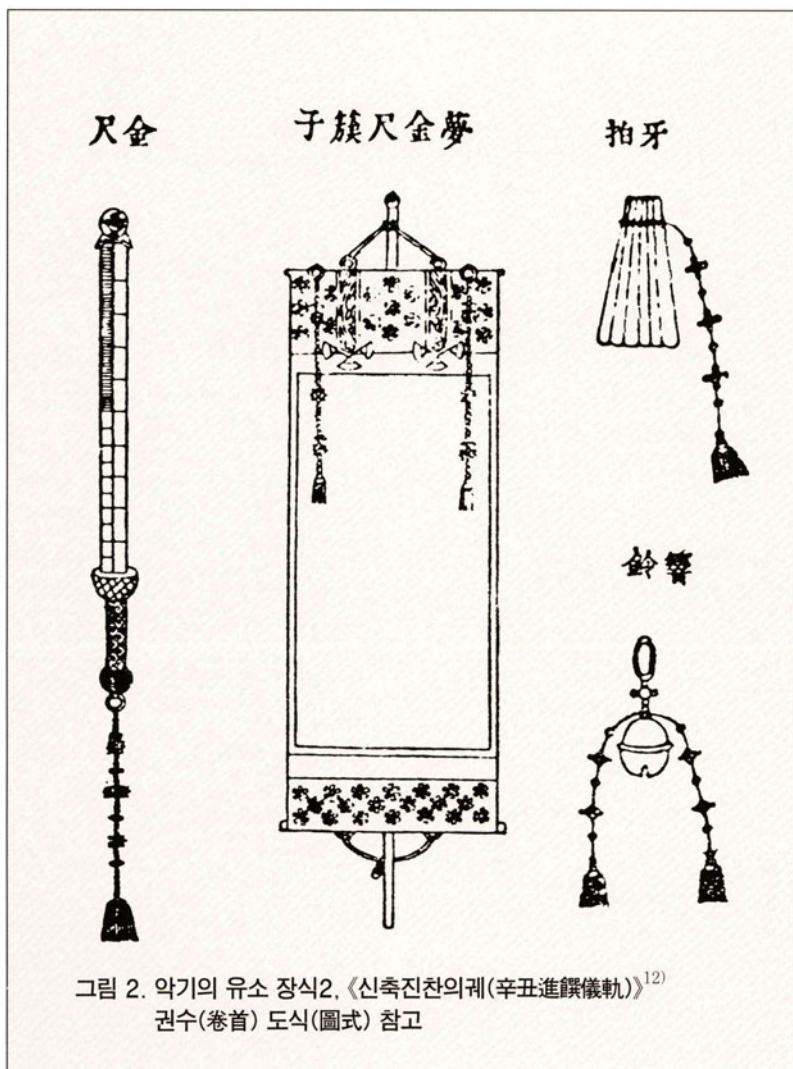


그림 1-2.

악기의 유소 장식1,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壯憲大王實錄)》 제132권  
가례서례(嘉禮序例) 악기(樂器)편 참고



12) 고종(高宗) 광무(光武) 5년(1901) 음력 5월 명헌태후궁(明憲太后宮)의 보령(寶令) 망팔지경년(望八之慶年)을 맞이하여 5월 14일의 길일(吉日)을 택하여 경운당(慶運堂)에서 진찬의(進饌儀)를 베풀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준비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張師勛, 《인정전 악기조성청 의궤 외 3책(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外三冊)》, 국립국악원, 1987, 12쪽).



사진 41. 철제적(鐵製笛)에 장식한 매듭,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5) 예복용

조선시대 관복(官服) 중에 경축일에 입었던 조복(朝服)이나 종묘제사 때 입던 백관의 제복(祭服)에 부착된 후수(後綬)는 청색 실로 망수를 맺고 그 끝에 후수술을 달았으며, 금관에는 딸기술을 양편에 달았다. 왕비의 적의에도 뒷면의 대대(大帶)에 후수를 달았고, 후수 끝에는 술이 달렸다. 그리고 임금이나 왕비 또는 고관들만이 패용했던 패옥(珮玉)에도 밑에 매듭으로 망수(網繡)를 맺고 술을 늘였다.



사진 42. 왕비의 적의에 장식 하던 후수, 궁중유물 전시관 소장



사진 43. 금관조복(金冠朝服)에 장식한 후수,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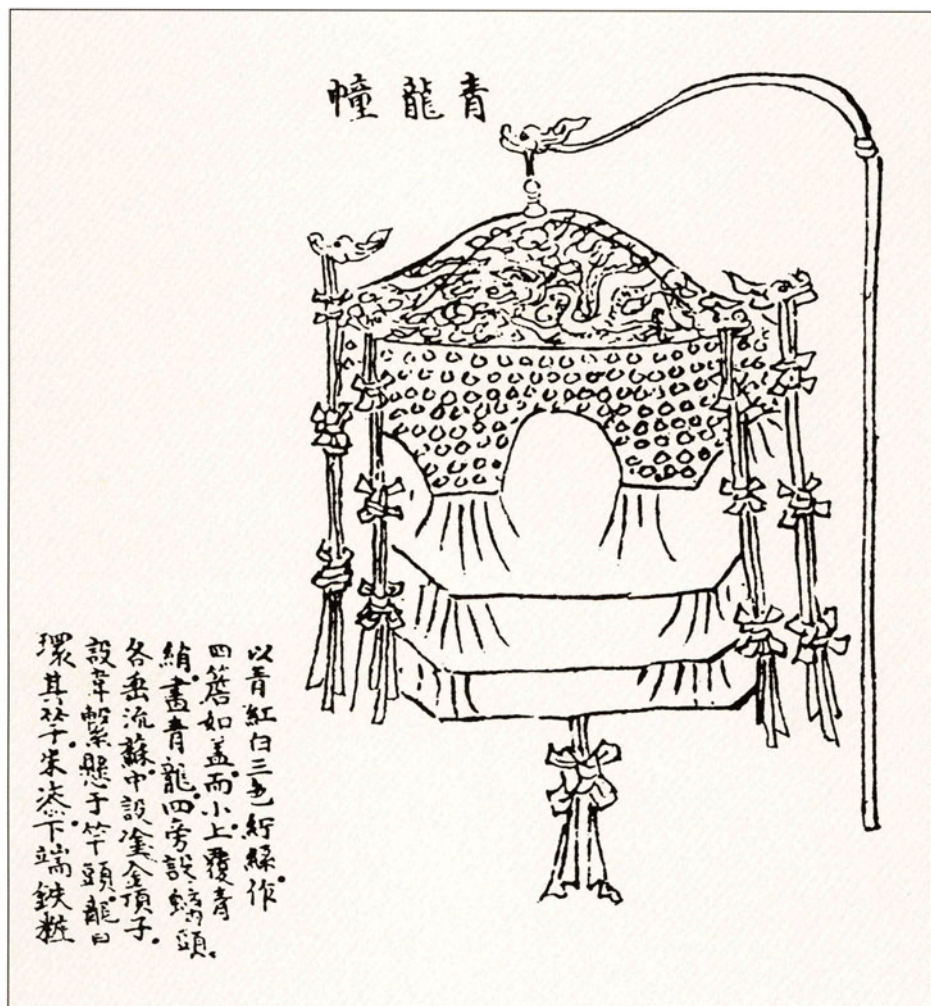


사진 44. 왕비의 패옥,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6) 궁중용 기물과 복식  
《세종실록》 제 134권 흥례서례(凶禮序例) 거여(車輿)조에 보면 일명 견여(肩輿)라 하는 순(輶)과 반우거(返虞車)에는 낙영(落纓)을 만들어 사방의 처마에 드리운다고 했다. 대여(大輦)에는 삼색의 저사(紵絲)를 사용하여 낙영을 만들어 서로 섞어서 사면에 드리운 처마의 안에 매단다. 그리고 대여의 충연(衝椽) 4각(角)에는 용(龍)을 만들어 오채를 나타내고, 고리를 용구(龍口)에 설치하여 홍초(紅綃)로 된 길이 17척 2촌의 유소를 드리운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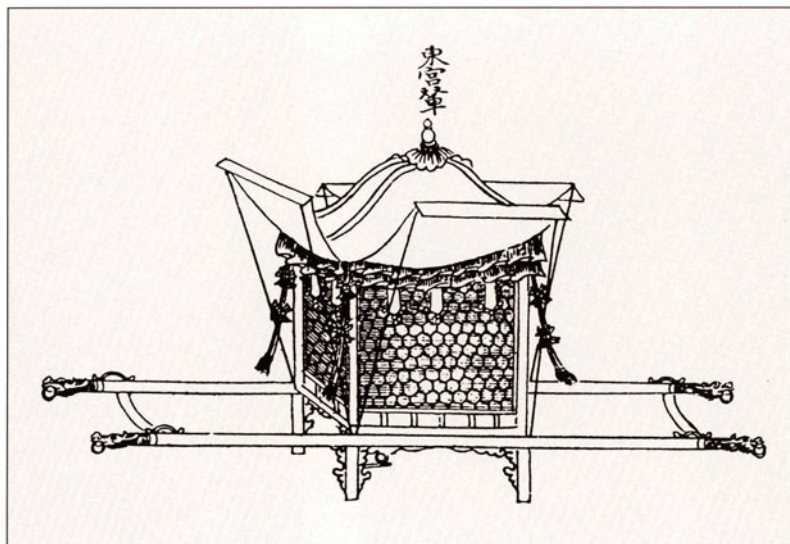
《세종실록》 제 132권 가례서례(嘉禮序例) 노부(鹵簿)편의 청룡당(靑龍幢)·주작당(朱雀幢)·백호당(白虎幢)·현무당(玄武幢)과 청양산(靑陽繖)·홍양산(紅陽繖)의 그림 및 설명에 유소를 드리운 양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의 여연(輦輦)과 소연(小輦)·중궁의 대연과 소연 및 동궁의 연에도 유소와 발장식을 드리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청룡당(靑龍幢)<sup>13)</sup>



13) 청·홍·백 삼색의 저사(紵絲)로 4겹의 처마를 일산(日傘)과 같이 만드나 작다. 위에 청색 생초(生綃)로 덮고 청룡을 그린다. 사방 옆으로는 이무기 머리를 설치하고 각각 유소를 드리운다. 한복판에는 도금한 정자(頂子)를 설치하고, 가죽으로 간두(竿頭)의 용구(龍口) 고리에 매어 단다. 그 당간은 붉은 빛깔로 칠하고 아래쪽의 끝은 쇠로써 장식한다. 주작당·백호당·현무당도 만드는 방법은 같고 위에 그리는 그림만 다르다(《세종장헌대왕실록》 제 132권 가례서례(嘉禮序例) 노부(鹵簿)편 참고).

그림 4. 동궁(東宮) 연(輦)의 유소 장식, 《세종장헌대왕실록》 제132권 가례서례  
여연(輦輦)편 참고



《상방정례(尙方定例)》 천(天)의 대전법복조(大殿法服條)에 의하면 면복(冕服)에 수(綬)·대대(大帶)·오색다회(五色多繪)·패옥(珮玉)·방심곡령 등을 갖추어 구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강사포에는 수(綬)·대대(大帶)·청조(靑組)·오색다회(五色多繪)·패옥(珮玉) 등을 구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 매듭술이 복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왕 및 동궁의 평천관(平天冠)의 소삼색주(旒三色珠)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평천관에는 구슬을 꿰 매듭 장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매듭 유물로는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태조(太祖)의 어도(御刀)에 부착된 매듭이 최고(最古)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45. 조선 태조의 어도에 장식된 매듭,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 (7) 민간 의예식용

민간에서 새색시가 시집갈 때와 사대부집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타는 가마를 위시하여, 마지막 저승길에 타고 가는 상여에 대봉유소·소봉유소·양장유소 등의 매듭과 술을 장식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넣는 관은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밑으로 천민에 이르기까지 백포(白布)로 매듭을 묶었다.





사진 46. 가마에 늘어뜨린 딸기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48.  
상여에 장식하는 대봉유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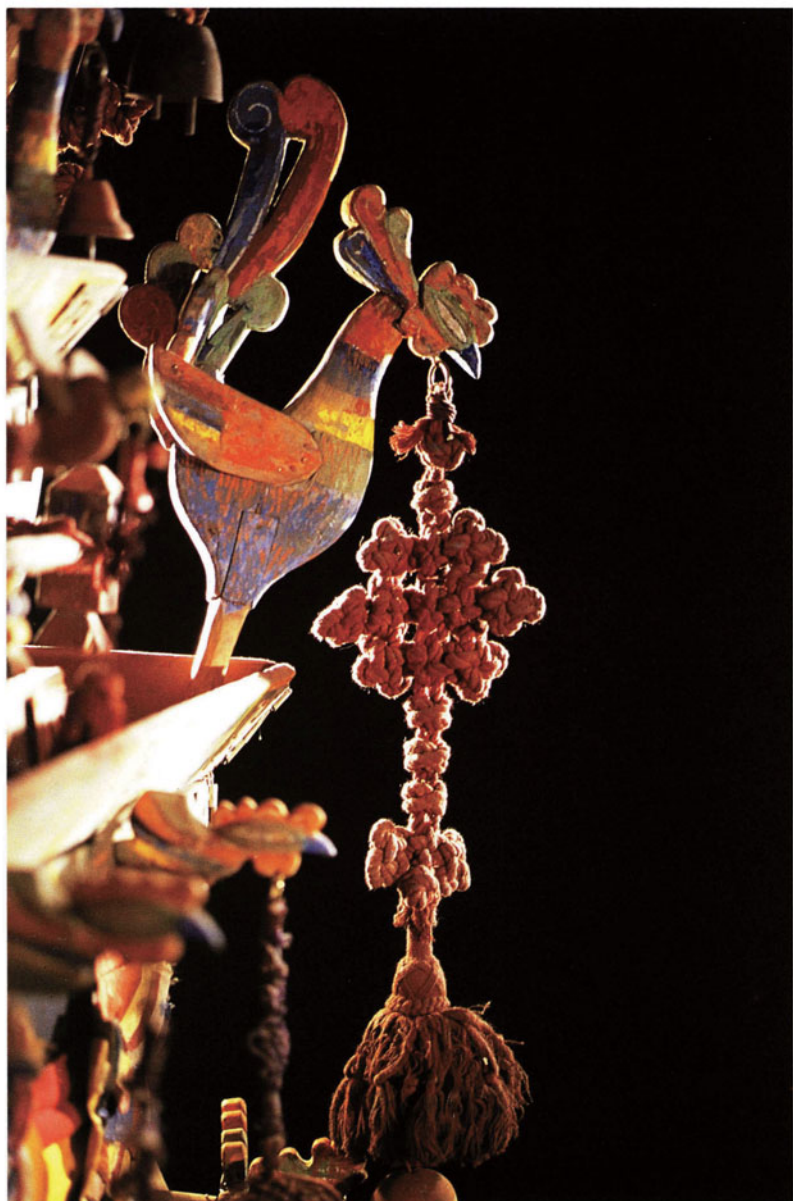


사진 47. 상여의 유소 장식,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3. 술의 종류와 용도

다회와 매듭의 구성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는 장식용 매듭으로 비례가 맞지 않으며, 술이 있어야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즉 다회·매듭·술의 세가지가 합쳐져야 아름다운 장식용 유소가 완성된다. 술의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딸기술

술머리를 딸기처럼 틀었다하여 딸기술이라 하며, 도포끈·노리개·선추·각종 실내 장식용 유소 등에 많이 쓰인다. 홀딸기술·겹딸기술·색동딸기술이 있다.



사진 49.  
봉술로 장식한 귀걸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2) 봉술

봉술은 술머리에 봉을 감을 때 새기는 글자에 따라 회자(囀字)술·수자(壽字)술·왕자(王字)봉술로 구분한다. 노리개·선추·주머니끈·각종 유소·연(輦)이나 가마의 대자띠 밑에 늘이는 술로 쓰였으며, 귀걸이 장식에도 봉술을 썼다.

## (3) 방망이술

술의 머리를 나무로 구형(球形)이나 호리병 모양으로 깎아 금색 물을 올리고 색실로 그물처럼 망을 떠서 덮고 그 밑에 술을 늘어뜨린 것과, 서각(犀角)이나 상아로 둥글게 술의 머리를 깎아 만든 뒤 술을 늘어뜨린 것이 있다.

국악기·연·어진·족자·인로왕변·상여·가마 등에 쓰이는 대형 유소 끝에 많이 쓰였으며, 호패에도 달았다.

## (4) 낙지발술

매듭을 맺는 동다회와 같은 끈목으로 여러 겹 가지런히 늘어뜨린다. 이봉낙지발술·삼봉낙지발술 등이 있으며, 끈술이라고도 불렀다. 주로 노리개에 많이 쓰이며 왕실용 가마의 유소에도 쓰였다.

## (5) 방울술

12사 끈목으로 연봉매듭을 맺고 끈의 두끝을 그대로 늘어뜨려 끝부분에 금실이나 은실, 또는 배색이 잘되는 색실을 감았다. 방울술 노리개·남자용 선추·장도·안경집에 많이 달았으며, 애기 노리개에도 쓰였다.



### (6) 후수술

목노<sup>14)</sup>를 가로로 팽팽하게 매어 놓고 술길이에 맞추어 자른 술실을 반으로 접어 목노에 엮어 놓고 한올 한올 서로 엮어 조여서 섬세한 무늬를 만들어 내려가며 끝부분을 약간 남겨 늘어지게 한 것을 후수술이라고 한다. 후수(後綬) 자락 끝에 달았으며, 허리끈인 대자띠 끝부분에도 달았다.



사진 50. 후수술, 김희진 소장

14) 목실을 여러 겹으로 꼬아 질기게 만든 끈

(7) 금전지술

삼각형으로 모양을 만든 은종이나 금종이 사이에 짧게 자른 비단 실을 넣어 같이 풀로 붙여 만든 것으로, 보자기 네 귀와 화관에 주로 달았다.



사진 51. 보자기에 장식한 금전지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8) 잔술

봉술의 일종으로 아주 작고 짧게 만들어 주머니나 조바위·남바위에 많이 달았다.



사진 52. 조바위의 잔술 장식,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Ⅲ. 매듭 제작

### 1. 매듭의 제작 도구

끈목을 짜고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도구가 필요하다. 먼저 끈목을 짜기 위한 실을 합사하기 위해서는 자구리 · 상사거리 · 비톳 등의 도구가 필요하다. 끈목을 짜기 위해서는 토 짝과 다회틀이 필요하며,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술틀 · 술판 · 돛 바늘 · 실패 · 사장못 등이 있어야 한다.

#### 1) 자애

자새라고도 한다. 타래로 된 명주실을 자구리에 옮겨감을 때 명주실 타래를 걸쳐놓고 쓰는 도구이다.

#### 2) 자구리

나무로 깎아 만든 것으로 명주실을 감아 놓는 도구로 얼래라고도 한다. 실을 감아 보관할 때 통풍이 잘 된다.

#### 3) 상사거리

끈목이나 술을 만들기 위해 실을 합사하거나 꼬는데 쓰는 도구이다. 맨 윗부분에는 1m 정도의 잘 다듬어진 막대 위에 10cm 간격으로 나무못을 박고 가운데는 110cm 정도 높이의 튼튼한 기둥을 받쳐 세워 놓았다. 실을 합사하거나 꼬을 때 비톳을 걸어 놓고 쓴다.



사진 53.  
자애(右)와 자구리,  
김희진 소장



사진 54.  
상사거리와 나무 비뿔,  
김희진 소장



#### 4) 비툃

두 종류가 있다.

① 하나는 실을 합사하거나 꼬을 때 상사거리에 걸쳐놓고 쓰는 도구이다. 일정한 무게의 찰흙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둥글려 원통형으로 빚고, 가운데는 끝부분에 코가 달린 대바늘을 끼워서 바늘이 잘 고정되게 만든 것이다. 술실을 꼬을 때는 큰 비툃을 쓰며, 합사할 때에는 끈의 굵기에 따라서 비툃의 크기를 맞추어 쓴다.

大 : (빚을 때 찰흙의 무게 95g) 머리 모양 직경 5.3cm,

높이(두께) 2.3cm, 대바늘 길이 27cm

中 : (빚을 때 찰흙의 무게 65g) 머리 모양 직경 4cm,

두께 2cm

小 : (빚을 때 찰흙의 무게 40g) 머리 모양 직경 4cm,

두께 1.5cm, 대바늘 길이 22cm

② 술을 비빌 때 쓰는 것으로 금속 비툃이 있다. 이때는 상사거리 위에서 잘 꼬아진 바탕실을 술길이에 맞추어 술틀에 감아놓은 뒤에 비툃으로 하나하나 비벼서 다시 꼬게 된다. 전체 길이는 10cm 정도이고, 금속으로 만들었으며 6cm 부분에서 직경 1.8cm 정도의 둥근 원통형의 추가 있다. 비툃의 맨 윗부분은 술실을 걸어서 뺄 수 있게 구부러져 코바늘<sup>15)</sup> 같이 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골이 패어 있어서 꼬은 실을 돛바늘에 옮겨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다.

15) 구부러진 끝부분을 코알구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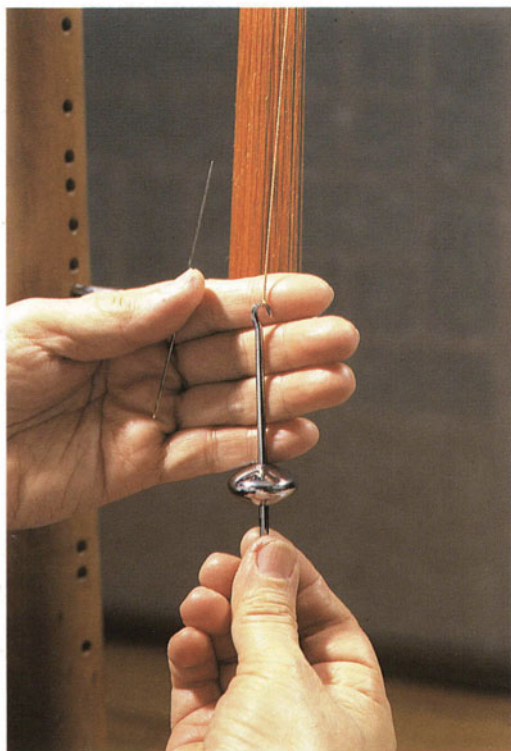


사진 55.  
금속 비뿔,  
김희진 소장

#### 5) 토착

끈목을 짤 때 실을 감아서 쓰는 실패와 같은 것이다. 끈틀 위에서 아래로 힘있게 늘어져야 손놀림을 할 수 있으므로, 나무를 장구 모양으로 깎은 뒤 속에 일정한 무게의 납을 심으로 넣어 만 들었다. 굵고 긴 끈을 짤 때에는 토착의 무게도 무겁고 커야 한다. 반대로 가는 끈을 짤 때는 작고 가벼워야 한다.

그래서 토착의 무게와 크기도 여러 종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나무 깎은 것 대신에 무게 40g의 진흙을 가지고 장구 모양으로 빚어서 마른 후 형겅으로 한겹 발라서 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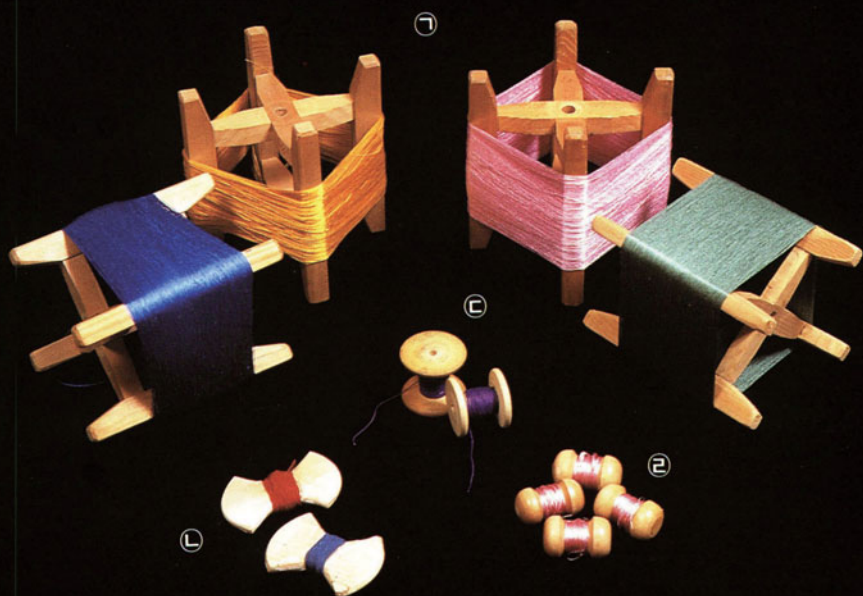


사진 56. ㉞ - 자구리, ㉟ - 술실을 감아놓은 나무 실패,  
㊱ - 끈목 짤 때 속심을 감는 둥근 실패, ㊲ - 토짜, 김희진 소장

## 6) 다회틀

### (1) 심없는 재래식 8사(絲) 틀 (남원틀)

남원읍 노암리에 박용학씨가 쓰던 8사(絲) 틀의 원형을 재현해 만든 것이다.

두꺼운 나무판 한가운데에 둥근 원추형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둥근 접시를 얹고, 접시 한가운데에는 바늘대를 꽂았다. 원추

형 기둥 겉면은 누빈 형식으로 한겹 덮었고, 목판 한편 끝에 갈고리를 박아서 다 짠 끈을 걸치게 되어 있다.

밑받침 : 25cm × 25cm, 원추형 기둥 높이 : 28cm

밑면의 지름 : 27cm, 접시의 직경 : 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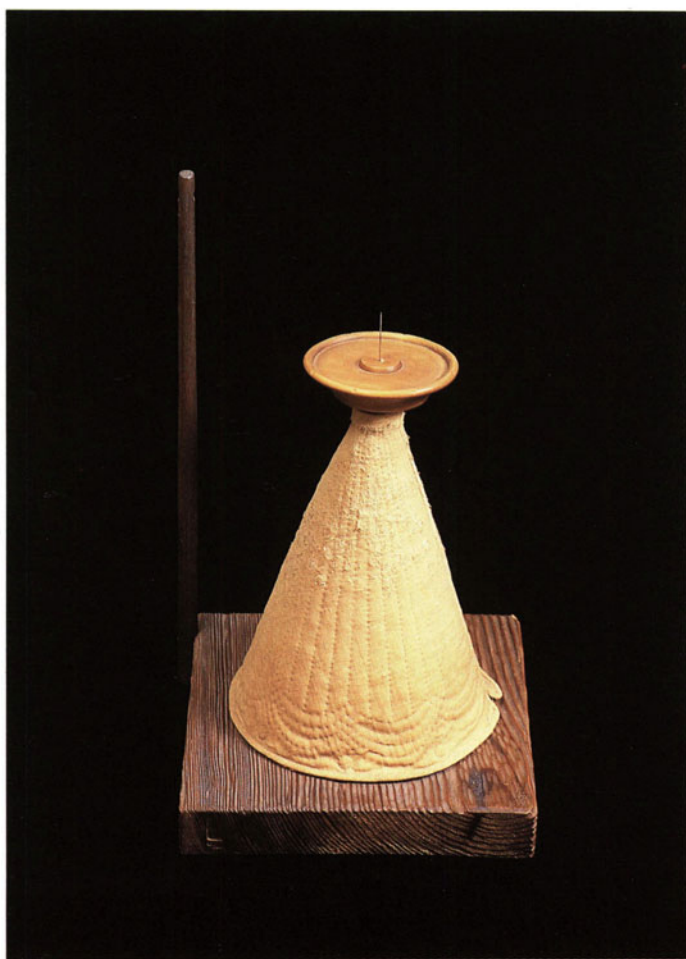


사진 57. 8사틀(남원틀), 김희진 소장





사진 58. 궁중에서 쓰던 심널는 다회틀, 이대 박물관 소장



사진 59. 궁중에서 쓰던 심널는 다회틀 - 밑받침으로 둥근 항아리를 놓고 그 위에 다회틀 대접을 놓고 사용하였다, 숙대 박물관 소장

(2) 공중에서 사용한 심(芯) 넣는 다회틀

접시 대신 나무 대접 속에 준수를 얹히고 그 속에 심을 마련해 넣고, 짜여지는 다회끝은 공중에 매달아 조절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틀은 이대 박물관과 숙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대 박물관의 것은 밀받침이 없으나, 숙대 박물관의 유물은 당시에 사용하던 밀받침 항아리를 갖추어 완벽한 일습을 보여준다.

(3) 김희진 다회틀

남원틀과 운현궁에서 쓰던 다회틀을 바탕으로 김희진씨가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고안하여 만든 심넣는 다회틀이다. 분리식 둥근 접시<sup>16)</sup>를 받치는 기둥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 속심이 밑에서 위로 통과하게 되어 그 위에 얹는 접시 중앙을 통해 속심을 빼내어 부드러운 곡선의 기둥 위를 뒤로 통과해서 다 짜여진 다회가 감기는 부분에 심(芯)을 팽팽하게 고정시켜 그 속심 자체가 바늘대 구실을 하게 만들었다. 바탕의 원형판 위에는 속실을 감은 실패를 꿸 수 있는 작은 쇠기둥을 여덟 개 꿸었다. 그 원형 목판 바닥 중심에 고정시킨 기둥의 둘레에 원추의 나팔형 속지를 둘러누빈 형꼴 옷을 입힌다. 접시 둘레에서 옷 위로 늘어진 다회를 짠다. 뒷편에 있는 손잡이를 조금씩 젖히면서 짜 나가면 다 짜여진 다회가 둥근 틀에 감긴다. 끝까지 짜고 난 다음, 나무 고리를 원형 목판에 팽팽히 걸어 다회를 풀어낸다.

17) 굵은 끈을 짤 때는 직경 12cm, 가는 끈을 짤 때는 직경이 10.5cm이다.



사진 60.  
김희진 다회틀,  
김희진 소장



사진 61.  
12사 틀,  
김희진 소장

(4) 12사(絲) 틀

모양은 8사 틀과 같으나 윗부분의 접시가 네모난 모양이다.  
접시 크기 : 14×14cm

7) 술틀

① 잘 다듬어진 직경 25cm 정도의 원형 나무판의 한가운데에 높이 60cm 정도의 나무 기둥을 세웠고, 기둥에는 3cm 간격으로 구멍이 뚫렸다. 그 구멍에 사장못 2개를 원하는 술길이에 맞춰 끼워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② 가로와 세로가 각 70cm·5cm이고 두께가 2cm 정도인 잘 다듬어진 나무판에 직경 6~7mm 정도의 나무못을 박아서 낙지발술을 만드는데 쓴다.



사진 62. 낙지발술틀, 김희진 소장

8) 술판

양끝에 못을 가지런히 박은 나무판으로 술의 길이에 따라서



술판의 크기도 대·중·소로 나눌 수 있다. 2cm 정도의 두꺼운 나무판에 나무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 놓아 술을 가지런히 펼쳐 팽팽히 고정시켜, 길이를 똑같이 맞추어 김올리기 작업을 한다.

나무판 크기 : 大 -  $22 \times 45 \times 2$ cm, 나무못의 간격 2.5cm  
 中 -  $19 \times 35 \times 2$ cm, 나무못의 간격 2.2cm

### 9) 돛바늘

길이 9cm 정도의 금속 바늘

### 10) 나무 실패

- ① 심있는 끈틀에서 속심인 면사를 감는 실패
- ② 술을 비비기 위해서 되게 꼬은 바탕실을 감아 쓰는 실패

### 11) 사장못

술틀의 기둥 구멍에 끼우는 못이다. 술의 길이에 맞추어 술틀 구멍에 끼워서 술을 꼬을 수 있게 조정 한 후, 사장못에 꼬은 실을 감게 된다. 사장못은 긴 것과 조금 짧은 것 2개가 필요하며, 긴 사장못에는 목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크기 : 긴 것 - 17cm,  
 짧은 것 - 14cm



사진 63. 술틀·사장못·술판, 김희진 소장

## 2. 매듭 제작 과정

### 1) 염색

끈목을 짜려면 명주실이 끈틀에 얹혀지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먼저 생사(生絲)를 비눗물에 알맞게 삶아 깨끗이 행구어 견교질(絹膠質)을 빼낸 후 그늘에서 말린다. 이 과정을 ‘정련(精練)’ 또는 ‘숙(熟)한다’고 한다.



사진 64. 염색① - 정련한 명주실과 염료

정련을 한 비단실을 염색하는데 천연 염료로 잇꽃·지치·쪽·꼭두서니·치자·참·명아주·소방목·대추나무·주목·계장초·금전화·팥·배나무 껍질 등 여러 식물의 꽃이나 뿌리·

있 등이 쓰인다. 천연 염료는 재료에 따라 염료를 추출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며 매염제를 넣고 중염(重染)하여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탈색이 잘 되므로 개화기 이후에는 화학 염료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화학 염료로 염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련한 흰 명주실과 원하는 색의 염료·정수된 물을 준비하고 작은 그릇에 적당량의 염료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염료를 용해시킨다. 염색을 할 물이 미지근해지면 용해시킨 염료물을 조금 붓고 염료의 성분에 따라 매염제인 소금 또는 식초를 넣고 잘 저어 놓는다. 명주실 타래를 먼저 행구어 적서 놓은 것을 두 손으로 빨리 돌려가며 물들이기를 시작한다.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따라 용해된 염료액을 조금씩 더 넣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엷은 색에서부터 점차 진하게 하여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물들도록 한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원하는 색보다 진한 것을 감안하여 염색을 한 뒤, 자주 뒤적거리 주면서 끓기 직전까지 열을 올린다. 그 다음 정수된 물로 여러 번 행구어 낸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행군 후에 두 손바닥으로 눌러 짠 다음 털어서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말린다. 말리는 도중 가끔 실타래를 양손에 걸고 탁탁 털어 준다.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 여러 차례 털어 주어야 실에 윤기가 나며, 실이 쪽 고르게 퍼지면서 마른다.



사진 65. 염색② - 염색할 물에 농도를 맞춰 염료를 탄다.



사진 66. 염색③ - 염색하기 전에 명주 실을 행군다.



사진 67. 염색④ - 물들이는 모습



사진 67. 염색⑤ - 염색된 실타래를 손바닥으로 눌러 짤다.





사진 69. 염색⑥ - 말리는 중간중간 실타래를 털어주며 말린다.



사진 70. 염색⑦ - 염색한 명주실을 그늘에서 말린다.



사진 71.  
염색⑧ - 염색한 명주실 타래와 자구리에 감아놓은 명주실

## 2) 다회치기

염색을 하여 잘 마른 비단실 타래를 자애에 걸고 옮겨 감는다. 이것을 ‘자애질 한다’ 또는 ‘해사한다’ 고 한다. 해사가 끝나면 필요한 끈목의 길이에 알맞게 길이(보통 10m)를 정하고 난 뒤, 보통 상사거리를 놓고 용도에 맞는 굵기로 실을 나른다. 이것을 ‘합사(合絲)’ 라고 한다.<sup>17)</sup> 합사할 때는 오른손에는 자구리를 들고 왼손 끝으로 실을 가볍게 훑으면서 실을 나른다. 이렇게 합사한 실 끝을 비툃의 코에 단단히 걸어 매고 손바닥으로 대바늘을 비벼 실을 꼬게 된다. 두 손바닥 사이에 대바늘을 살짝 끼워 비비면 비툃이 돌며 실이 꼬여진다. 이 과정을 ‘팔비비한다’ 고 한다.



사진 72. 자애질 한다 - 명주 타래실을 자애에 걸어놓고 자구리에 감는 모습

17) 8사의 경우 합사한 명주실의 길이와 완성된 끈목의 길이 비율은 5 : 3 이다.



사진 73. 자구리에 실을 감는 모습



사진 74. 합사하기 위해서 실을 나르는 과정



사진 75. 상사거리를 놓고 합사하는 과정



사진 76. 실을 비릿 끝의 코바늘에 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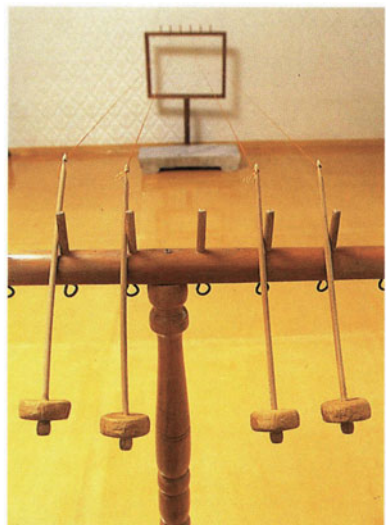


사진 77. 바탕을 꼬기 위해 상사거리에 걸쳐놓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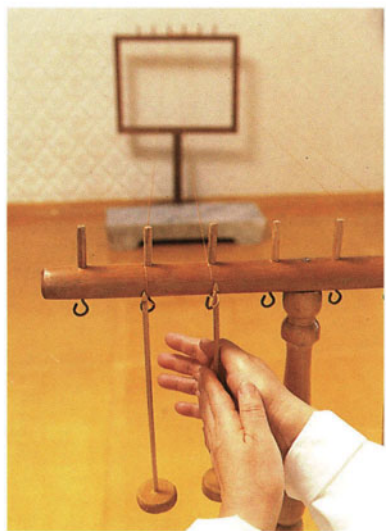


사진 79. 팔비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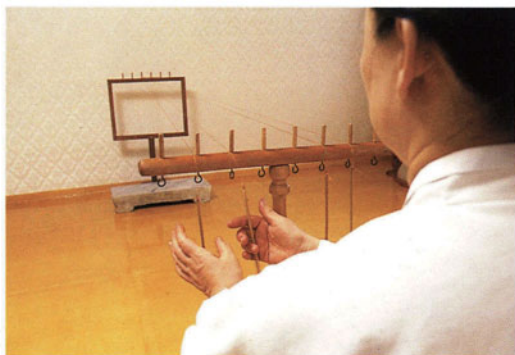


사진 78. 비뿔을 비벼서 팔비비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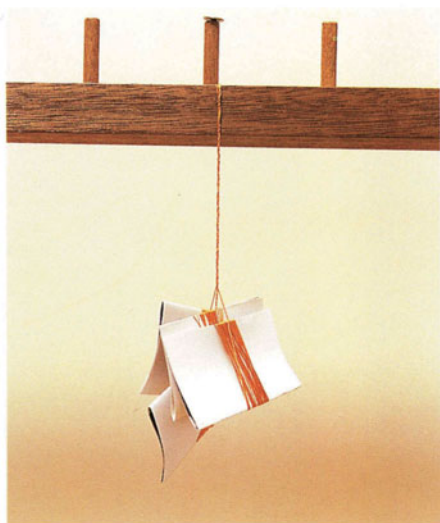


사진 80. 꼬아진 끈을 종이 실패에 감아놓은 모습



사진 81. 종이 실패에서 다시 토쪽으로 옮기는 과정

10m 길이를 날랐을 경우 상사거리를 30cm 안으로 세워 놓고, 8사인 경우 4올은 오른쪽으로 비벼서 오른 올을 만들고, 4올은 왼쪽으로 비벼 왼 올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 꼬아진 올 네가닥을 각각 따로 종이 실패에 감아 합쳐 놓고, 나머지 오른 올 네가닥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뭉치를 짝을 지어 한 뭉치를 지워 놓는다. 이것을 '여운다'고 한다.

이와 같이 팔비비의 과정을 거쳐 여워 놓은 꼬은 실을 각각 오른 올·왼 올을 톳에 감아서 오른 올 네가닥·왼 올 네가닥을 구분하여 묶어 놓는다. 톳에 한 가닥씩 감아놓은 단위를 '가리'라고 한다.

(1) 4사(絲) 치기



사진 82. 4사 치기

끈목의 용도에 따라 원하는 굵기에 맞추어 알맞게 합사한 실을 4개의 톳에 각각 감아 놓고 그 끝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뒤 앉은 자세에서 적당한 눈높이 위에 고정시킨다. 양손에 두가닥씩 나누어 쥐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톳과 왼손의 가운데손가락으로 잡은 톳, 또한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톳과 오른손의 가운데손가락으로 잡은 톳을 서로 엇바꾸어 가며 끌고루 힘을 주어 잡아당겨 가면서 짠다.

끈틀이 없이 간편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추어 굵고 가늘게 짠 4사 끈목은 여러 모로 많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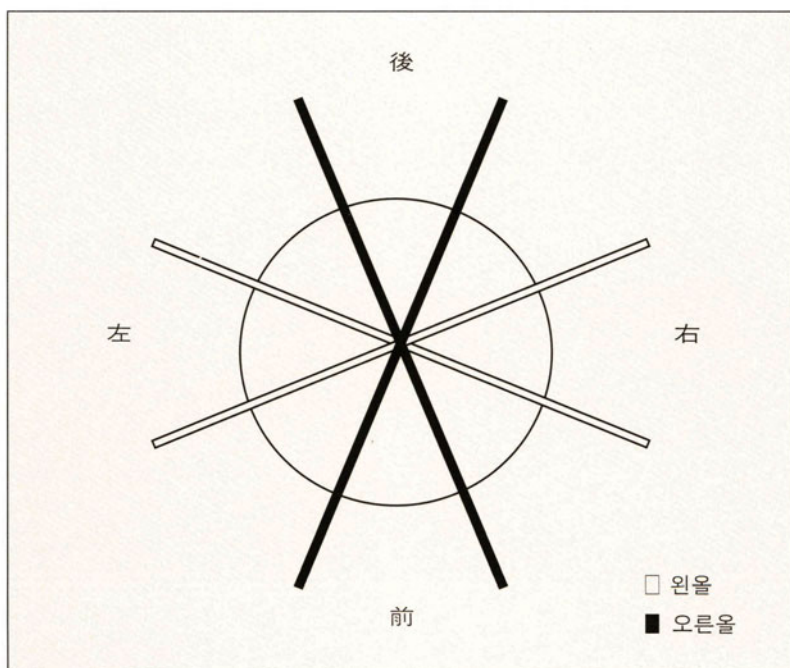
(2) 8사(絲) 치기

편한 자세로 8사 틀에 마주 앉아 바늘대를 중심으로 네가닥씩 묶어 놓은 오른 올·왼 올을 앞뒤로는 오른 올을 두 가리씩(앞에 두 가리, 뒤에 두 가리가 되는 셈이다), 좌우로는 왼 올을 두가리씩 둥근 접시 위에 간격을 맞추어 걸어서 늘어뜨려 놓는다.



사진 83. 8사 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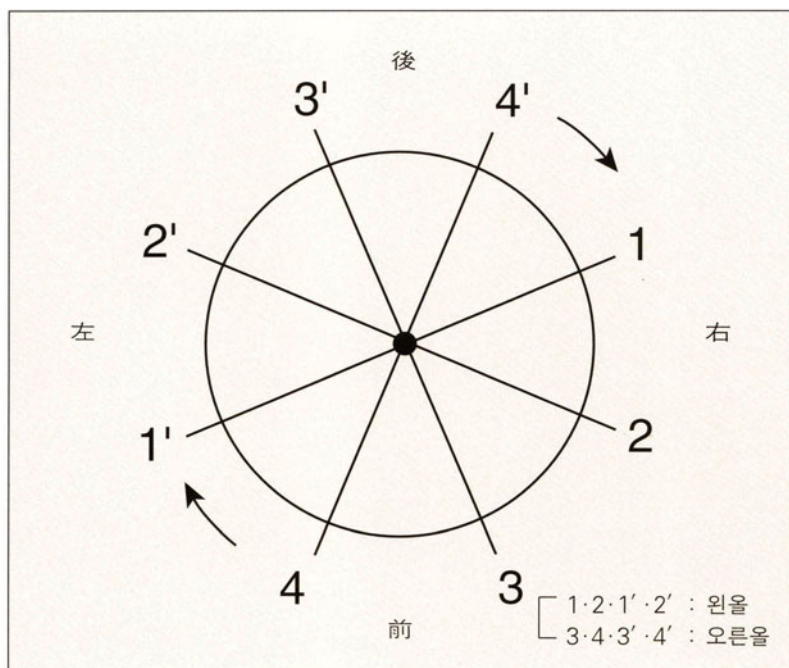
그림 5. 8사 치기 그림1



우선 바른 손은 8사 틀 오른쪽에, 왼손은 왼쪽에 댄다. 오른손의 방향은 뒤(後)→중간(中)→앞(前), 왼손 방향은 앞→중간→뒤의 방향으로 양손이 동시에 엇갈려 움직이며 똑같은 행동으로 반복한다. 이때 바른손의 집게손가락과 왼손의 엄지손가락, 왼손의 집게손가락과 바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상대적으로 동시에 움직이며 가리를 조정한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실가닥에 번호를 붙여가며 설명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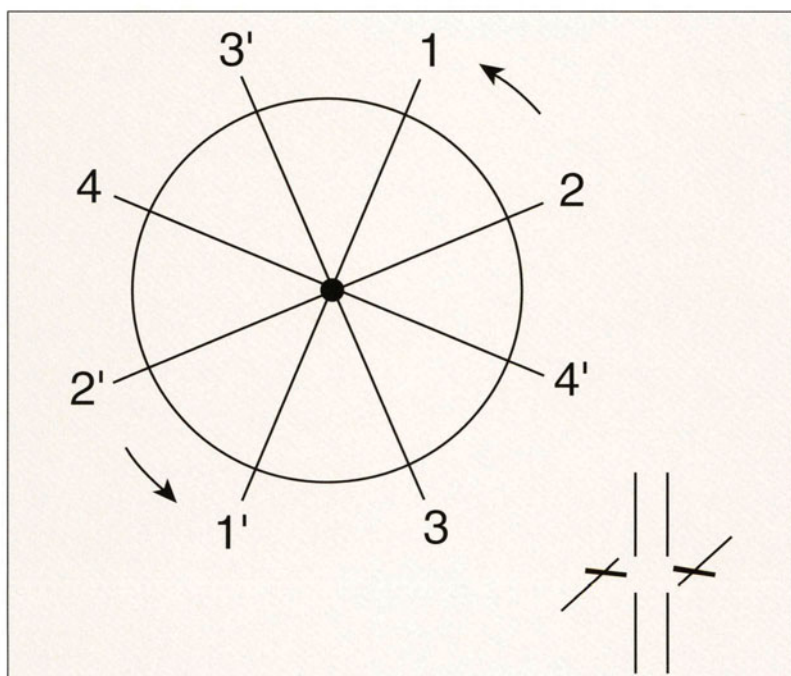
그림 6. 8사 치기 그림2



① 1번과 2번 사이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2번과 3번 사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과 2' 사이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2'와 3' 사이에 왼손의 집게손가락을 놓아 손의 위치를 잡는다.

② 움직이는 처음 시작은 오른손 집게손가락이 1번을 뒤(後) 방향으로 움직여 4' 넘어서 놓고, 4'를 집어 2번과 3번 사이에 놓는다. 이와 동시에 왼손은 엄지손가락이 1'를 밀어 올리며, 4번을 넘어서 놓고 그 밑으로 4번을 집어 2'와 3' 사이에 놓는다. 실가닥의 번호 위치가 [8사 치기 그림 3] 모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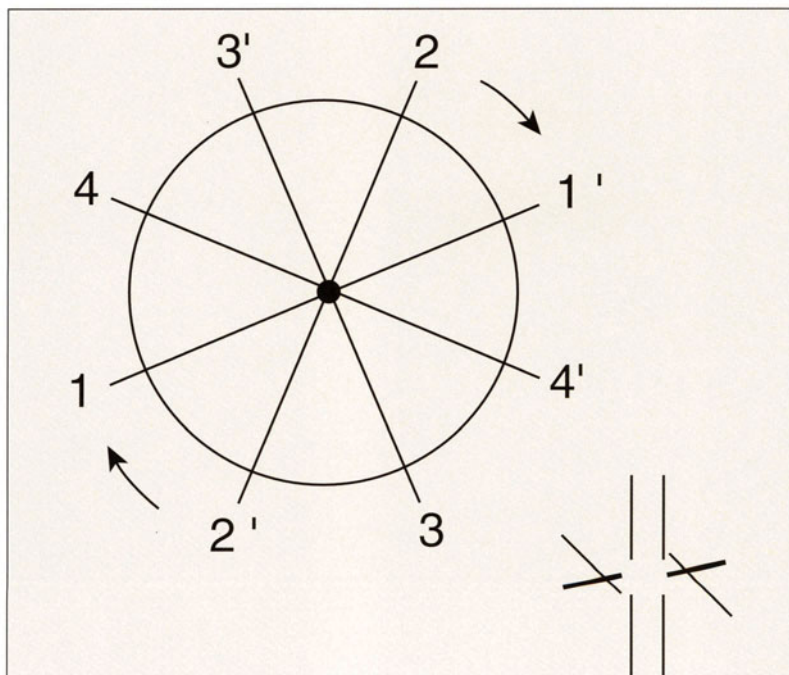
그림 7. 8사 치기 그림3



③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다시 3번을 들어올려 1'를 화살표 방향인 뒤(後) 방향으로 움직여 2번과 4' 사이에 놓고, 2번을 집게 손가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 위치를 밀어 놓는다. 다시 왼손은 집게손가락이 3'를 들어올려 1번을 넘어 놓고, 그 밑으로 1번을 집어 2'와 4번 사이에 놓고 2'를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위치를 밀어 놓는다.

그 결과 아래 그림 모양으로 실가닥의 위치가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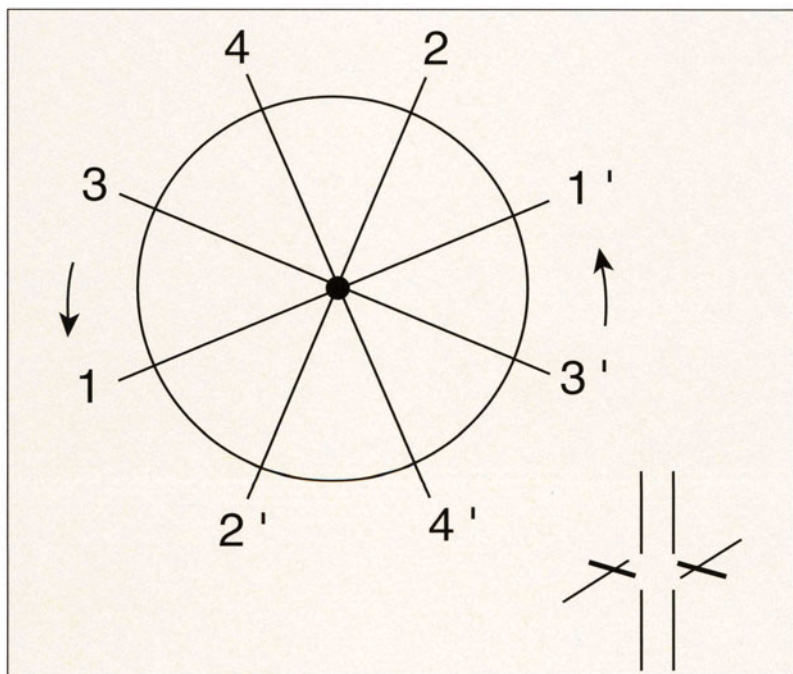
그림 8. 8사 치기 그림4



④ 오른손 집게손가락이 2번을 들어올려 3'를 넘어 놓고 그 밑으로 3'를 집어서 1'와 4' 사이에 놓고, 왼손은 엄지손가락이 2'를 들어올려 그 밑으로 3번을 집어서 1번과 4번 사이에 놓는다.

그 결과 아래 그림 모양으로 실가닥의 위치가 바뀐다.

그림 9. 8사 치기 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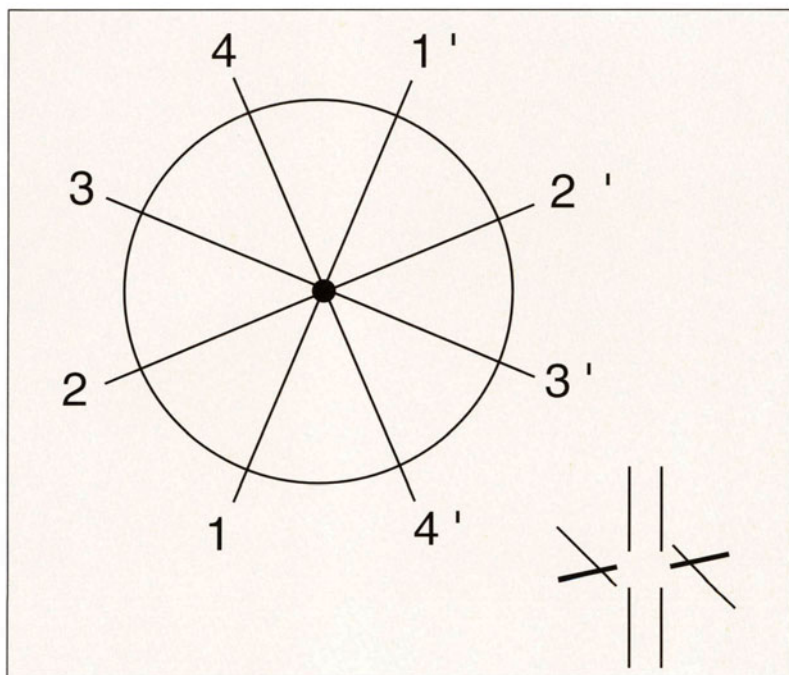


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4'를 2' 위로 들어올려 놓고, 그 밑으로 2'를 다시 뒤(後)쪽으로 1'와 3' 사이에 놓고 1'를 조금 밀어 넣는다.

왼손은 집게손가락이 4번을 들어 2번 위로 놓고, 그 밑으로 2번을 집어 3번과 1번 사이에 놓고 1번을 조금 밀어 놓는다.

이와 같은 결과로 완전히 실가닥이  $360^\circ$  1회전한 결과가 된다.

그림 10. 8사 치기 그림6



[8사치기 그림 4]까지가 8사 치기의 반회전한 것이며, 똑같은 순서를 되풀이하면 [8사치기 그림 5·6] 8개의 가리가 완전히 1회전한 것이 된다. 즉 바른편으로 반회전하고 왼편으로 반회전하여 완전히 일회전하는 동작을 연속 반복하게 된다.

끈목을 짜는 동작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손움직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바탕을 꼬은 것이 풀려나가게 되는데, 여덟 가닥의 꼬임이 쪽 고르도록 풀린 것을 다시 고루 꼬아 주면서 짜야 눈이 예쁘게 산다.



이와 같이 정성과 끈기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툇끼리 부딪치며 나오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손놀림에서 탄력있고 윤택이 있는 아름다운 끈목이 탄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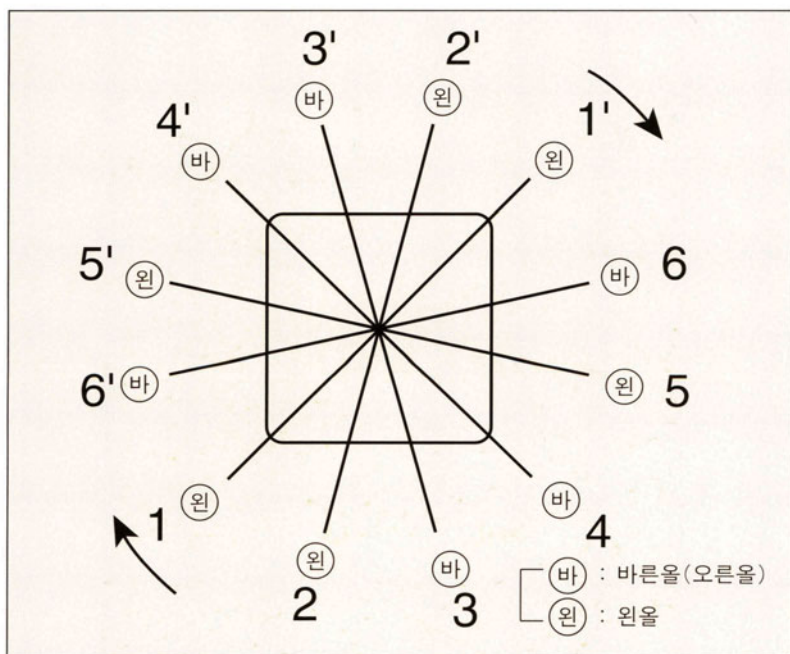
(3) 12사(絲) 짜기



사진 84. 12사 짜기

광다회의 기본이 되는 끈목으로 끈틀 위의 접시가 네모졌고, 오른쪽으로 꼬은 실 여섯 가닥과 왼쪽으로 꼬은 실 여섯 가닥을 합쳐서 열두 가닥으로 짠다. 12사도 8사 치기 과정에서와 같이 곱게 물들인 명주실을 해사해서 바탕을 합사하여 꼬아서 끈틀에 얹히는데, 8사보다 바탕실을 좀 더 되게 꼬아서 짜야 단단하고 윤택이 나는 끈목이 된다. 그림을 그려서 12사 짜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12사 짜기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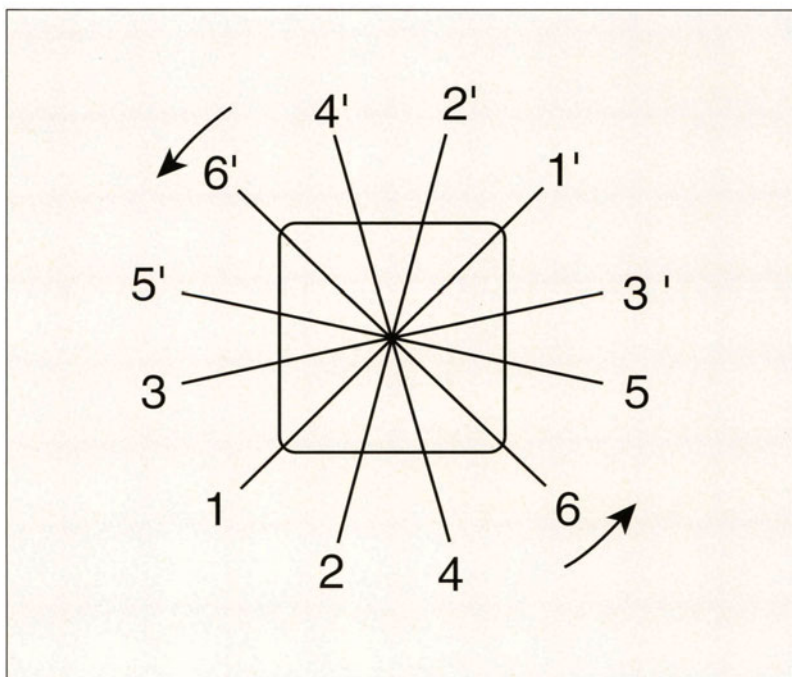


① 먼저 오른손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바) 3'를 집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 1'와 6번 사이에 놓고, 6번을 다시 5번 앞, 즉 네모 접시 앞면 오른쪽 맨 끝자리인 (바) 4번 자리에 놓는다.

대칭으로 왼손으로는 ㉮3번을 집어서 ㉮1번과 ㉮6' 사이에 놓고 6'를 다시 집어서 5'를 넘어 네모 접시 뒷면 왼쪽 4'가 있던 자리에 놓는다.

② 앞의 ①번 설명과 같이 움직이고 나면 토짜의 순서가 [12사 짜기 그림 2]와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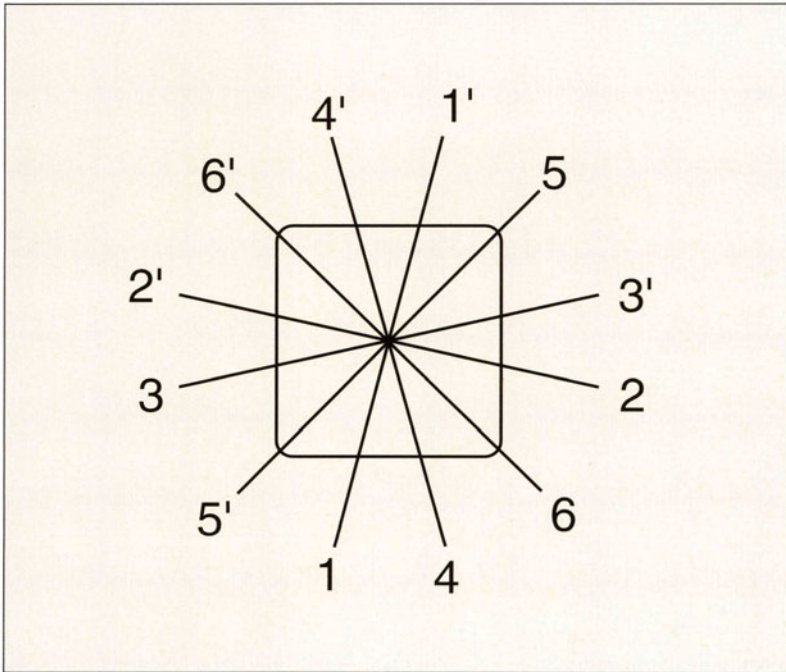
그림 12. 12사 짜기 그림2



③ [12사 짜기 그림 2]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면, 오른손으로는 2번을 집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6번과 5번 사이에 놓고 5번을 1' 자리에 놓는다. 반대로 왼손으로는 2'를 집어서 6'와 5' 사이

에 놓고 5'를 1번 자리에 놓는다. 이와 같이 움직이면 [12사 짜기 그림 3]과 같이 토쪽의 순서가 바뀐다.

그림 13. 12사 짜기 그림3



④ 번호 ③까지가 12사 짜기의 반회전한 것이며, 이와 똑같은 순서로 되풀이 반복하면 납작한 평직의 12사가 짜여진다. 8사칠 때와 마찬가지로 잘 꼬아진 바탕실이 12사를 짜는 동안 풀려나가 고르게 12가닥을 잘 꼬아가며 짜야만 고른 윤택이 있는 끈목이 된다.



### 3) 매듭 맺기

우리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33종류의 각기 다른 형태의 매듭들은 각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앞뒤가 똑같고 절대 대칭의 무늬를 구성하며 항상 수직으로 연속된다.

매듭을 맺으려면 우선 일정한 길이의 끈목을 반으로 접어서 중심을 잡고 두 가닥의 끈을 순서대로 엮고 다시 차례대로 끈의 겹을 바로 잡으며 질서있게 조이게 된다. 어떻게 잘 조여 주느냐에 따라 매듭의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듭 맺기에 있어서 조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sup>18)</sup>를 반듯하게 살려 전체적인 균형을 잘 맞춘다.

#### (1) 연봉매듭

연꽃의 봉오리 모양과 같다하여 연봉매듭이라 부르며, 단추로도 쓰여서 단추매듭이라고도 부른다.

끈목의 중심이 왼손의 둘째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 오도록 잡은 뒤 오른쪽에 있는 끈목은 셋째 손가락 등쪽을 지나서 둘째손가락 앞면에 놓고 둘째손가락 앞면에 있는 끈목은 셋째 손가락 등쪽으로 갔다 놓아 두 손가락 사이에 8자 모양을 만든다. 이것을 두 손가락에서 빼내어 왼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서 된다.

오른쪽 끈목은 왼손 윗부분에 있는 고에 아래서 위로 넣어 빼내어 놓고, 반대 끈목은 밑부분에 있는 고 아래에서 위로 빼놓는다. 다시 중심을 위로 약간 빼놓으면 중심 양편으로 구멍이 보인다. 오른쪽 끈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대편(왼쪽) 구멍에 위에

18) 옷고름이나 끈 따위를 서로 잡아맬 때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가닥을 고리 모양으로 잡아 뺀 것을 말한다(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새 국어 사전』, 1994, 171쪽).

서 아래로, 왼쪽에 있는 끈은 오른쪽 구멍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빼놓는다.

다시 중심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밑으로 두 끈 끝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연봉이 나온다. 잘 매만져 균형을 잡은 뒤 윗부분으로 올려서 순서대로 결을 맞추어 조여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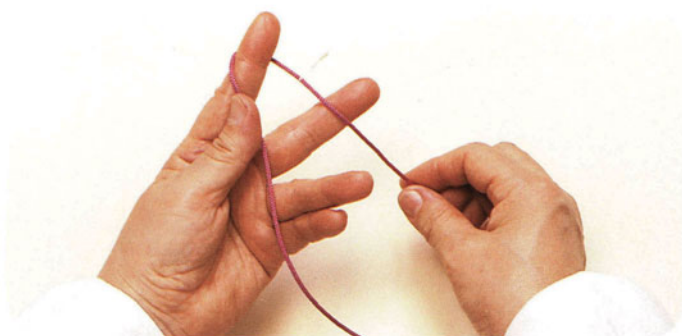


사진 85. 연봉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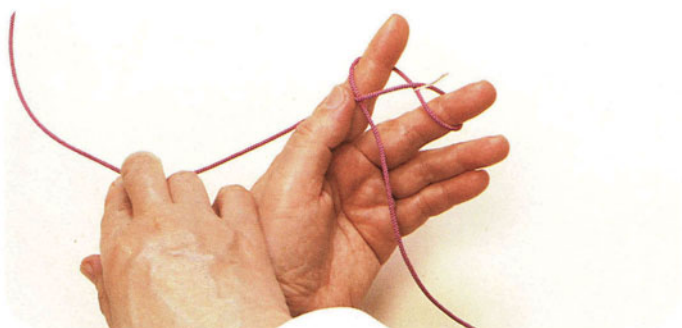


사진 86. 연봉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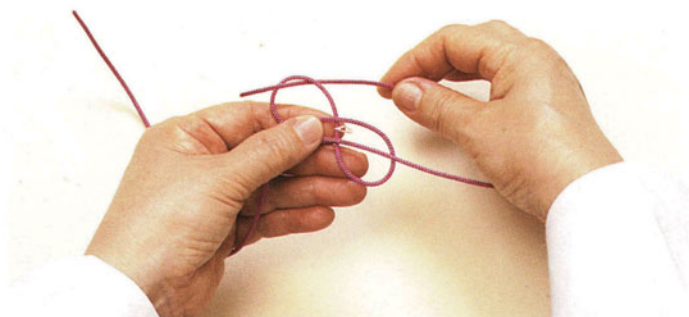


사진 87. 연봉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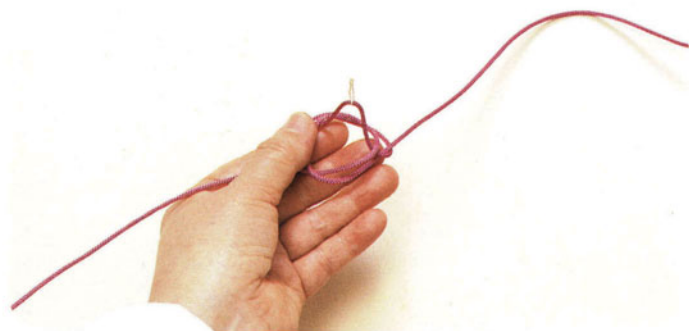


사진 88. 연봉매듭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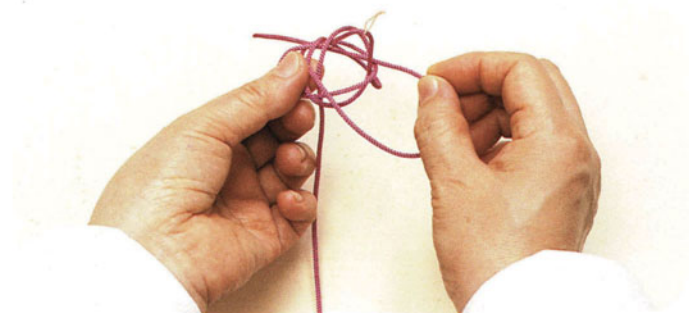


사진 89. 연봉매듭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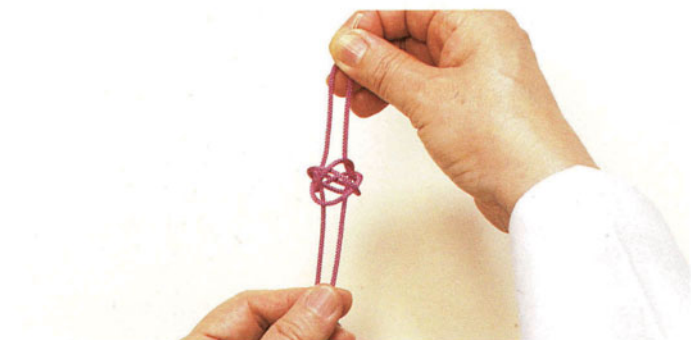


사진 90. 연봉매듭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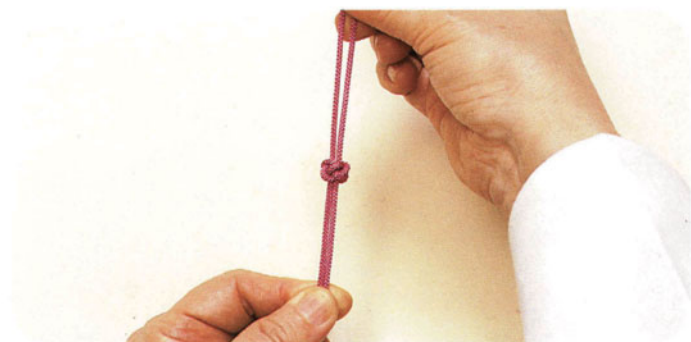


사진 91. 연봉매듭⑦



사진 92. 연봉매듭⑧



사진 93. 연봉매듭⑨



사진 94. 연봉매듭⑩



사진 95. 연봉매듭⑪



## (2) 잠자리매듭

연봉매듭을 먼저 맺고 날개매듭을 두 번 맺은 후 도래매듭을 연속으로 맺어 독립된 잠자리매듭으로 썼으며, 남자용 귀주머니 위에도 시원스럽게 많이 썼다.

연봉매듭을 맺어 중심으로 만들어 내 앞쪽에 놓고 왼쪽 가닥이 위로 올라오게 두 가닥을 잡아맨다. 오른쪽으로 온 끈은 위에서 날개 고를 만들고, 왼쪽에 있는 끈으로는 아래에서 날개 고를 만든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 끈을 위로 올려 윗부분에 끈목이 교차되어 만들어진 고에 위에서 아래로 넣어 잡아당겨 빼놓고 반대로 왼쪽의 끈목은 아래로 내려서 바로 옆의 고에 끈목을 아래서 위로 넣어 잡아당겨서 빼놓은 뒤, 양쪽에 만들어진 날개를 양편으로 양쪽 두 손가락을 넣어 고르게 힘을 주어 잡아당겨서 가운데 우물 정(井)자가 반듯하게 만들어지게 한다.

연봉매듭을 위로 하고 양쪽 날개 길이를 맞추고 조인 뒤 연속해서 날개 매듭을 한번 더 맺은 뒤 도래매듭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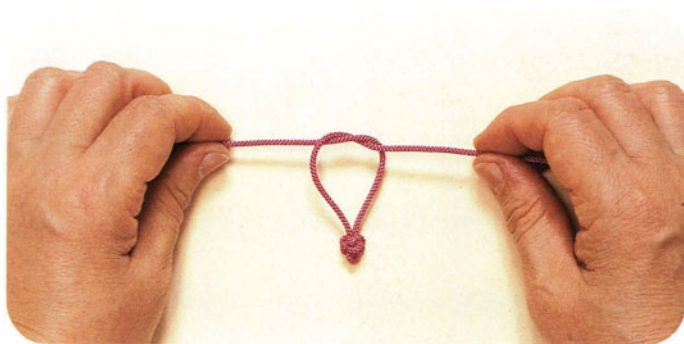


사진 96. 잠자리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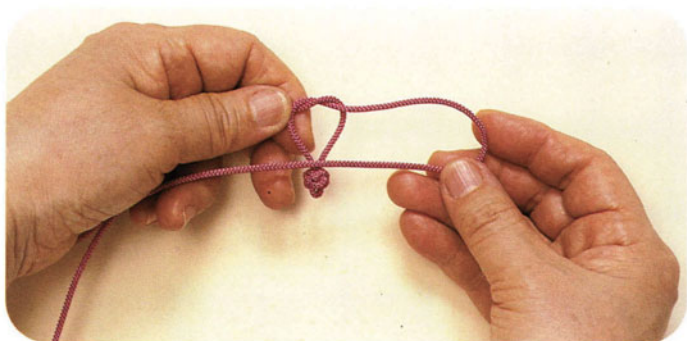


사진 97. 잠자리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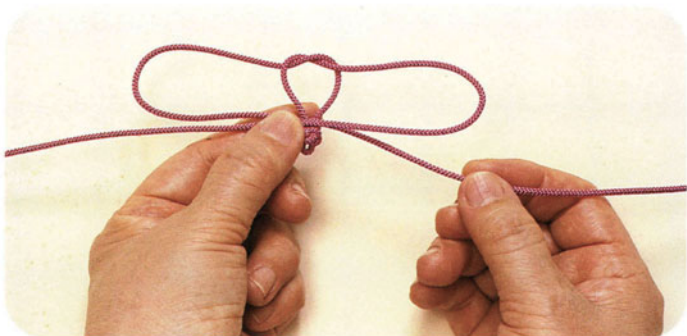


사진 98. 잠자리매듭③



사진 99. 잠자리매듭④



사진 100. 잠자리매듭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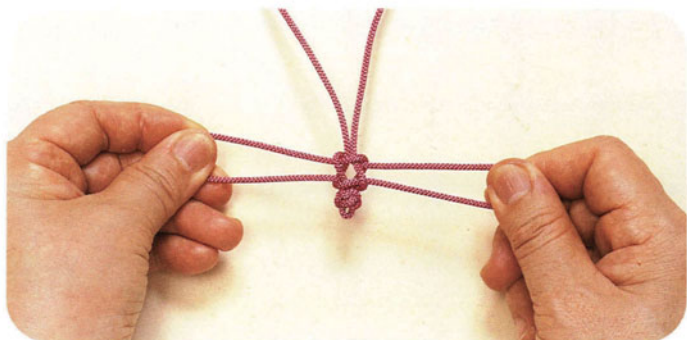


사진 101. 잠자리매듭⑥



사진 102. 잠자리매듭⑦



사진 103. 잠자리매듭⑧

### (3) 도래매듭

도래매듭은 매듭과 매듭 사이에 구슬을 꿰 듯이 맺는다. 곱 접은 끈목의 중심을 왼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안에 쥐고 앞쪽(작업자가 있는 쪽)에 있는 끈목으로 위로 고를 둥글게 만들어 다른 끈목을 넘어서 다시 고를 빠져나와 엄지손가락으로 교차된 부분을 눌러 놓는다.

나란히 놓인 두 끈목을 오른쪽 둘째손가락으로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 밀면서 만들어 놓은 둥근 고를 한바퀴 돌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내 앞쪽에 있는 끈으로 반복하여 위로 똑같은 고를 만들어 그 끈목 끝을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고를 같이 빠져나와 교차된 부분을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놓고, 내 앞쪽으로 끈목을 나란히 갖다 놓고 가지런히 두 끈목을 홀어서 정리해 놓는다. 뒤쪽에 있는 끈목을 먼저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고를 빼낸 뒤 나머지 고를 옆으로 갖다 대어 X자를 만들어 놓고 앞쪽에 있는 끈을 잡아당기면서 X자 모양이 생기면서 도래매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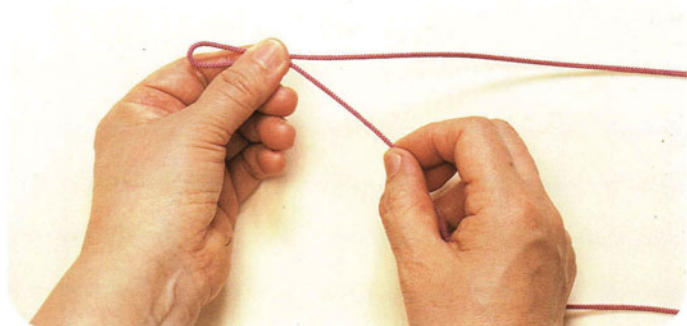


사진 104. 도래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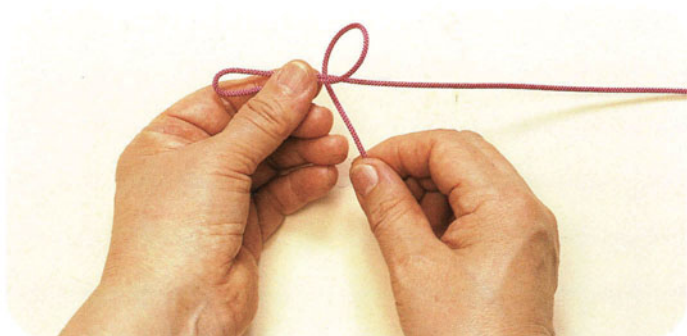


사진 105. 도래매듭②



사진 106. 도래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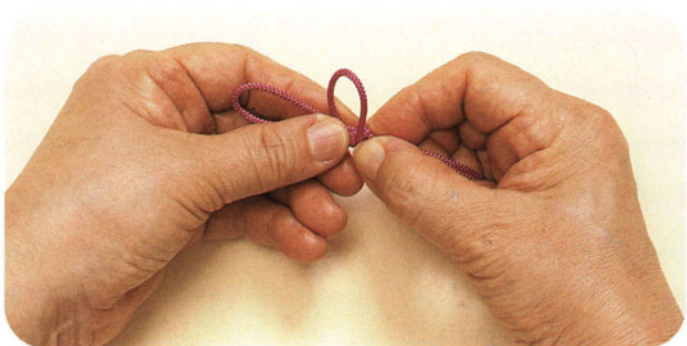


사진 107. 도래매듭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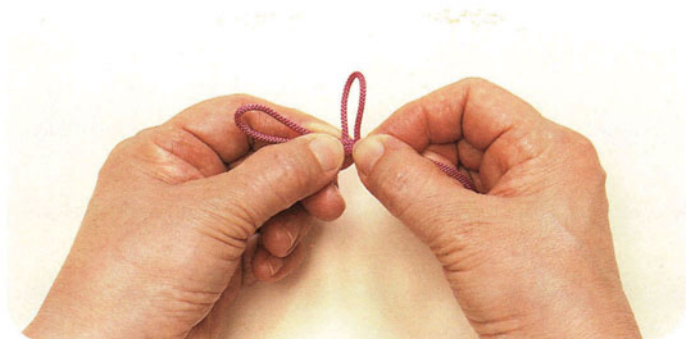


사진 108. 도래매듭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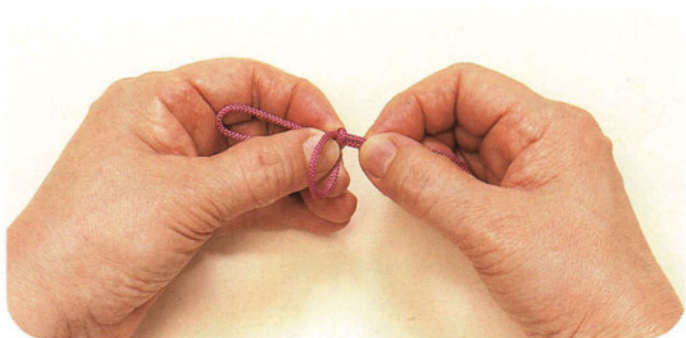


사진 109. 도래매듭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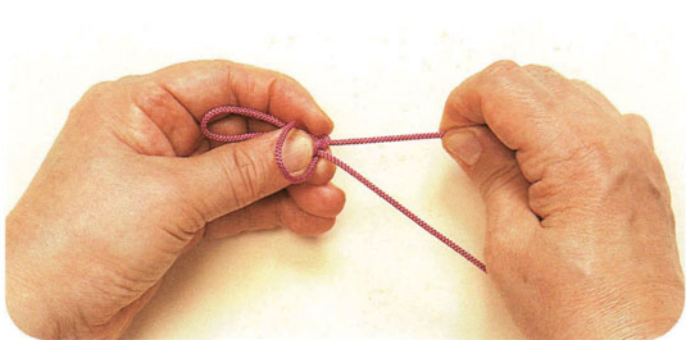


사진 110. 도래매듭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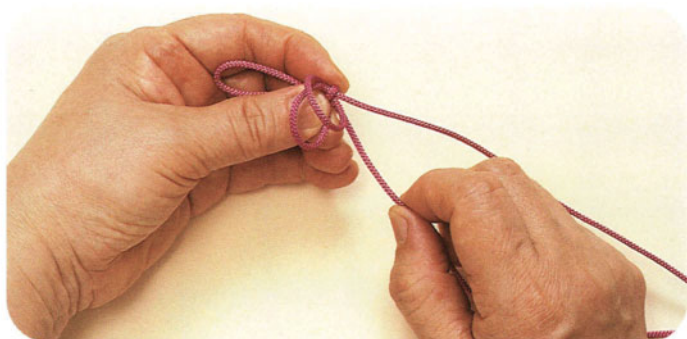


사진 111. 도래매듭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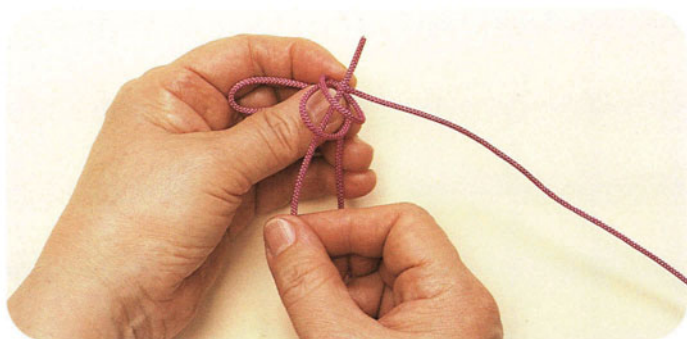


사진 112. 도래매듭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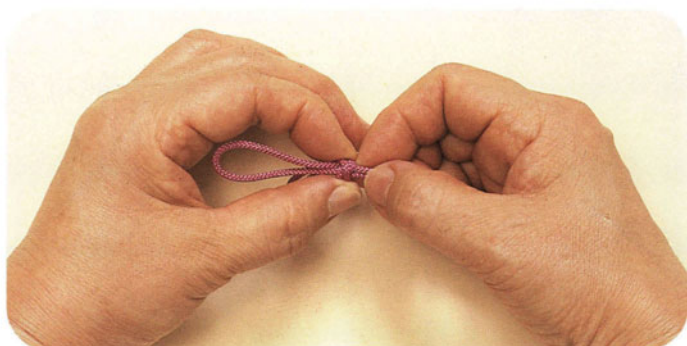


사진 113. 도래매듭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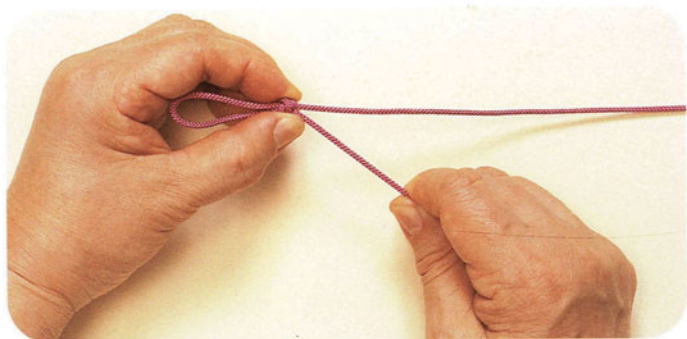


사진 114. 도래매듭⑪



사진 115. 도래매듭⑫

#### (4) 국화매듭

중심을 잡은 끈을 두 번 감아 왼손 둘째손가락에 끼고 중심이 둘째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 끼도록 한다. 오른쪽의 끈가닥을 끈의 끝부분이 내 몸 반대편으로 가도록 하면서 큰 고를 두 번 감아 만든 고의 길이보다 두배 반정도 되게 만들어 놓는다. 오른쪽의 크게 만들어 놓은 고로 끈 끝부분이 있는 쪽의 끈 부분으로 왼쪽의 두 고를 감싸서 옆으로 고를 만들고, 내 앞쪽에 있는 나머지 고 부분을 내 몸쪽(前)에서 끈 끝부분(後)쪽으로 얹어 놓는다.

왼쪽에 있는 끈을 집어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두 고를 통과하여 오른쪽에 있는 끈의 밑을 지나서 얹어놓은 고의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여 다시 두 고를 통과하여 왼쪽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

오른쪽에 얹어놓은 고를 다시 제자리로 펴놓은 다음 먼저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제일 처음 나란히 만들어 놓은 두 고를 옆으로 감싸면서 고를 만들어 끝부분은 조그만 고를 만들어 얹어놓은 뒤 왼쪽으로 보낸 끈을 두 고를 통과하여 오른쪽 끈의 밑으로 지나서 작게 만들어 얹어놓은 고를 아래서 위로 통과하여 다시 두 고를 지나 제자리로 보낸다.[사진 127]

오른쪽의 끈목 끝을 쥐고서 제일 처음 만들어 놓은 두 고 가운데를 첫번째와 하나 건너 세번째의 끈목을 두 번 떼서 끈목을 빼놓은 뒤 왼손 위에 오른손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180° 돌려 손바닥이 위로 오게 뒤집어 놓는다.

오른쪽에 있는 끈을 가지고 옆으로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고 중에서 내 앞쪽에 있는 고를 먼저 떼놓고 길을 잡은 뒤 다시 두 고 사이를 하나 건너서 하나씩 두 번 뜨고 난 뒤 중심을 위로 하고 두 끈을 밑으로 하여 가장자리에 꽃잎처럼 생긴 둥근 고를 잡아



당기면 국화 모양의 매듭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엮어진 국화매듭을 가운데 몸을 단단히 바르게 조여 놓은 뒤 결을 따라 바르게 균형을 맞추어 조인다. 국화매듭은 처음에 고를 두번 감아서 엮었다고 하여 두벌감개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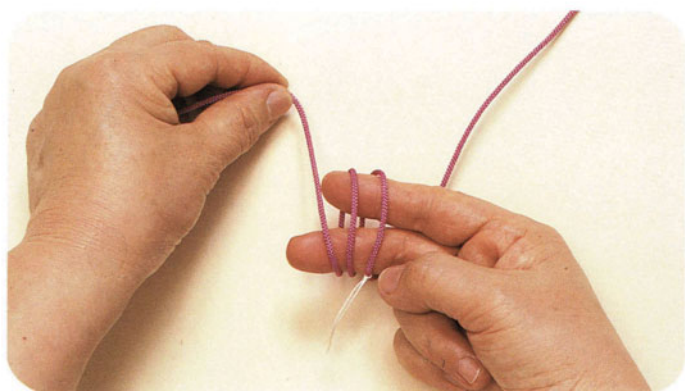


사진 116. 국화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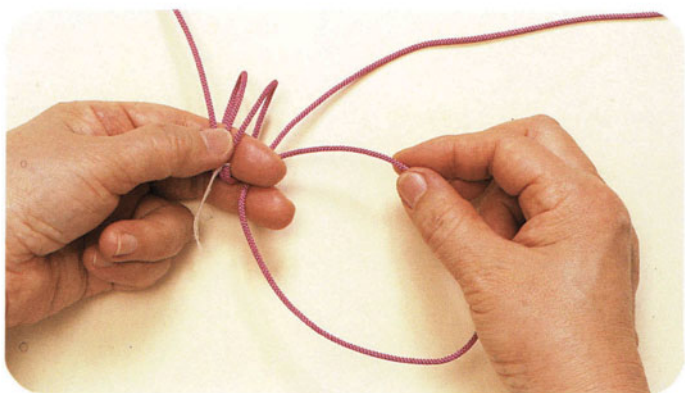


사진 117. 국화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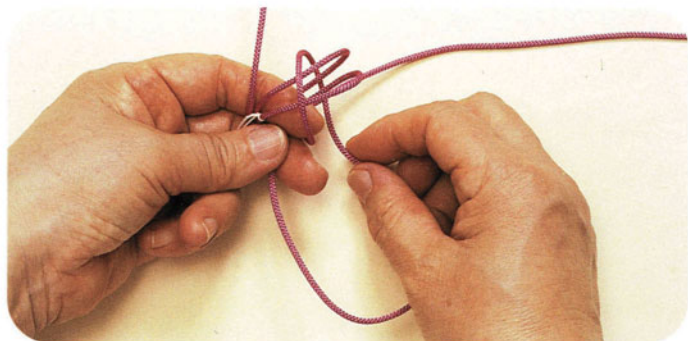


사진 118. 국화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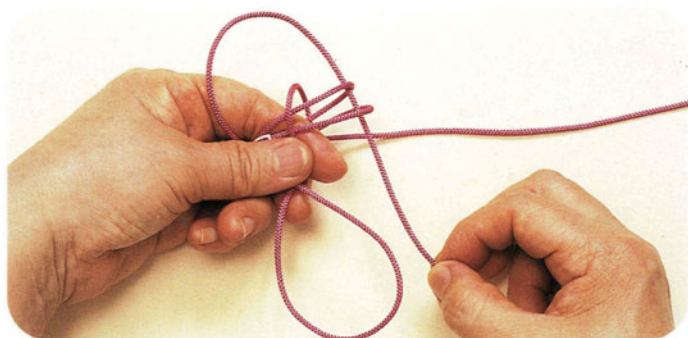


사진 119. 국화매듭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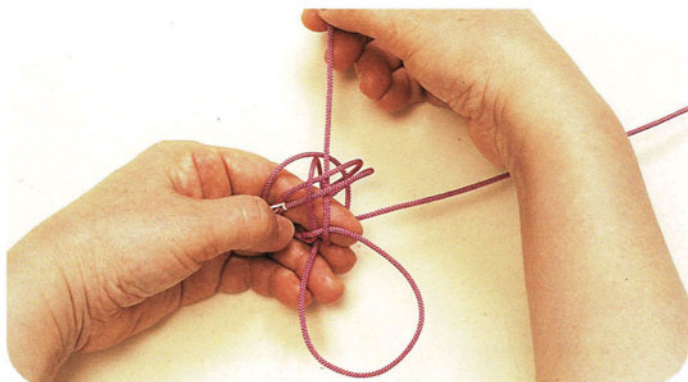


사진 120. 국화매듭⑤



사진 121. 국화매듭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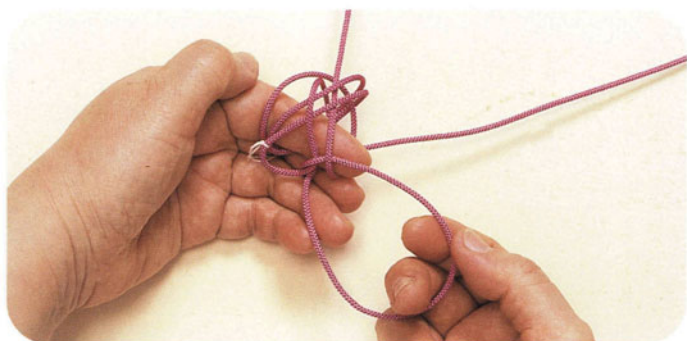


사진 122. 국화매듭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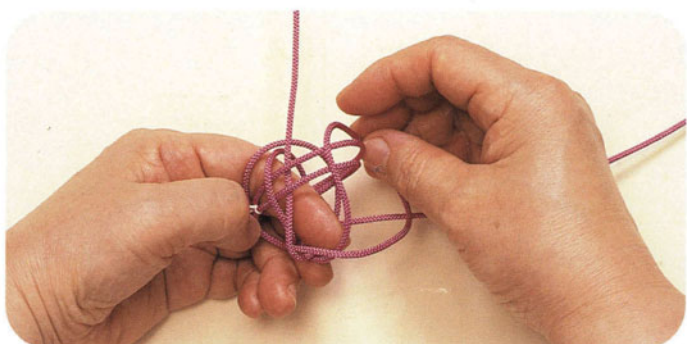


사진 123. 국화매듭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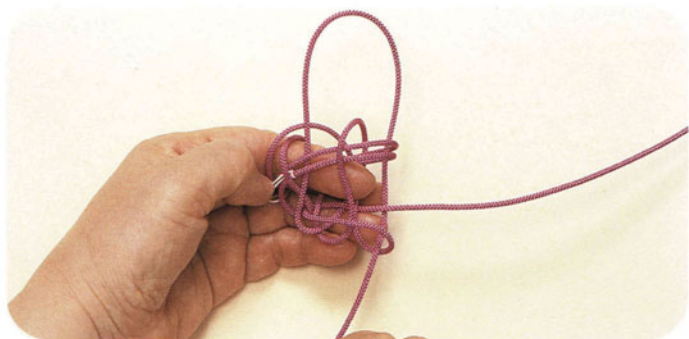


사진 124. 국화매듭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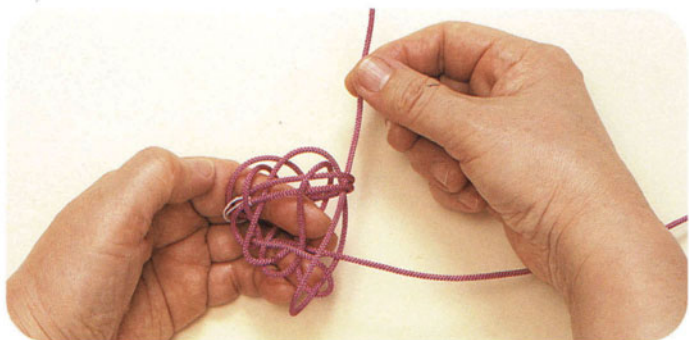


사진 125. 국화매듭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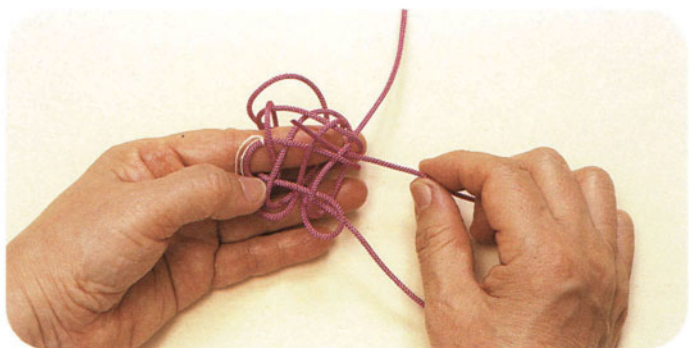


사진 126. 국화매듭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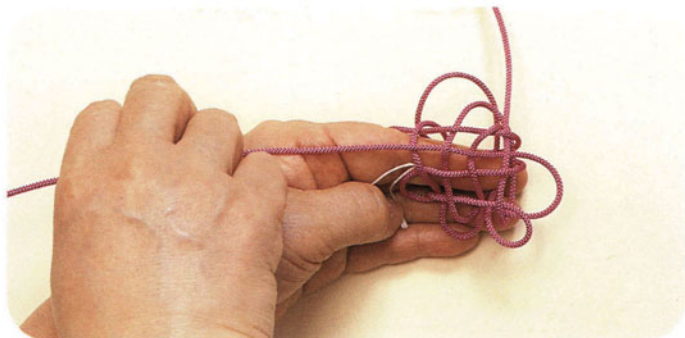


사진 127. 국화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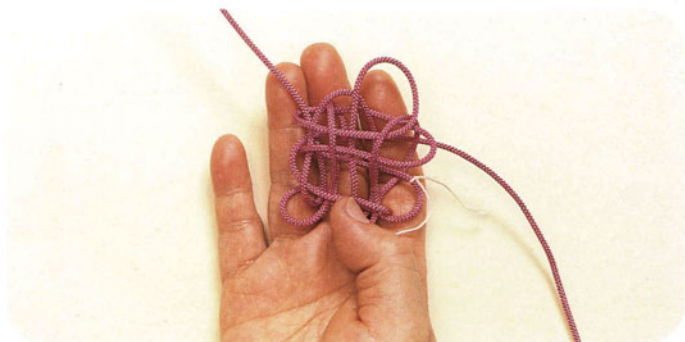


사진 128. 국화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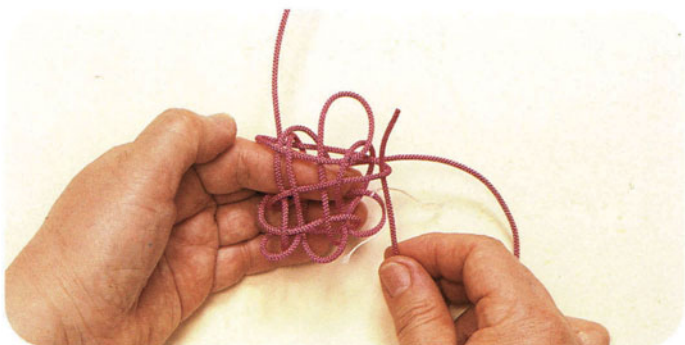


사진 129. 국화매듭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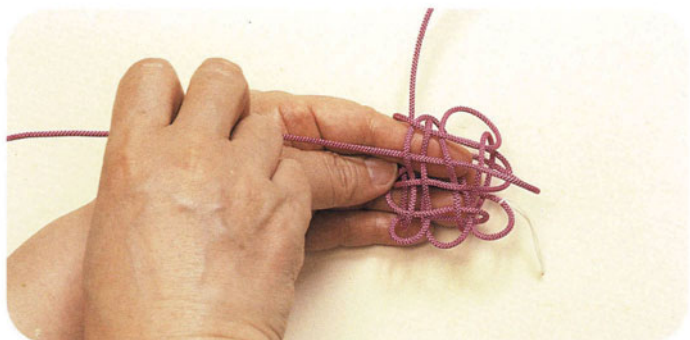


사진 130. 국화매듭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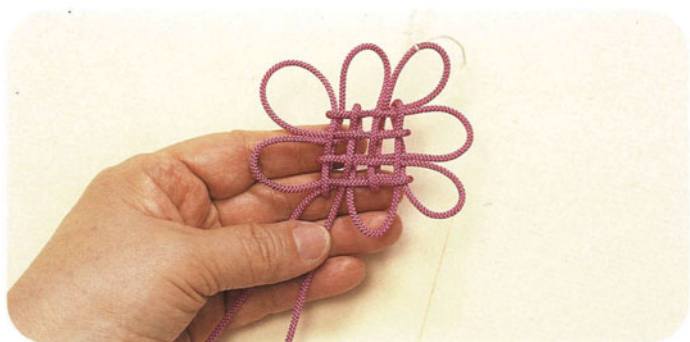


사진 131. 국화매듭⑯



사진 132. 국화매듭⑰



사진 133. 국화매듭⑱



사진 134. 국화매듭⑲



사진 135. 국화매듭㉔



사진 136. 국화매듭②

### (5) 다섯벌감개매듭

국화매듭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벌감개 · 네벌감개 · 다섯벌감개 매듭으로 독립 구성되며, 속에 심을 넣어 조이기도 한다. 이러한 매듭들을 방상매듭이라고도 하며, 연 · 상여 · 가마의 유소에 쓰였다.

네 손가락을 약간 벌린 크기로 다섯 번 감아서 고를 만들어 왼손에 쥐고서 국화매듭과 같은 방법으로 연속해서 다섯 번 반복하여 엮은 뒤 조이게 된다.



사진 137. 다섯벌감개매듭①



사진 138. 다섯벌감개매듭②





사진 139. 다섯벌감개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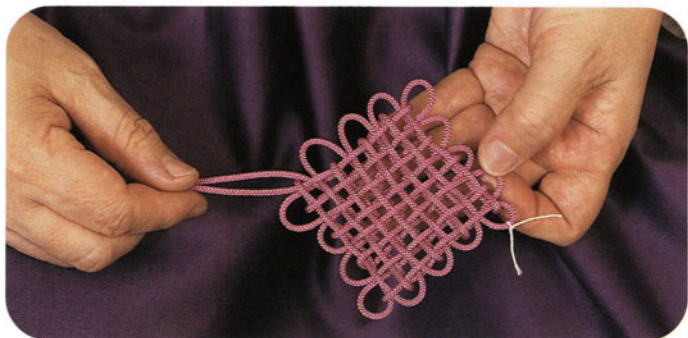


사진 140. 다섯벌감개매듭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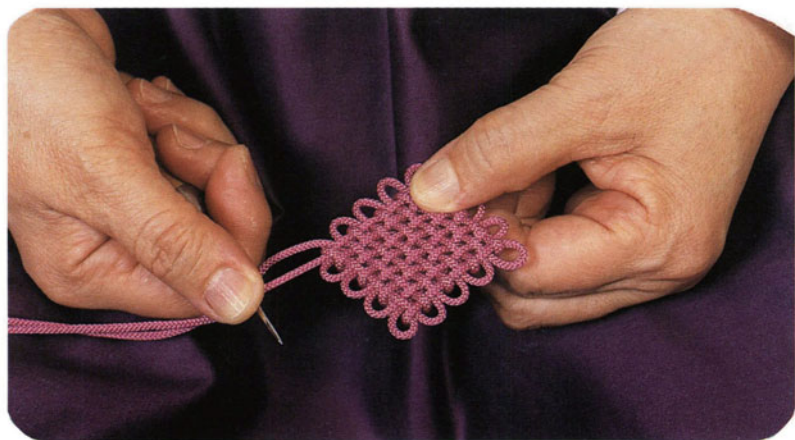


사진 141. 다섯벌감개매듭⑤



### (6) 나비매듭

날개 부분을 중심 양쪽에 맺어 놓은 뒤 국화매듭을 맺어 국화매듭 양쪽 위의 두 고에 날개가 달리게 된다. 노리개·주머니끈 등에 많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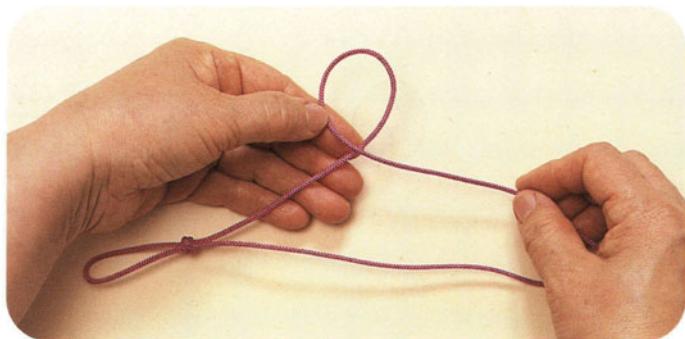


사진 142. 나비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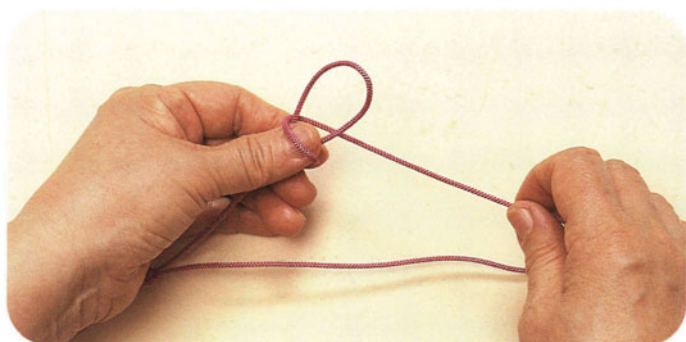


사진 143. 나비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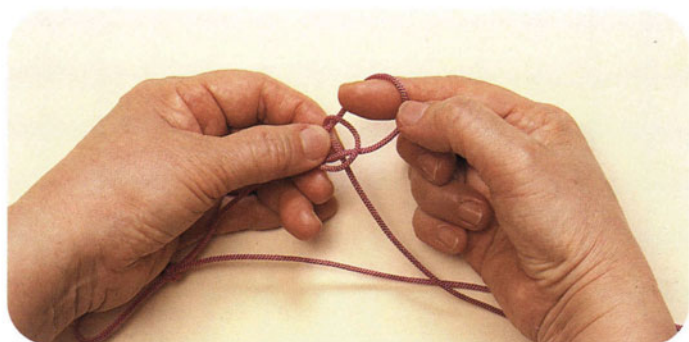


사진 144. 나비매듭③



사진 145. 나비매듭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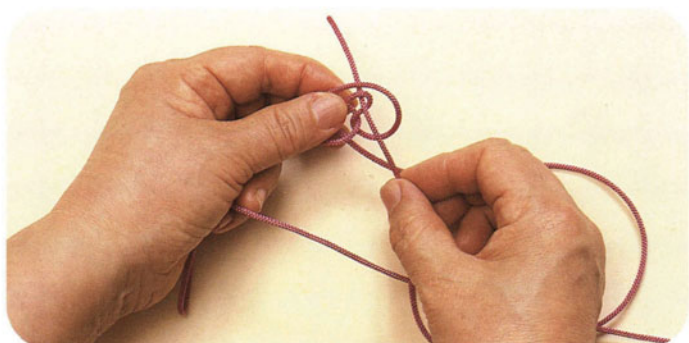


사진 146. 나비매듭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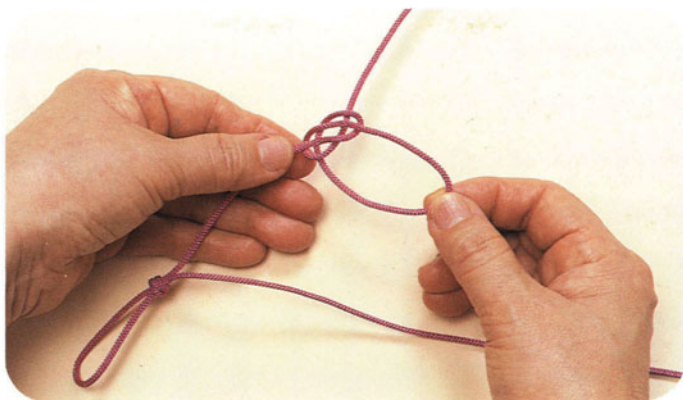


사진 147. 나비매듭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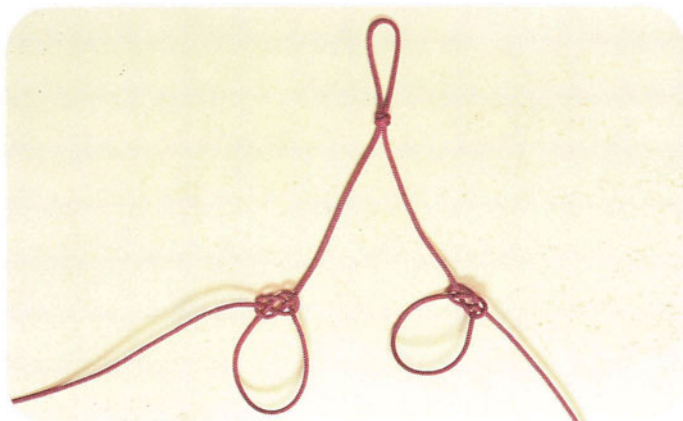


사진 148. 나비매듭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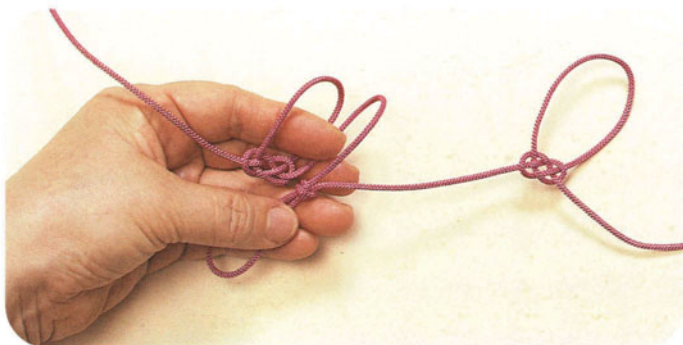


사진 149. 나비매듭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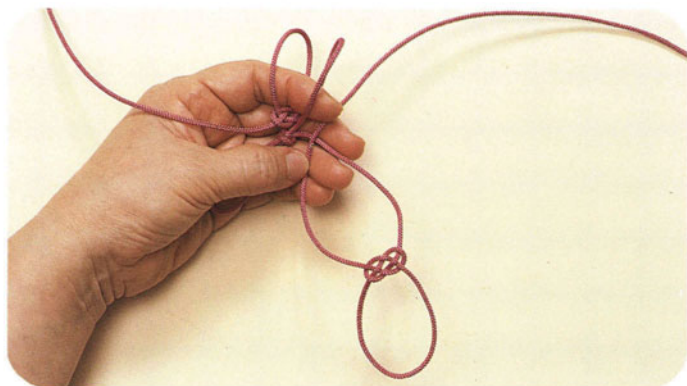


사진 150. 나비매듭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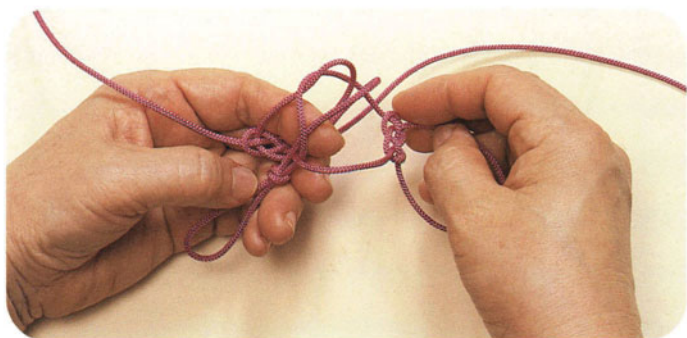


사진 151. 나비매듭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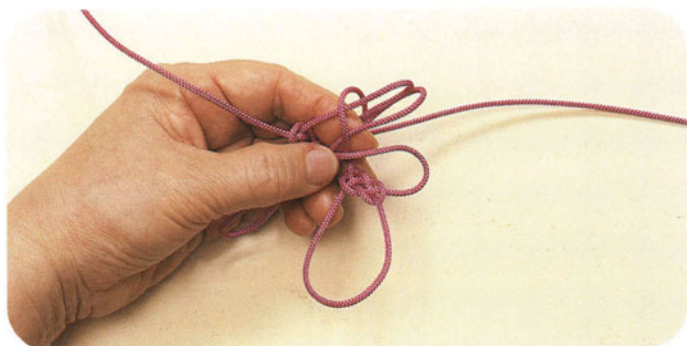


사진 152. 나비매듭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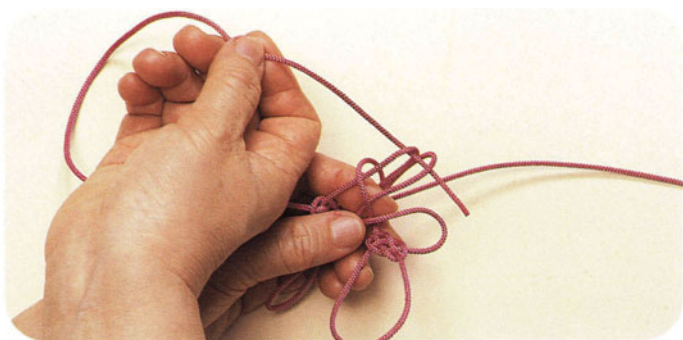


사진 153. 나비매듭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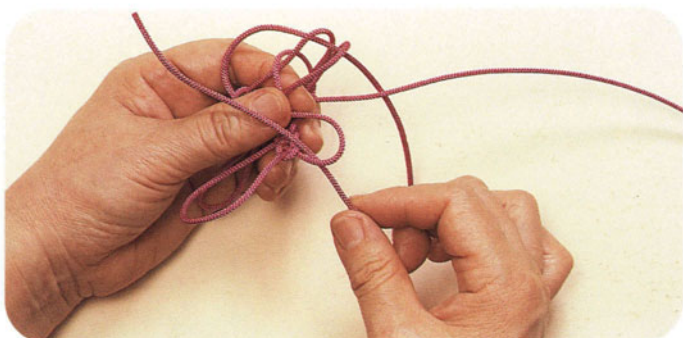


사진 154. 나비매듭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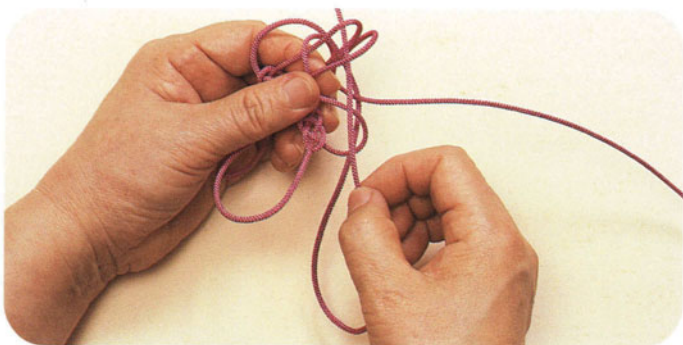


사진 155. 나비매듭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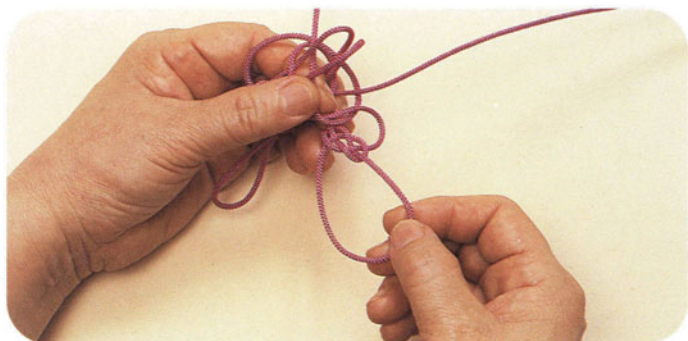


사진 156. 나비매듭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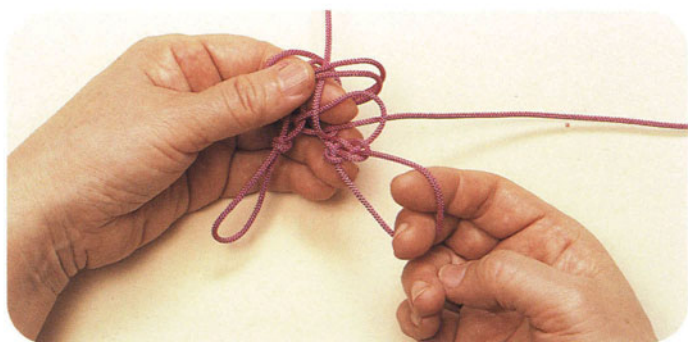


사진 157. 나비매듭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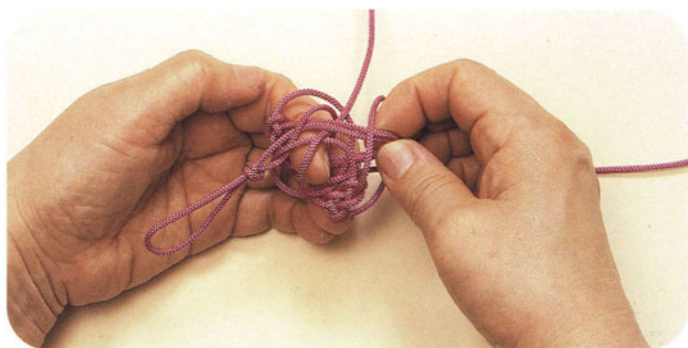


사진 158. 나비매듭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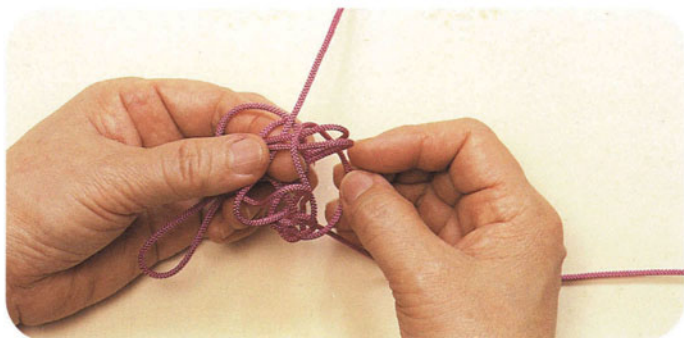


사진 159. 나비매듭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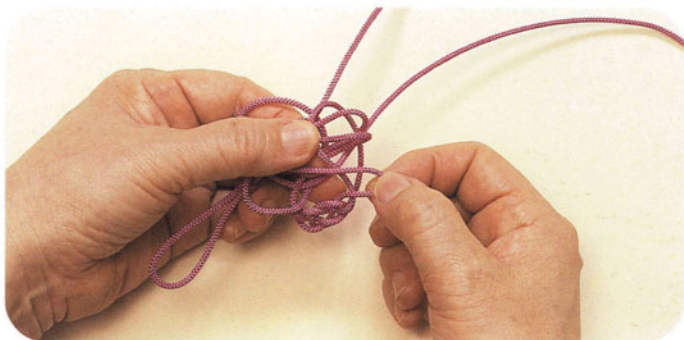


사진 160. 나비매듭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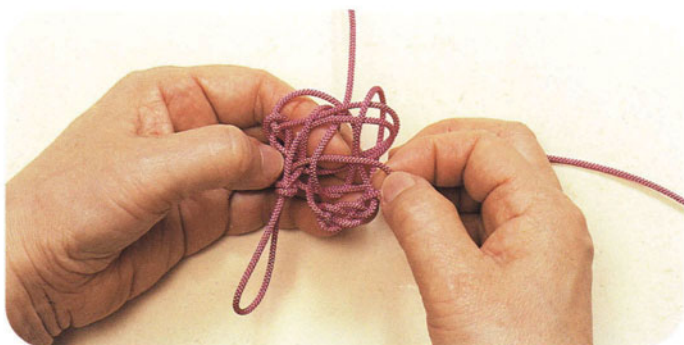


사진 161. 나비매듭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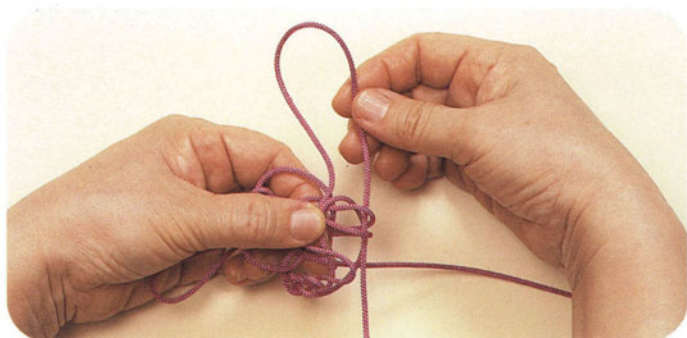


사진 162. 나비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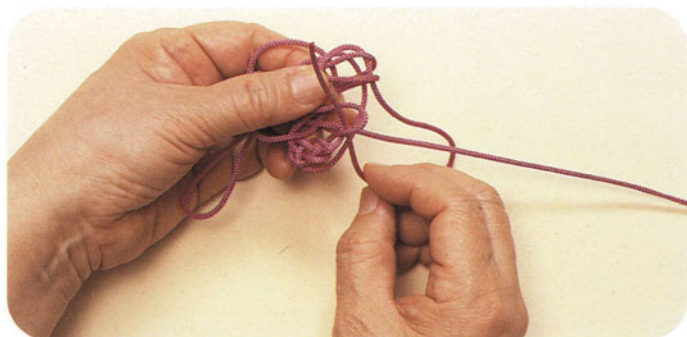


사진 163. 나비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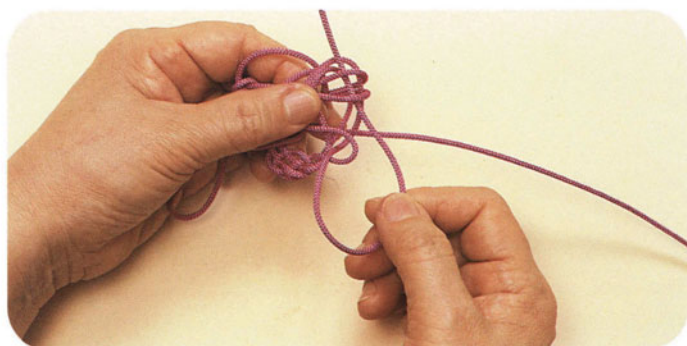


사진 164. 나비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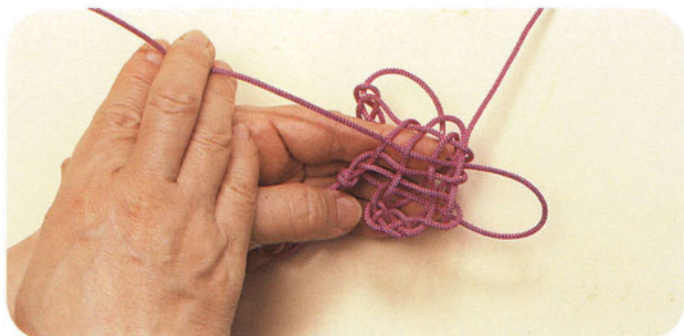


사진 165. 나비매듭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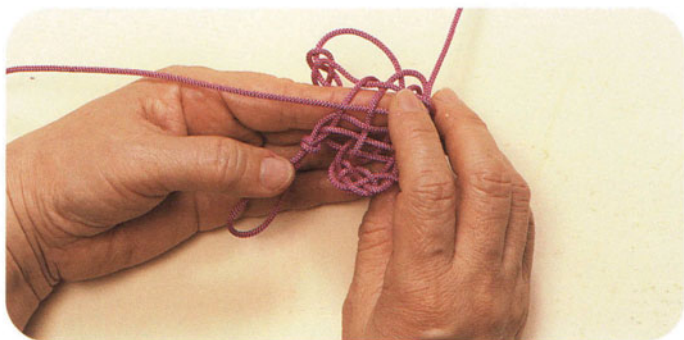


사진 166. 나비매듭㉕



사진 167. 나비매듭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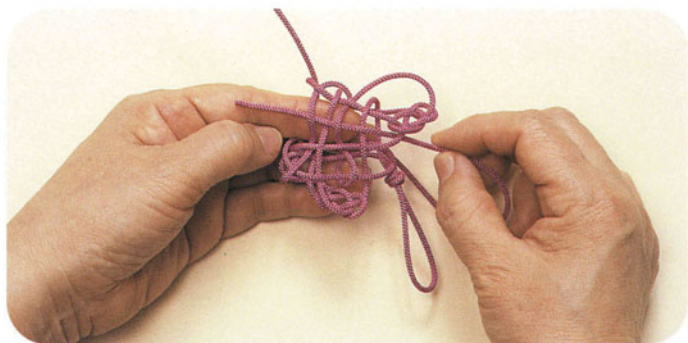


사진 168. 나비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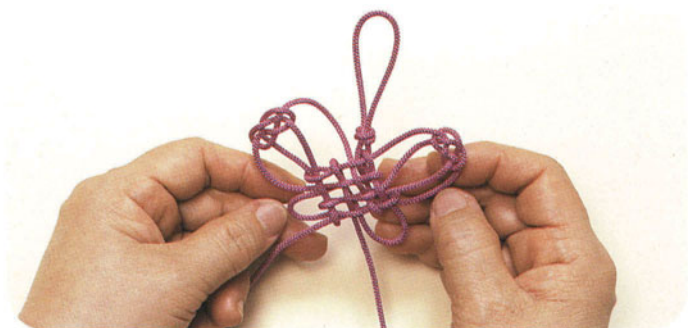


사진 169. 나비매듭③



사진 170. 나비매듭④





사진 171. 나비매듭③⑩



사진 172. 나비매듭 ③⑪

### (7) 생쪽매듭

가운데 몸은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뗏어지며 고가 셋이 있다. 정자매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곶집은 끈목의 중심을 오른손 둘째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잡고서 왼쪽의 끈가닥을 오른쪽에 곶집어 만든 고를 감싸서 아래 둥근 고를 만들고 왼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으로 눌러 놓는다.

다시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끈가닥으로 곶집어서 왼쪽에 있는 고의 크기와 같은 고를 만들어서 위에 있는 고에 위에서 아래로 넣어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끼어 얹어서 왼손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잡고 있는 두 줄의 끈에 갔다 대고 얹어놓은 고 밖으로 두 줄의 끝을 잡아 빼어 고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끈목 끝을 아래서 위로 통과시켜 빼놓은 뒤 끈을 왼손 왼쪽에 놓는다.

그리고 중심을 위로 오게 왼손을 약간 왼쪽으로 돌린 뒤 왼손의 엄지손가락 바로 밑에 있는 고를 왼쪽으로 빼 제끼고 그 고와 연결된 고를 왼쪽으로 잡아당겨 고를 빼낸다. 오른쪽은 오른손에 끈을 잡고 바로 앞에 있는 고를 잡아당기면 가운데 우물 정자가 생기고 중심에 고와 양옆에 두개의 고와 함께 세개의 고가 있는 생쪽매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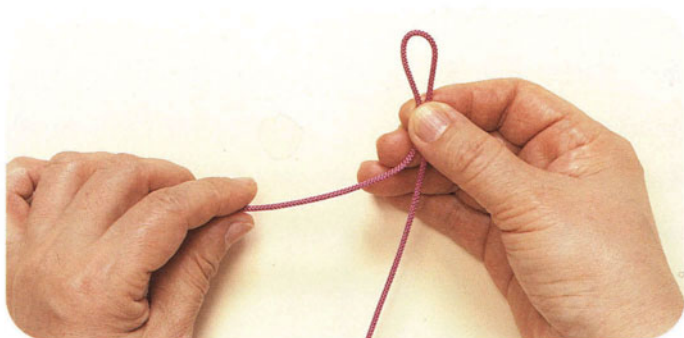


사진 173. 생쪽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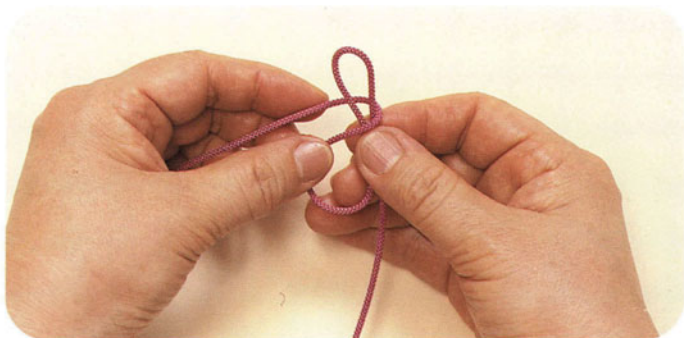


사진 174. 생쪽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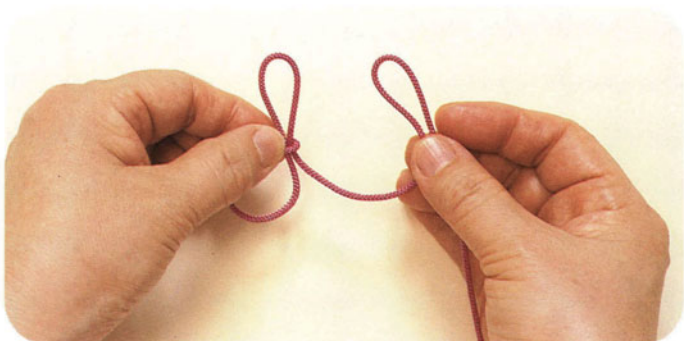


사진 175. 생쪽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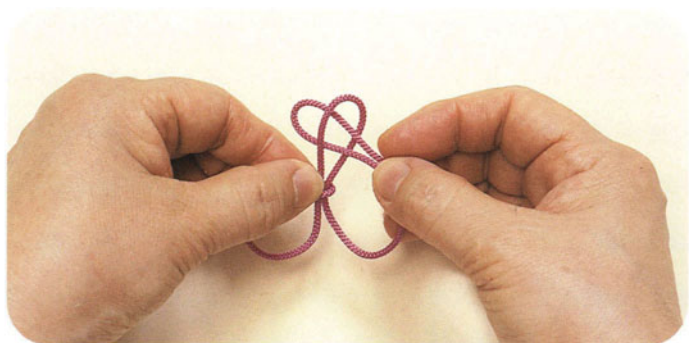


사진 176. 생쪽매듭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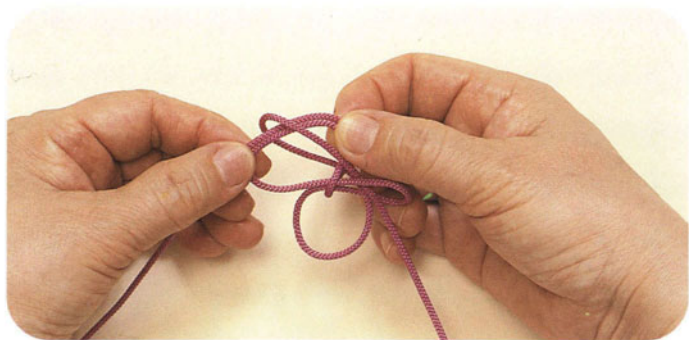


사진 177. 생쪽매듭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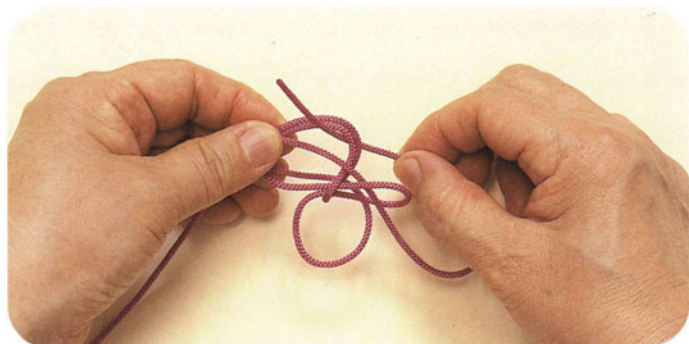


사진 178. 생쪽매듭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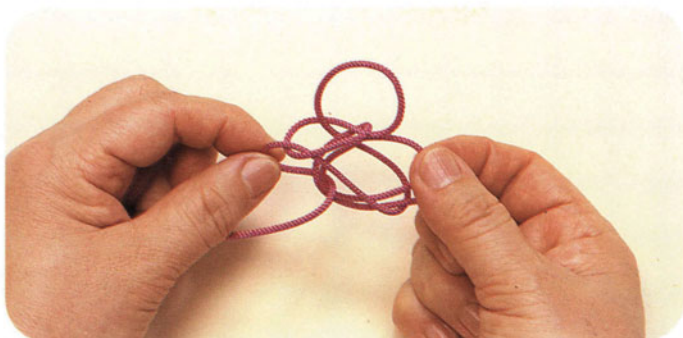


사진 179. 생쪽매듭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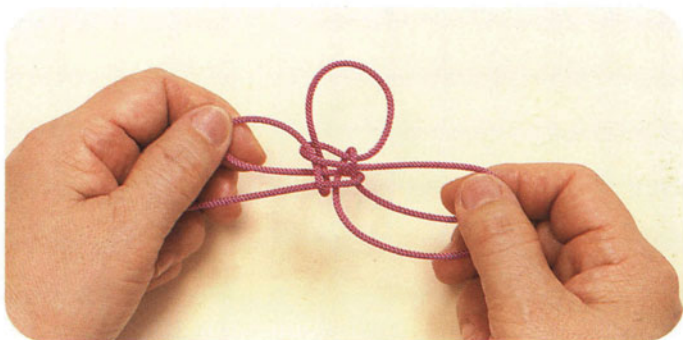


사진 180. 생쪽매듭⑧



사진 181. 생쪽매듭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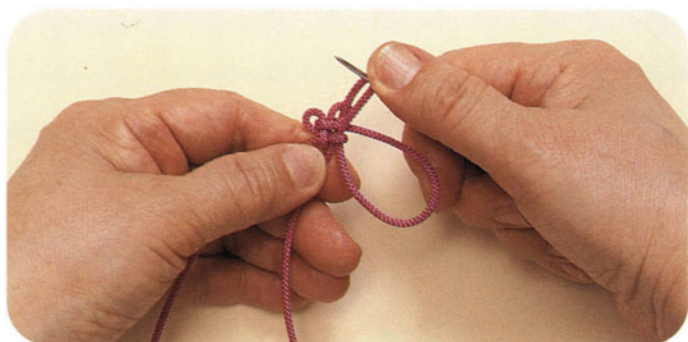


사진 182. 생쪽매듭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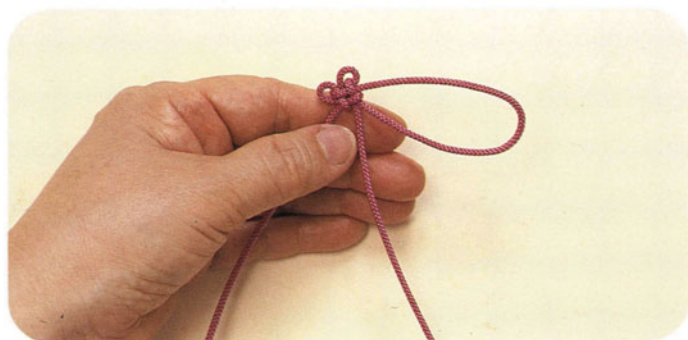


사진 183. 생쪽매듭⑪



사진 184. 생쪽매듭⑫

(8) 가지방석매듭

생쪽매듭 하나를 먼저 맺고, 양쪽 고에 오른쪽에서 아래서 위로 끈을 넣어 둘째손가락 길이만한 고를 만들어서 그 고에 대고 오른쪽에 있는 끈으로 생쪽매듭을 만들어 놓는다.

왼쪽에 있는 끈도 생쪽매듭을 뒤집어서 오른쪽에 놓고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생쪽매듭을 만든 뒤 다시 뒤집어 바로 놓고 양쪽에 만들어 놓은 생쪽매듭을 생쪽매듭으로 연결하여 조여 놓고 다시 양쪽 고에 끈을 넣어 고를 빼서 생쪽매듭을 하나 더 맺는다. 흔히 노리개에 쓰인다.



사진 185. 가지방석매듭①



사진 186. 가지방석매듭②



사진 187. 가지방석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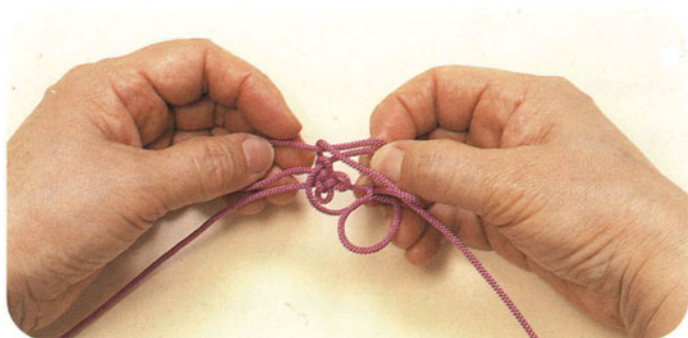


사진 188. 가지방석매듭④



사진 189. 가지방석매듭⑤



사진 190. 가지방석매듭⑥



사진 191. 가지방석매듭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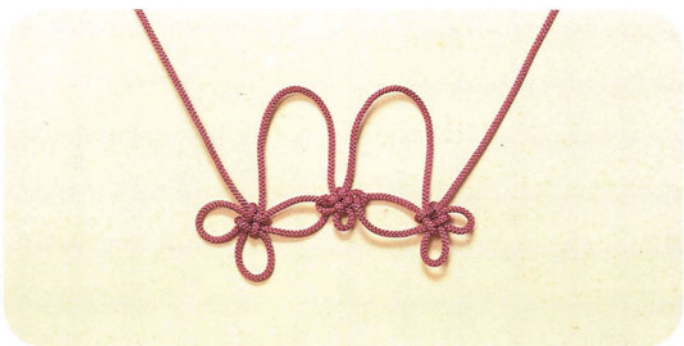


사진 192. 가지방석매듭⑧



사진 193. 가지방석매듭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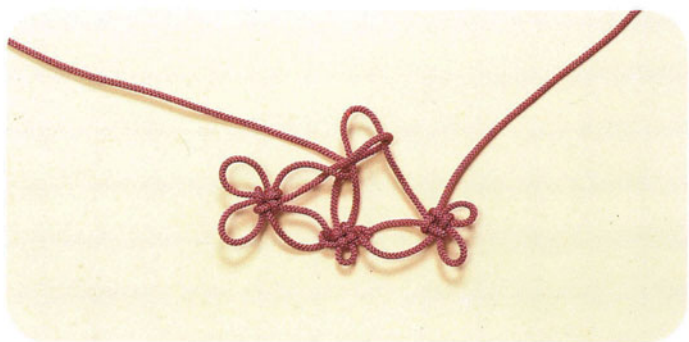


사진 194. 가지방석매듭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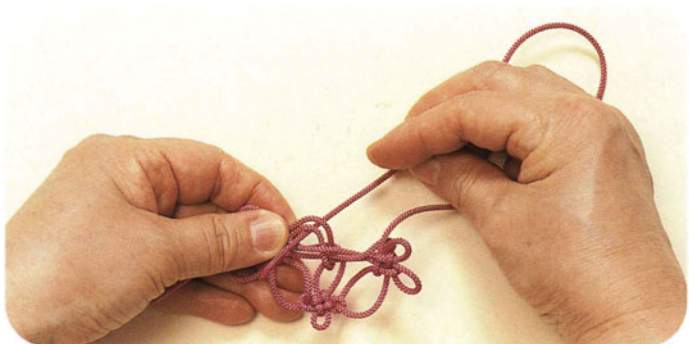


사진 195. 가지방석매듭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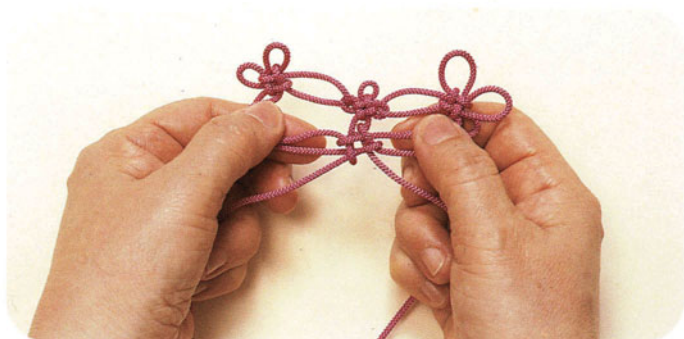


사진 196. 가지방석매듭⑫



사진 197. 가지방석매듭⑬



사진 198. 가지방석매듭⑭



사진 199. 가지방석매듭⑮



사진 200. 가지방석매듭⑯



사진 201. 가지방석매듭⑰



사진 202. 가지방석매듭⑱



사진 203. 가지방석매듭⑲

(9) 병아리매듭

병아리매듭은 국화매듭 양쪽에 생쪽매듭이 하나씩 달린 것으로, 먼저 중심 양편에 생쪽매듭을 맺어 놓고 국화매듭을 맺은 후 전체의 끈을 따라가며 균형을 맞추어 조인다. 노리개나 작은 유소 등에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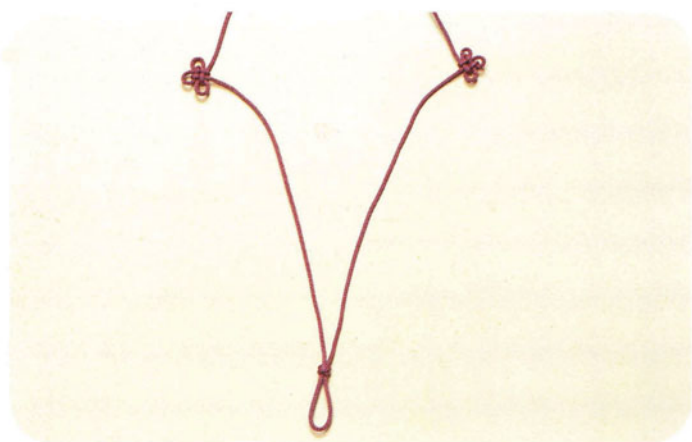


사진 204. 병아리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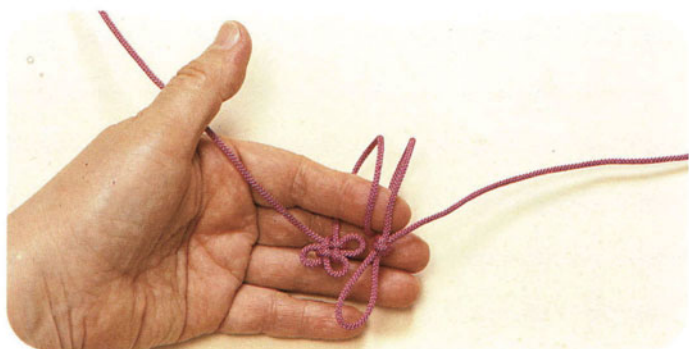


사진 205. 병아리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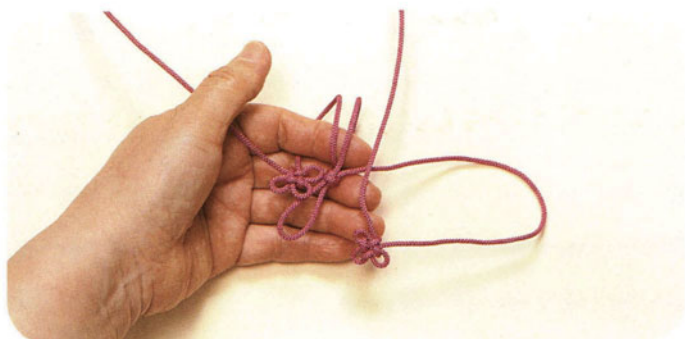


사진 206. 병아리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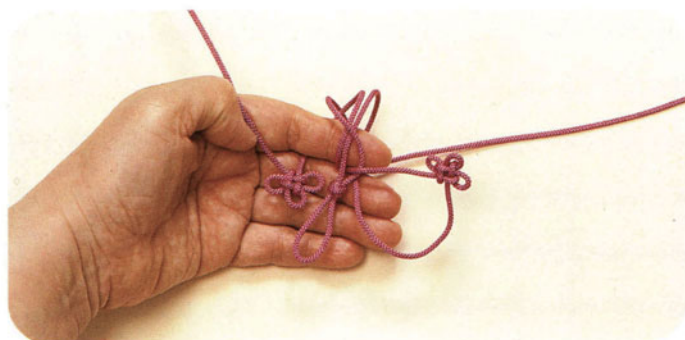


사진 207. 병아리매듭④



사진 208. 병아리매듭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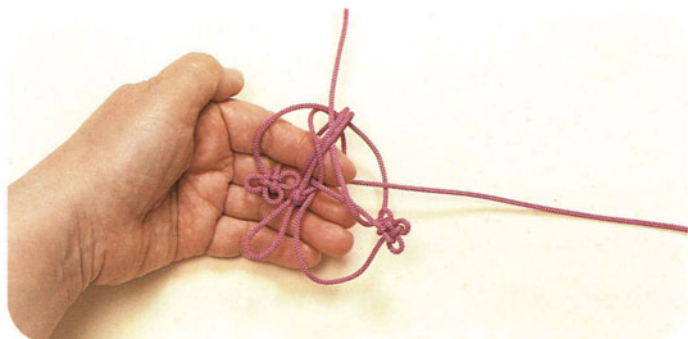


사진 209. 병아리매듭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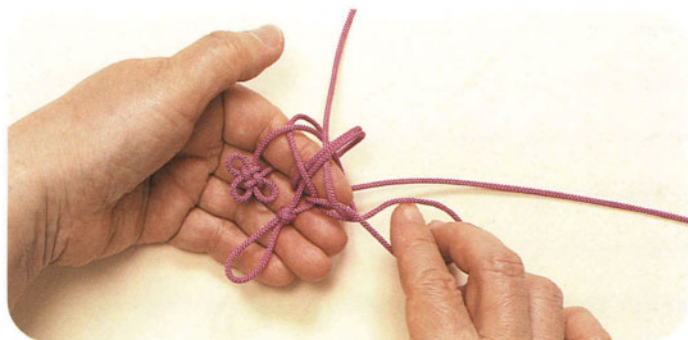


사진 210. 병아리매듭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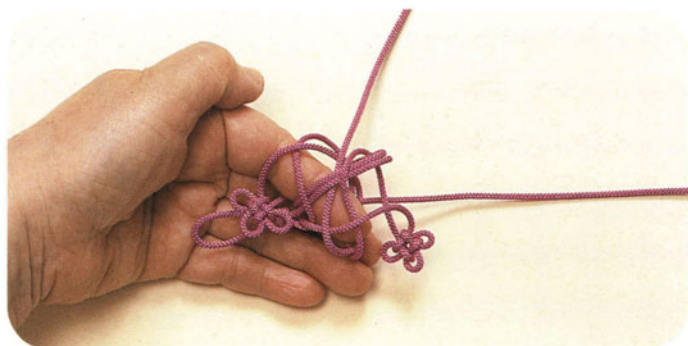


사진 211. 병아리매듭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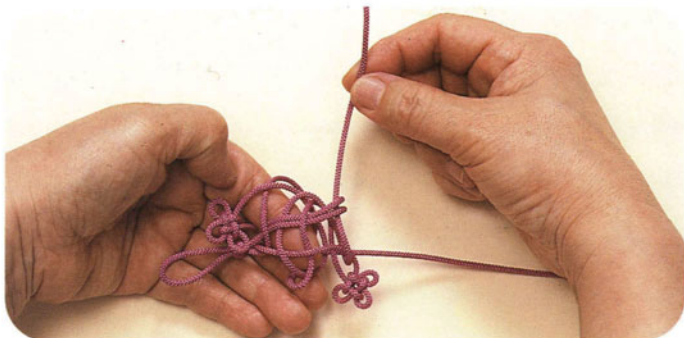


사진 212. 병아리매듭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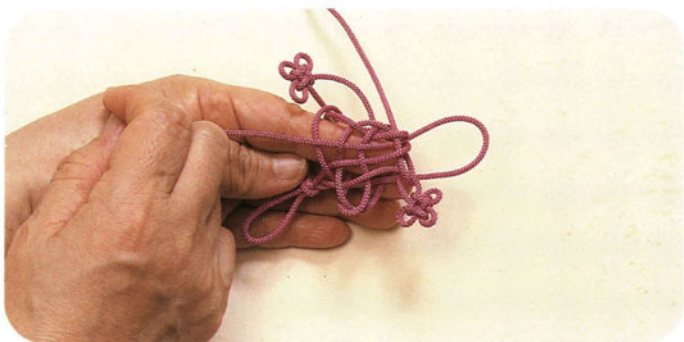


사진 213. 병아리매듭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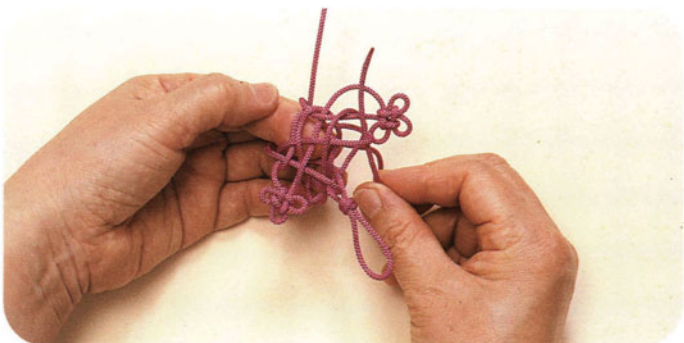


사진 214. 병아리매듭⑪



사진 215. 병아리매듭⑫



사진 216. 병아리매듭⑬



사진 217. 병아리매듭⑭

### (10) 안경매듭

중심을 위로 하고 보통 끈매는 방법으로 왼쪽 가닥이 위로 올라가게 끈을 매어 연속 네 번을 거듭한 후에 가운데에 교차되어서 생긴 고에 엄지손가락을 연속적으로 끼워 놓고 위로 올라와 있는 오른쪽의 끈 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엄지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넣어서 아래로 빼놓고, 왼손 밑으로 나와 있는 끈은 밑으로 해서 위로 올려 위에서 아래로 넣어 빼놓는다. 양쪽 엄지손가락을 같이 넣고 양옆 둘째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춰고 앞면에 있는 네 가닥의 끈을 주머니 뒤집듯 완전히 위 아래로 뒤집으면 가운데 우물 정자가 나오고 태두리가 생긴다. 끈을 따라 조이면 안경매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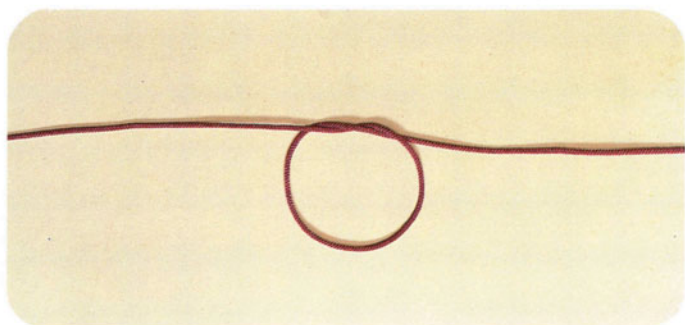


사진 218. 안경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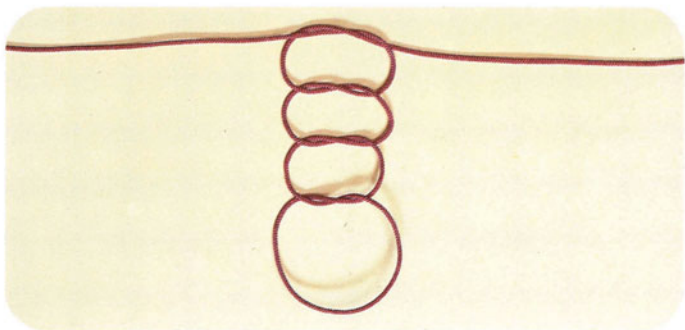


사진 219. 안경매듭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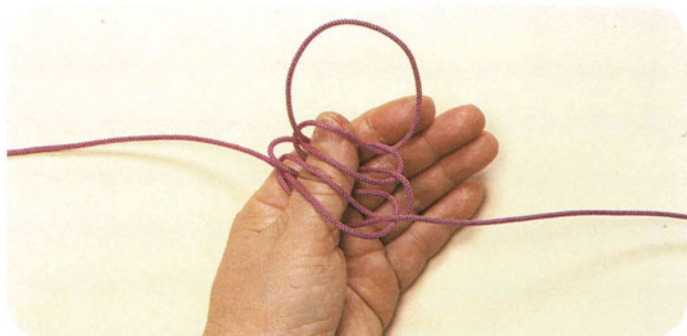


사진 220. 안경매듭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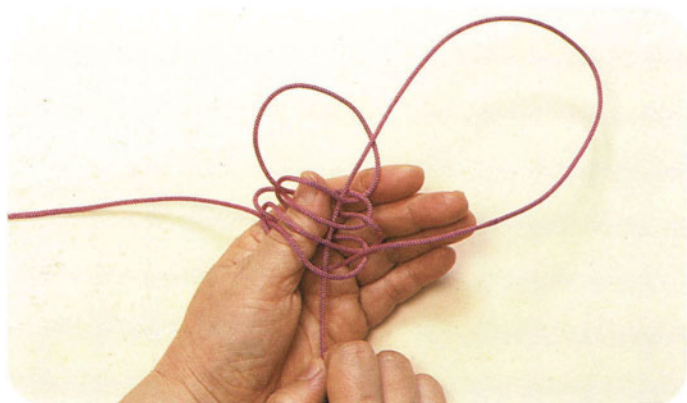


사진 221. 안경매듭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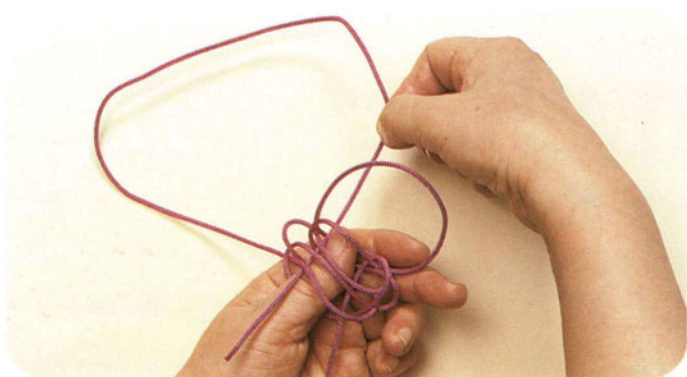


사진 222. 안경매듭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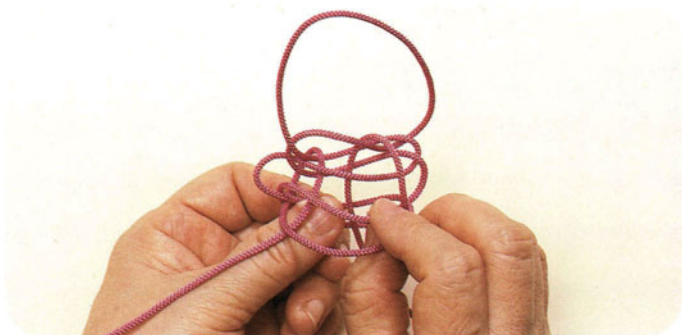


사진 223. 안경매듭⑥



사진 224. 안경매듭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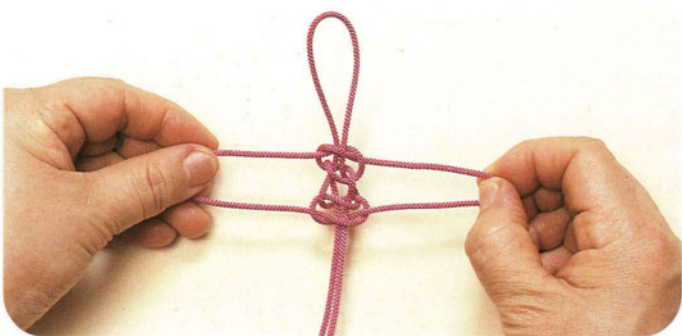


사진 225. 안경매듭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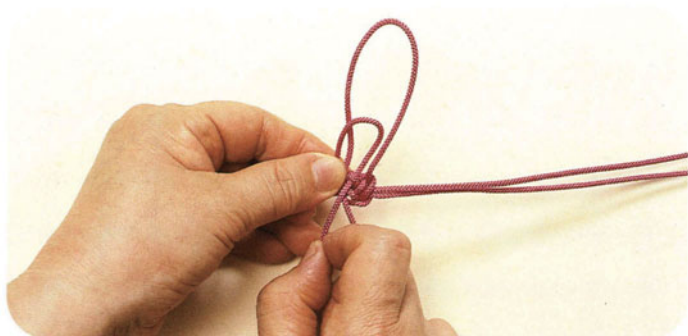


사진 226. 안경매듭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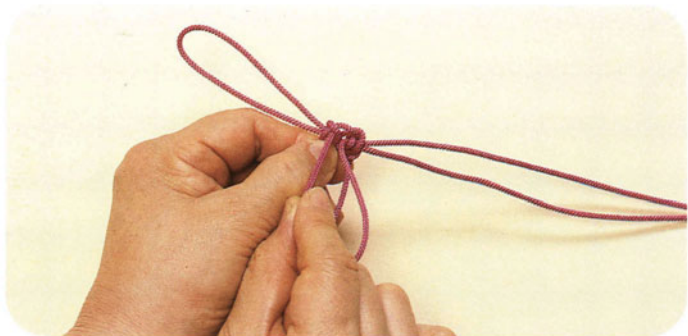


사진 227. 안경매듭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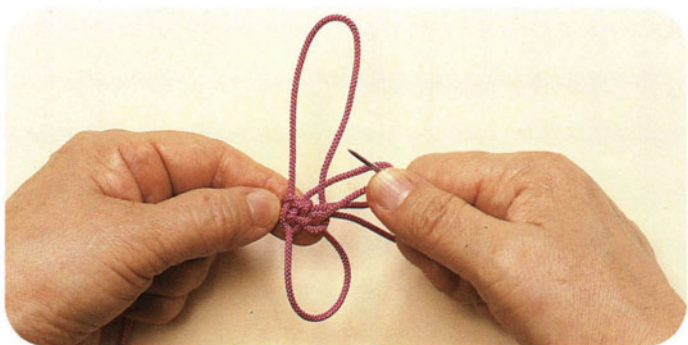


사진 228. 안경매듭⑪



사진 229. 안경매듭⑫



사진 230. 안경매듭⑬



사진 231. 안경매듭⑭

### (11) 동심결매듭

선추끈의 중간에 좌우의 고를 시원하게 빼며 맺는다. 곱집은 중심을 왼손 왼쪽에 놓고 아래위로 고를 길게 만들어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뒤 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놓는다. 다음에 끈목의 끈부분쪽을 윗부분에 만들어 놓은 고 위를 넘어서 놓고 그 위로 바로 밑에 있는 고를 직각으로 얹어놓고 왼쪽 부분의 곱집은 중심을 직각으로 얹어놓은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고를 위쪽으로 얹어 고에 끼워 놓는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대로 엄지손가락을 빼고 십자로 얹혀 얹어 놓은 고를 정리한 후 똑같은 방법으로 각 사방의 고를 먼저 있던 위치로 되돌려 놓는데 끈목의 끝부분부터 오른쪽으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각 고를 직각으로 얹어 놓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고를 위쪽으로 얹어서 처음에 얹어놓아 생긴 고에 끼워 놓는다. 그리고 사방으로 고를 잡아당기면서 길이를 맞추며 조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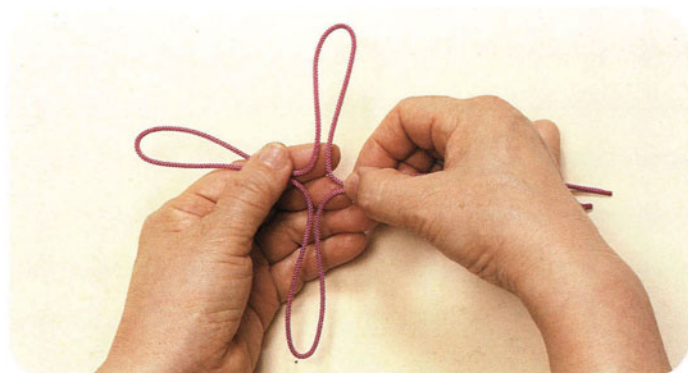


사진 232. 동심결매듭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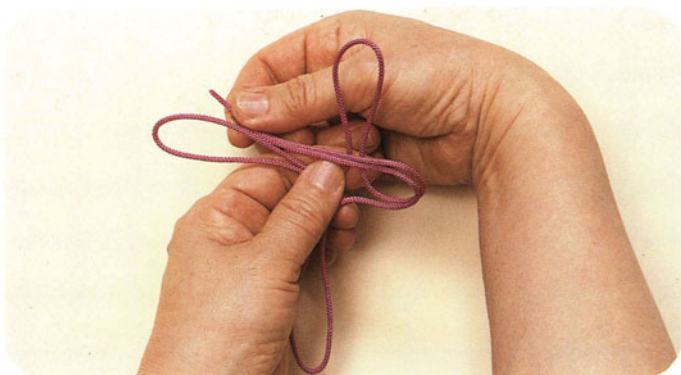


사진 233. 동심결매듭②



사진 234. 동심결매듭③



사진 235. 동심결매듭④





사진 236. 동심결매듭⑤



사진 237. 동심결매듭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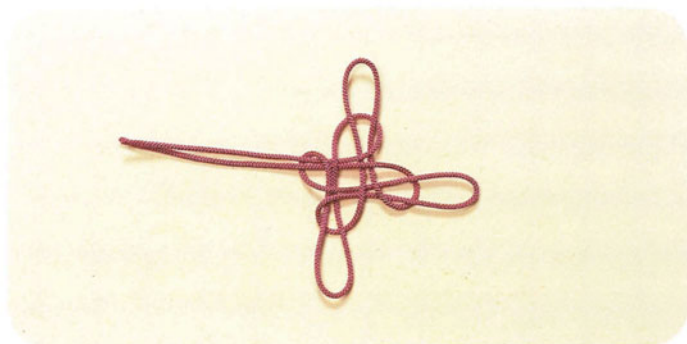


사진 238. 동심결매듭⑦



사진 239. 동심결매듭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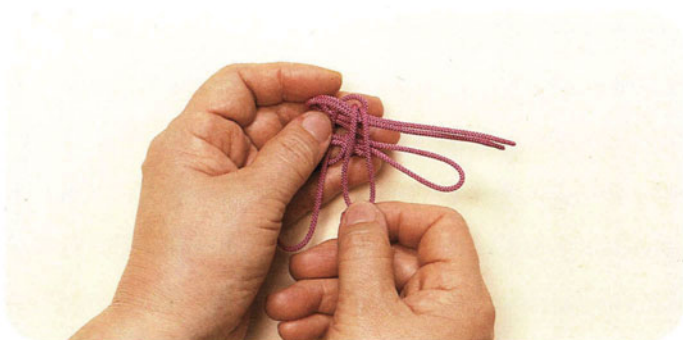


사진 240. 동심결매듭⑨



사진 241. 동심결매듭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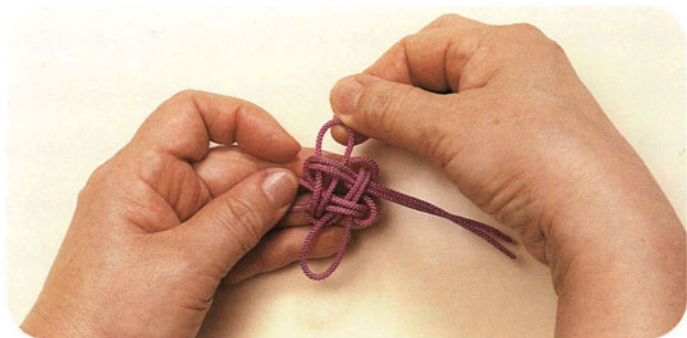


사진 242. 동심결매듭⑪



사진 243. 동심결매듭⑫

# (12) 가락지

가락지는 가늘게 짠 끈이나 면실에 풀칠을 살짝 하면서 명주실을 꼬아가며 곱게 입혀 쓰기도 한다. 위 아래의 매듭과 매듭 사이에 또는 매듭과 술 사이에 끼어서 쓴다.

송곳에 끈 끝을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고정시킨 후 두번 감아서 송곳에 감긴 윗부분을 밑에 끈 아래로 재끼고, 밑에 있는 끈에 끈목의 끝을 끼어 아래서 위로 빼어 놓은 뒤 다시 X자로 교차된 끈을 지나 아래 끈에 끼어 밑으로 빼 놓는다.

그리고 다시 나란히 있는 두 끈을 위에 있는 끈을 아래로 제쳐 놓고서 생긴 고에 끈을 다시 끼어 아래서 위로 빼놓는다. 빼놓은 끈 바로 밑에 끈목의 반대쪽 부분이 보인다. 그 끈목 위를 지나면서 끈목을 따라 송곳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계속 왼쪽으로 고를 위 아래로 넣어 빼면서 엮어 나간다. 고의 하나 하나가 두 겹 또는 세 겹까지 엮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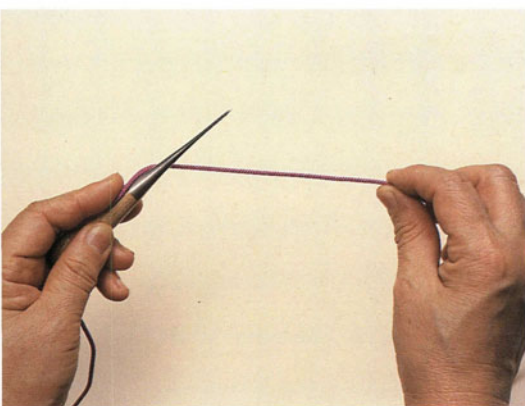


사진 244. 가락지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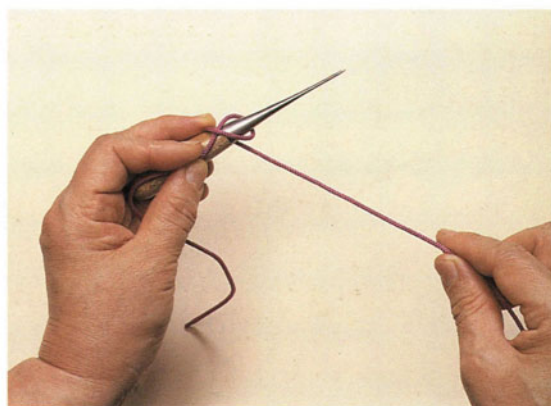


사진 245. 가락지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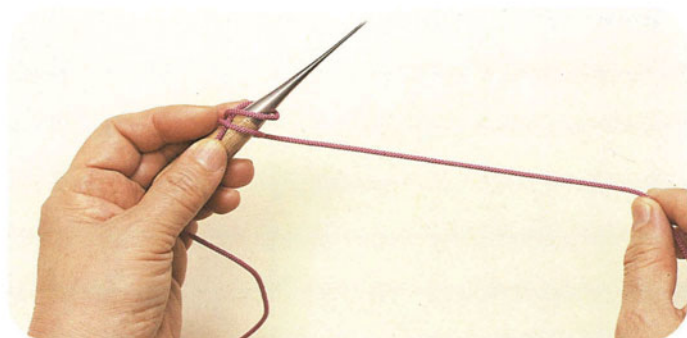


사진 246. 가락지③



사진 247. 가락지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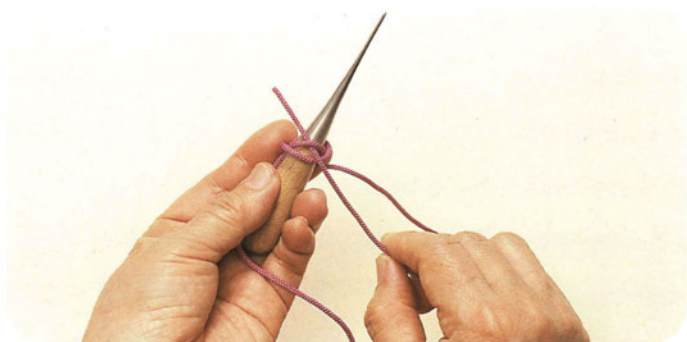


사진 248. 가락지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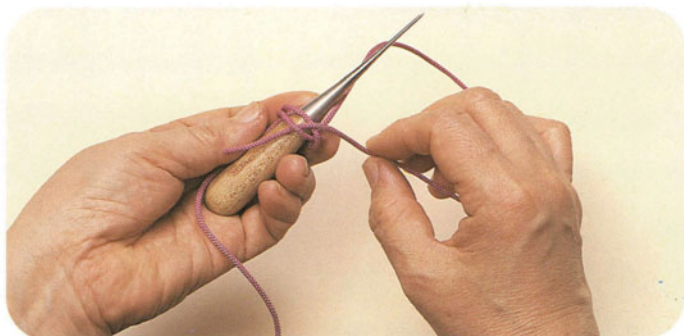


사진 249. 가락지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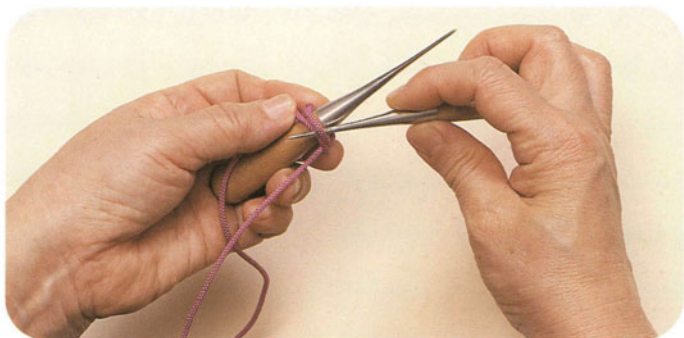


사진 250. 가락지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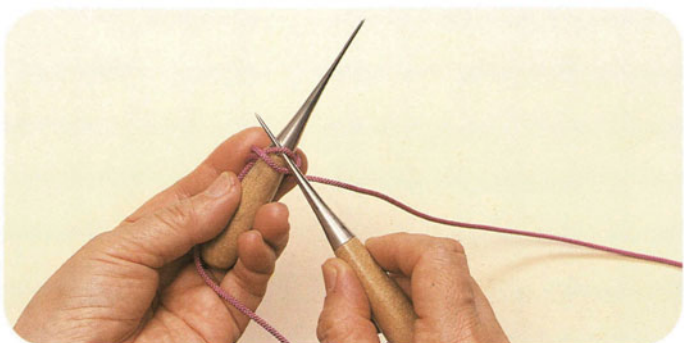


사진 251. 가락지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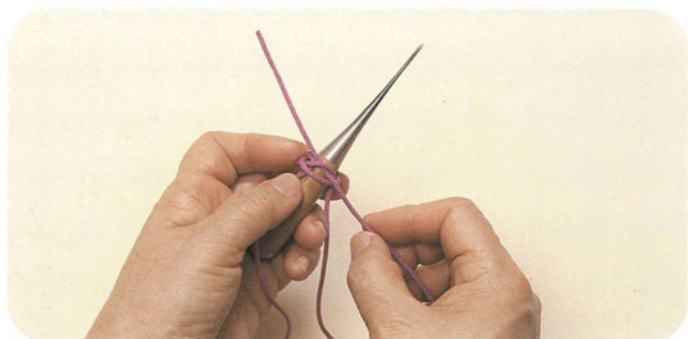


사진 252. 가락지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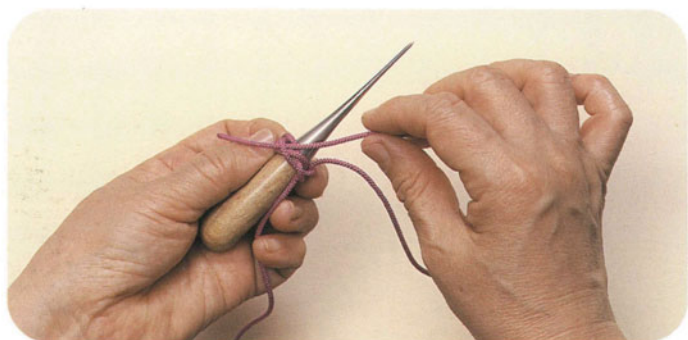


사진 253. 가락지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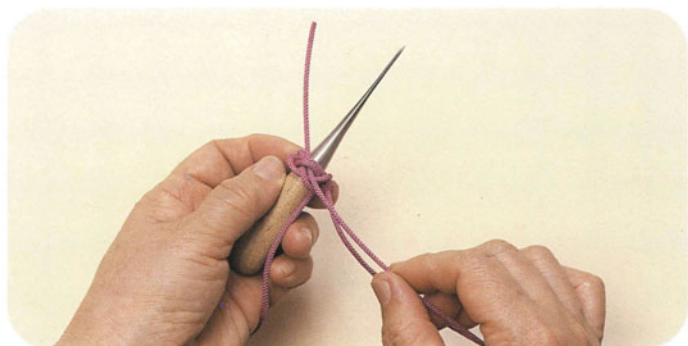


사진 254. 가락지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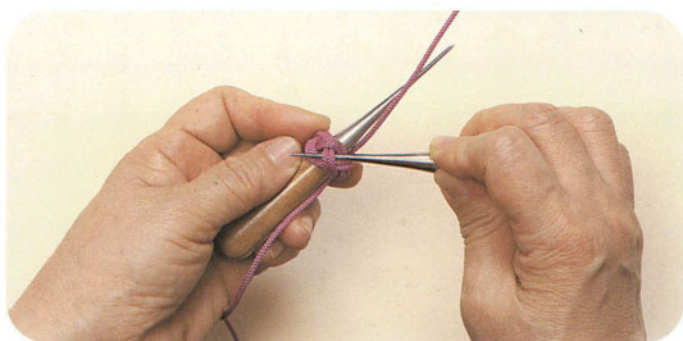


사진 255. 가락지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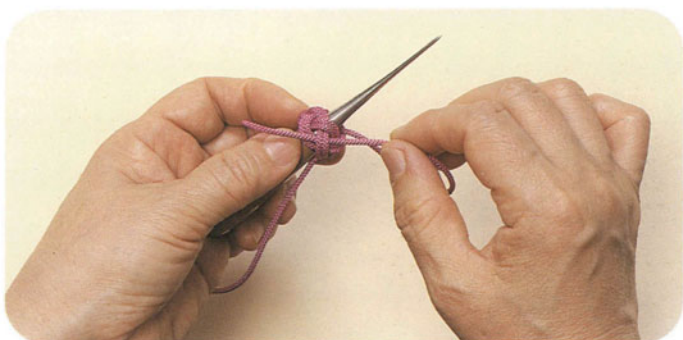


사진 256. 가락지⑬



사진 257. 가락지⑭

#### 4) 술 만들기



사진 258. 술① - 술틀에서 원하는 술길이에 맞추어 바탕실을 감는다.



사진 259. 술② - 술틀에 감아놓은 실을 꼬기 위해 비뿔의 코에 옮긴다.



사진 260. 술③ - 비퓏에서 꼬은 술  
울을 큰 바늘로  
웁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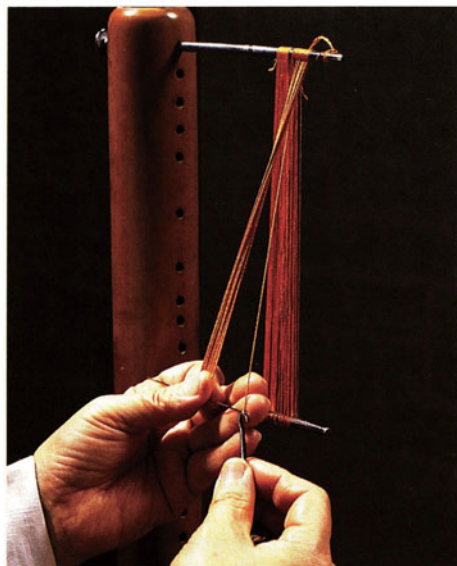


사진 261. 술④ - 술울을 한바늘 한  
바늘 웁겨 놓는다.





사진 262. 술⑤ - 술줄을 꼬아서 술틀에서 빼 내기 전에 엉키지 않게 반대 방향으로 꼬아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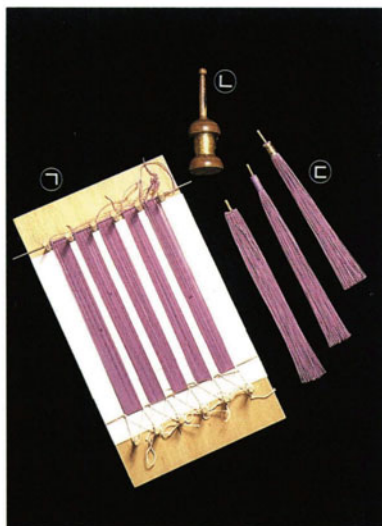


사진 263. 술⑦

- (ㄱ) 다 꼬은 술줄 묶음을 술판에 팽팽하게 고정시킨 상태
- (ㄴ) 봉술에 감는 금사
- (ㄷ) 봉술을 만들기 위해 묶어놓은 상태



사진 264. 술⑥ - 대야에 물을 조금 붓고 끓을 때 술판을 얹어 놓고 두꺼운 보자기를 덮어 된김을 살짝 쏘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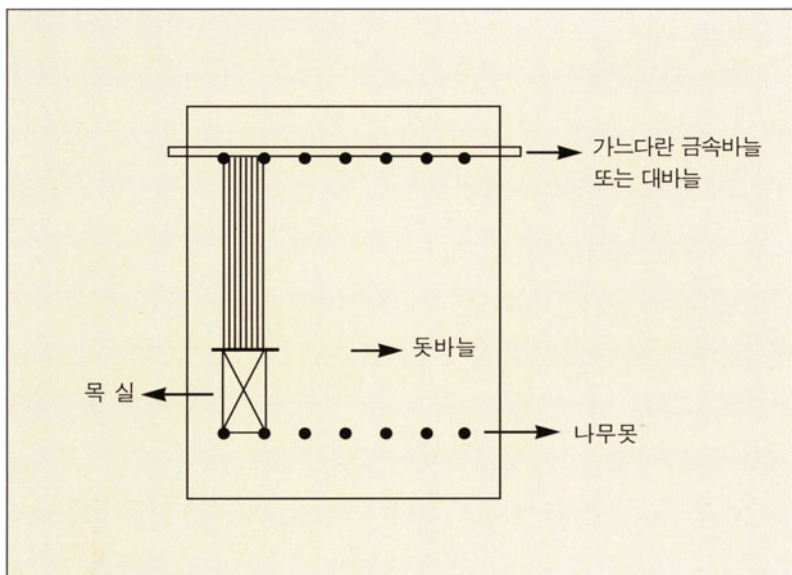
염색한 명주실을 술울의 굵기에 맞추어 합사해서 두 가닥으로 날아 놓는다. 두 가닥의 합사한 실을 각각 오른쪽으로 꼬은 후 다시 하나로 합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고수리가 지기 직전까지 되게 꼬아 놓는다.

되게 꼬아진 바탕실을 나무 실패에 감는데 이것은 실의 굵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0m 날랐을 때 3m 정도 줄면 적당하다. 술의 길이에 맞추어 술틀의 기둥 위에는 긴 사장못을, 아래는 짧은 것을 끼고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킨다. 고정시킨 사장못의 위아래로 실이 늘어지지 않게 감는 손의 힘을 고르게 유지하며 팽팽히 감아 놓고, 술실의 맨 끝부분을 위의 사장못의 구멍에 붙잡아 매놓는다. 이때 비벼야 할 술의 분량은 돛바늘의 길이에 알맞게 맞추어야 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량을 술틀에 감아 놓고 돛바늘에 끼우게 되면 고르게 비비기가 힘들고 술판에 얹히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툇알구지로 한 올씩 빼어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끝으로 오른쪽으로 돌려 비벼 꼬은 뒤 왼손에 쥔 돛바늘에 옮겨 낀다. 한 바늘 다 꼬아진 술은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체를 돌려 고정시켜 놓은 뒤, 윗쪽 사장못 끝의 구멍에 목노를 낀 채 술판의 폭 길이보다 조금 긴 금속 낀 바늘에 한 바늘 내기<sup>19)</sup>씩 빼낸다.

19) 돛바늘에 술이 한 묶음씩 꼬인 것을 한바늘 내기라고 한다

그림 15. 비벼놓은 술을 술판에 고정시킨다.



술틀에서 빼낸 비벼 놓은 술을 술판에 가지런히 놓고 돛바늘을 잡은 후, 돌려놓은 술을 오른쪽으로 돌려 원위치로 되돌려서 위아래 술 길이를 잘 맞추어 술판의 상하 나무못에 팽팽하게 무명실로 고정시킨다.

술판이 얹힐 정도의 큰 용기에 물을 조금 붓고 불 위에 올려놓은 뒤, 술판을 얹어놓고 두꺼운 보자기를 김이 옆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잘 덮어서 김이 위로 나오기 시작한 후부터 약 3분 정도 된 김을 쏘이고 그늘에서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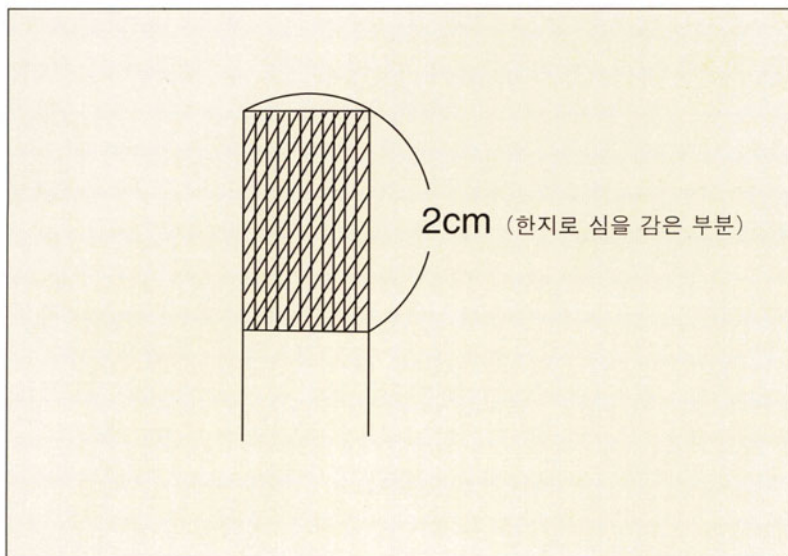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준비된 술을 가지고 술의 종류에 따라 만드는 과정이 다르게 된다.

### (1) 봉술

봉술은 완성될 술의 길이보다 2.5cm 더 길게 술올을 준비한다. 다 꼬아 놓은 술올을 술판에서 풀어내어 원하는 봉술 굵기의 분량씩 나누어 놓은 뒤 술올 윗부분에 끼어 있는 목노로 둥글게 붙잡아 맨다. 이때 술올 끼우게 될 다회의 굵기와 같은 6cm 정도의 짧은 대바늘을 가운데 끼워 넣고 더 단단히 매어 놓는다.

다음에 술올과 같은 색의 한지로 술의 크기에 따라 심을 준비해 놓고<sup>20)</sup> 대바늘에 낀 채 술올을 가지런히 세워 준비한 한지에 풀칠을 해서 술의 윗부분 끝을 단단히 감아 놓는다.

그림 16. 한지 감는 부분



20) 보통 노리개의 경우 폭 2cm, 길이 15cm 정도 한지의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룻밤 정도 지나 감아 놓은 한지가 단단하게 잘 마른 후 거꾸로 세우면 심이 속으로 묻히며, 속의 술올이 그 위로 둥글게 펼쳐지는데 한지 위에 끌고루 앉도록 잘 매만져 놓고 무명실로 매어서 고정시켜 놓는다. 그리고 술의 길이가 층이 지지 않도록 송곳으로 잘 맞추어 놓은 뒤에 술머리에 금실을 감는데 술올과 배색이 잘되는 색실로 버나사를 두르며 봉을 감는다. 이때 봉술의 머리에 왕(王)·희(囍)·수(壽) 등의 글자를 새기며 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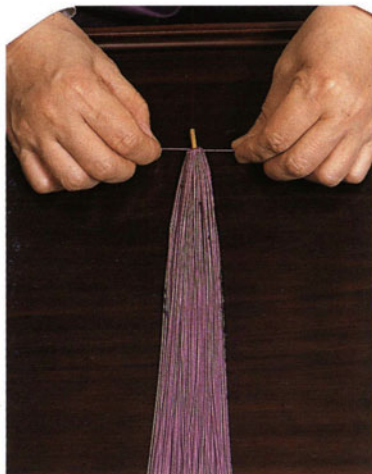


사진 265. 봉술① - 봉술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술의 굵기에 맞게 한데 묶는다.



사진 266. 봉술② - 묶어놓은 술의 머리 부분에 한지로 심을 감는다.





사진 267. 봉술③ - 한지로 감은 후 마른 다음, 맨 윗부분을 밑으로 하여 술을 가지런히 한다.



사진 268. 봉술④ - 봉술 머리에 금사와 버나사로 색을 맞추어 감는다.

#### (2) 딸기술

겹딸기술의 경우는 완성될 술의 길이보다 5cm 정도 길게 술을 준비해야 하며, 술머리에 넣을 심을 만들어 놓는다. 술심의 재료는 술의 크기에 따라 한지의 폭과 길이, 무명실의 길이가 달라진다. 보통 노리개의 경우 한지는 폭 0.5cm · 길이 30cm, 무명실은 길이 45cm 정도이다.

술을 끼우게 될 다회의 굵기와 같은 대바늘에 풀칠을 한 한지를 돌돌 말아서 팽알만하게 둥글게 한 뒤 무명실로 어긋하게 엇갈리며 감아서 둥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말려 놓는다.

술판에서 술올을 떼어내기 전에 술의 굵기에 따라 일정량의 올을 흰 무명실로 묶어 놓은 뒤 술올의 묶음을 짝수(10 · 12 · 14개)로 세어서 떼어낸 후 목노 끝을 속으로 끼워 단단히 묶어 놓는다.

다음에 앞뒤로 이등분하여 나누어 놓고 서로 엇갈리게 하여 차례로 딸기술 머리를 틀어 엮어 놓고 고르게 매만져 놓은 뒤 술의 크기에 맞게 만들어 놓은 심을 술머리 속에 넣고 단단하고 고르게 조인다. 여기까지가 홑딸기술이 되며, 이것을 뒤집어 놓고 다시 한번 전과정을 되풀이하여 틀고 엮고 조이면 겹딸기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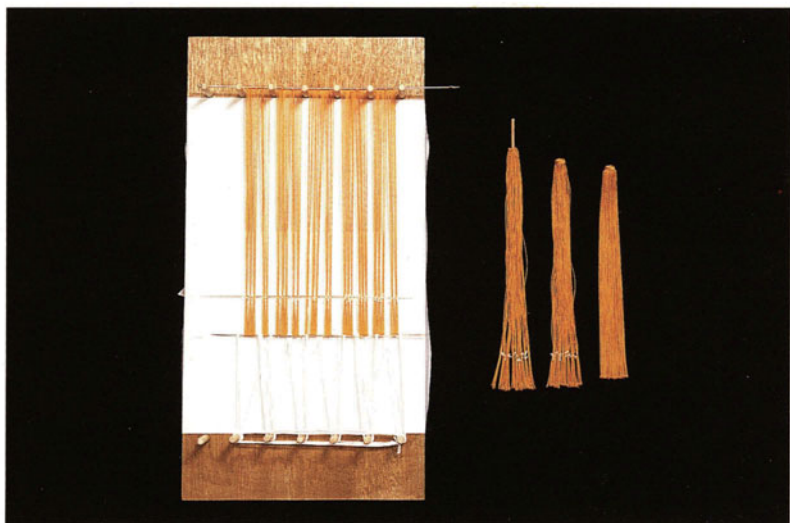


사진 269. 딸기술① - 술을 세어서 묶어 놓은 상태(左), 술묶음·홀딸기·겹딸기(右)



사진 270. 딸기술② - 딸기술을 틀기 위해 술을 묶음을 둘로 갈라 쥘다.



사진 271. 딸기술③ - 딸기를 튼다.



사진 272. 딸기술④ - 딸기를 튼다.



사진 273. 딸기술⑤ - 딸기를 튼다.



사진 274. 딸기술⑥ - 딸기술을 다 틀어서 술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한지와 면사로 심을 만들어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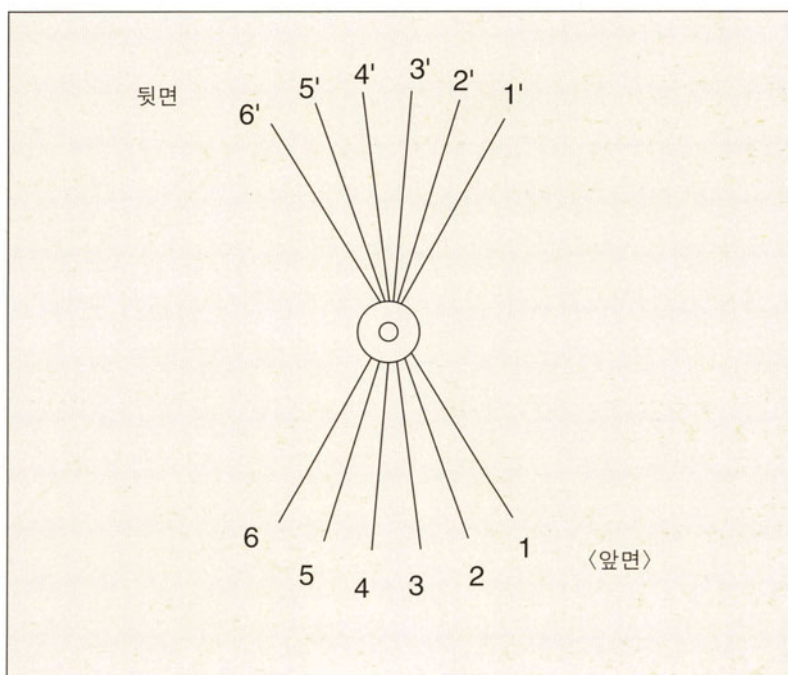


사진 275. 딸기술⑦ - 심을 넣고 딸기술의 머리를 다시 고르게 매만지며 고루 조인다.



딸기술 머리를 틀고 엮는 방법을 설명해 보면, 왼손의 손바닥에 묶어 놓은 술 올을 앞뒤로 펼쳐 놓는데 뒷면의 술올이 전부 집게손가락 위에 걸쳐진다.

그림 17. 딸기술 머리 틀고 엮기



처음에 1번을 왼손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 사이에 끼고 뒷면 6'를 나머지 술올 5', 4', 3', 2', 1' 밑을 지나서 손바닥 위에 얹혀 놓고 1번을 둘째손가락 위에 빼놓는다. 다시 앞면의 2번을 왼손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 사이에 끼고 뒷면의 5'를 4', 3', 2', 1', 1번 밑으로 지나서 손바닥 위에 얹혀 놓



고 2번을 다시 둘째손가락 위에 빼놓는다.

나머지 앞면의 3번, 4번, 5번, 6번과 4', 3', 2', 1'도 마찬가지로 반복해 놓는다. 그 결과 앞면의 왼쪽부터 술올이 6', 5', 4', 3', 2', 1'의 순서로, 뒷면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순서로 술올의 위치가 된다.

이렇게 왼손 손바닥 위에 틀어져 있는 술올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왼손의 등이 위로 되게 손을 움직여 얹어놓는다. 그러면 술올의 위치가 다시 바뀌어 앞면의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순서로, 뒷면은 왼쪽부터 6', 5', 4', 3', 2', 1'의 순서가 된다.

앞면의 1번 술올을 2번, 3번, 4번, 5번, 6번 위를 넘어서 다시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밑으로 지나 앞면에 있는 술올을 전부 감싸서 뒷면의 6' 술올과 연결되는 앞면의 고리 속으로 아래서 위로 빼놓는다. 또한 2번의 술올도 3번, 4번, 5번, 6번 위를 넘어서 다시 6번, 5번, 4번, 3번 밑으로 지나 뒷면의 5' 술올과 연결되는 앞면 고리 속으로 아래서 위로 빼 놓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나머지 술올을 움직이면 술의 머리가 딸기처럼 틀어지며 동그랗게 술머리 형태가 나온다. 이것을 차례대로 조금씩 잡아당기면서 조여서 단단하게 매만져 놓는다.

#### (3) 방울술

12사 끈목으로 연봉매듭을 맺은 다음 남은 끈목이 술의 역할을 하게 된다. 노리개의 경우를 보면, 끈목의 폭은 0.5cm 정도이고 술의 길이는 12~13cm 정도 늘어뜨린다.



사진 276. 방울술1



사진 277. 방울술2

연봉매듭 바로 밑에 두 끈목을 합쳐서 1.2~1.5cm 정도의 길이로 금사나 버나사를 감은 후에 술의 맨 끝에서 3.5cm 정도 윗부분부터 두 끈목 각각에 1.2~1.5cm 정도의 길이를 금사나 배색이 잘되는 색실로 버나사를 감아서 술을 마무리하게 된다.

#### (4) 방망이술

방망이술은 우선 술머리를 나무로 깎아서 금색 물을 올린 뒤에 술머리의 크기에 맞게 망을 뜰 실의 굵기를 정한다. 적당한 굵기로 합사한 두올의 실을 각각 똑같이 오른쪽으로 꼬은 다음 다시 합쳐서 왼쪽으로 꼬은 후에 된 김을 쏘여 놓는다. 이렇게 준비한 실을 가지고 술머리에 덮을 망을 바늘로 떠놓는다. 술판에서 떼어낸 적당량의 술실을 망을 떠서 썬놓은 술머리 밑의 [그림 18]의 ②번 부분에다 단단히 묶어서 술실을 늘어뜨린다.

그림 18. 방망이술 머리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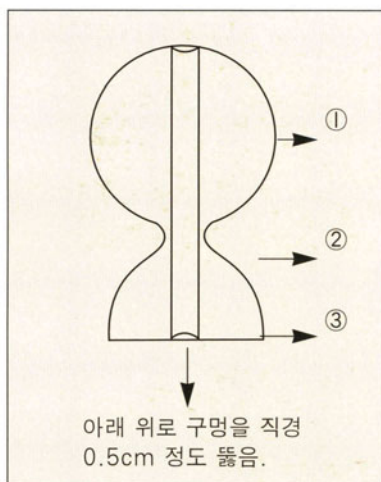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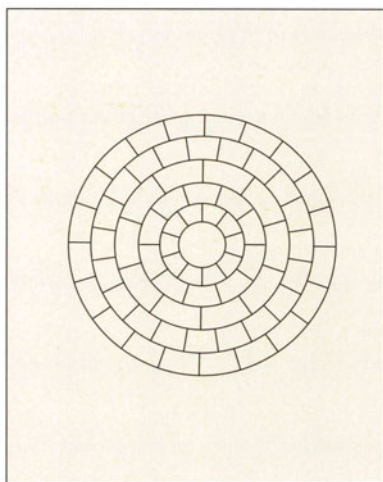


그림 19. 방망이술 머리 그림2



[그림 19]의 보기와 같이 바늘로 망을 떠서 [그림 18]의 ①번 부분까지 덮어지면 술머리에 덮어썬 놓은 채 바늘로 망을 떠서 ③번 부분까지 떠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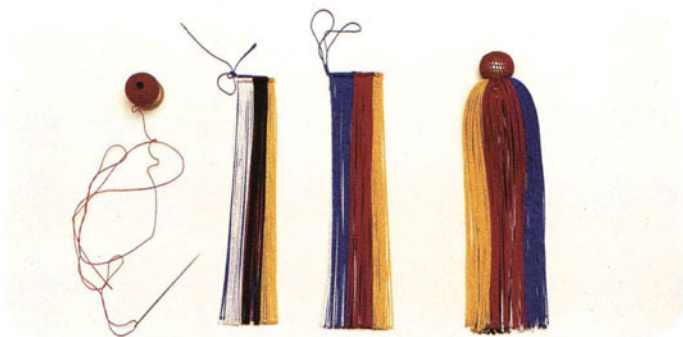


사진 278. 방망이술①



사진 279. 방망이술② - 술머리에 망을 떠서 입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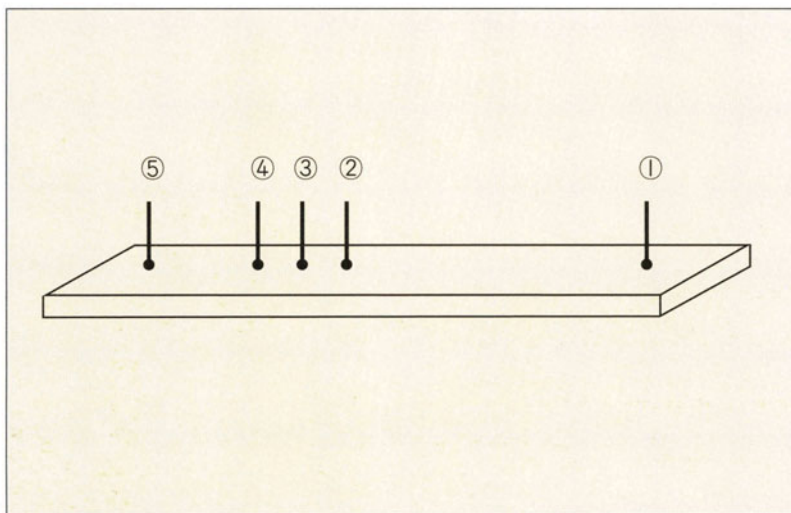


사진 280. 방망이술③ - 술올을 묶어 늘인다.

### (5) 낙지발술

삼봉낙지발술 노리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그림 20. 낙지발술틀



윗그림에서 낙지발술틀의 나무못 ①번과 ④번에 길이 43cm 정도의 끈목을 세 번 연속해서 가지런히 감고 끈목의 끝부분과 세 번 가지런히 감은 끈목을 함께 바늘로 나란히 고정시켜 놓고 나무못 ①·④의 끝부분에 나란히 감긴 끈목도 바늘로 꿰매어 중심을 잡아놓은 다음, 술틀에서 떼어낸 후 중심부분에 양쪽(①·④) 나무못 끝에 꿰매놓은 부분이 오게 하고 반을 접어 놓는다.

다음에 나무못 ①번과 ③번의 길이 40cm로 또한 나무못 ①번과 ②번의 길이 37cm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 번씩 가지런히 감고 끝부분도 바늘로 꿰매어 정리한 후 똑같이 반을 접어 놓은 뒤 윗부분에서부터 매듭을 맺어온 끈목으로 차례대로 긴 줄부터



엮어서 매듭에 달아 술을 늘어뜨린다.

술의 양어깨 부분을 금사 6~7mm 정도로 여러 겹 감아서 술의 모양도 잡고 끈목의 끝부분도 깔끔히 정리한다. 술의 아래단부터 3.5cm 정도 부분에 하나 하나 금사 2mm 정도로 여러 겹 감아서 모양을 내고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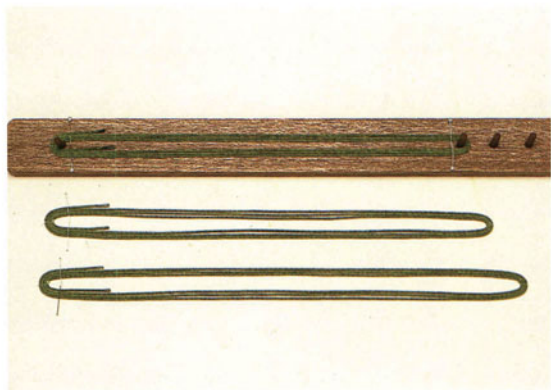


사진 281. 낙지발술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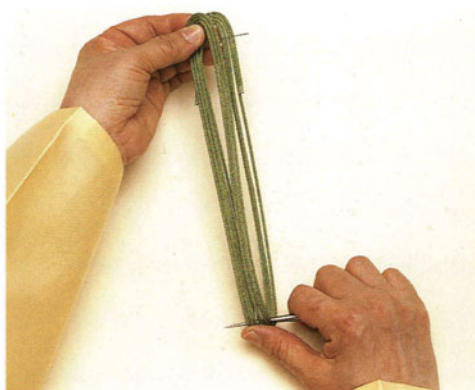


사진 282. 낙지발술②



사진 283. 낙지발술③



사진 284. 낙지발술④



사진 285. 낙지발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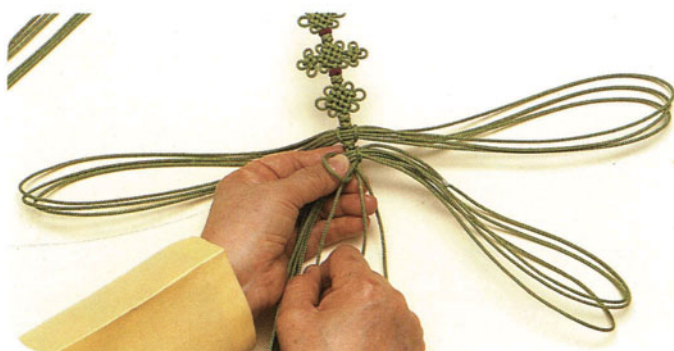


사진 286. 낙지발술⑥

## Ⅳ. 매듭장과 매듭의 전수

### 1. 매듭장

조선시대에 매듭의 용도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생활 곳곳에 장식용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궁중과 상류 사회에서만 쓰이던 매듭이 후기에 가서는 평민에까지 쓰여져 대중화되어, 매듭장인의 수도 많아졌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기본적인 매듭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격동기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말(韓末) 청나라의 영향에 이어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전통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화의 훼손과 단절을 초래하였다. 해방과 한국전쟁 후에는 서구 문화가 급격히 밀려옴으로써 우리의 생활 문화 양식은 서구화되어 갔다. 아울러 조선 말기의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천역(賤役)에 대한 반항으로 많은 장인들은 그의 직업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일을 찾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 변화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매듭에 있어서도 그 수요가 줄어들고 기능 보유자들도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1963년 당시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전통 매듭의 맥을 이어온 장인이 몇 분 있었다. 정연수(程延壽)·심칠암(沈七岩)·강기만(姜基萬) 등이 그들인데, 유일하게 정연수씨가 생업(生業)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정연수씨는 1904년 매듭장 마을인 서울 중구 광희동<sup>21)</sup>에서 태어나 18세 되던 1920년대부터 최동근(崔東根)씨에게 매듭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25세부터 독립하여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 정연수씨가 매듭을 배우던 당시 매듭장 마을에는 최동근씨 이외에 강모주·왕인식이라는 매듭장이 있었다고 한다. 정연수씨는 1968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74년에 돌아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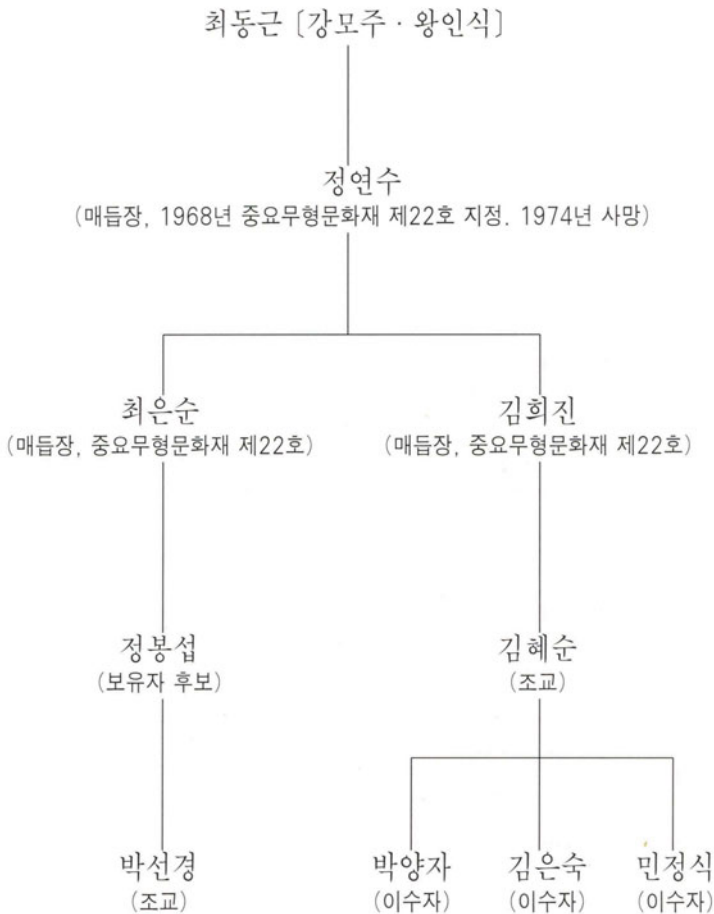
그리고 그의 아내 최은순(崔銀順)씨와 유일한 전수생이었던 김희진(金喜鎭)씨를 통해 이 시대에 소중한 전통의 맥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



사진 287. 매듭장 정연수 선생

21) 현재의 서울 광희동 시(수)구문안 일대가 실·관·매듭의 본고장이었다고 한다.

# 〈매듭장 계보〉





최은순씨는 1917년 서울 아현동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부모를 따라 인천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성장했다. 21세 때 서울 신당동에 사는 서른네살의 매듭장 정연수씨와 결혼하였다. 시댁은 원래 시(수)구문안 매듭장들이 많이 사는 광희동에서 4대째 살아왔으나 세습적인 매듭 장인의 집안은 아니었다고 한다. 최은순씨가 시집을 당시 정연수씨는 광희동의 옆 동네인 신당동에 살았는데, 신당동에서 매듭 일을 하는 집은 정연수씨집 뿐이었다고 한다.

최은순씨가 시집오기 전에 할 수 있던 매듭은 적삼 단추 맺는 것과 주머니끈 매는 정도였으나, 시집와서 남편으로부터 생업을 위해 매듭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정연수씨는 주문에 따라 가마술·상여의 유소·사찰의 연 등에 쓰이는 각종 매듭을 제작하였다. 주문처는 충청도의 서산·충주·제천을 위시하여 개성·서울의 종로 3가에서 5가의 만물상까지 있었다. 시집온 이래 1960년대 말까지는 주로 유소와 술을 많이 제작하였고, 1974년 정연수씨가 타계한 이후부터는 노리개 종류의 매듭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지 2년 후인 1976년 중요무형문화재 22호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정연수씨의 뒤를 이었다.

최은순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1976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전통공예대전에 계속 출품하고 있으며, 1985년 대만 대북역사박물관·87년 일본 동경 교통회관·1989년 서울 롯데 미술관 등에서 열린 한·중·일 <동아삼국 국제 매듭전>에 출품하였다. 또 회원간 친목을 위해 전통공예전수관에서 주최하는 한국 전통공예 전수교육 회원전에도 꾸준히 출품하고 있다.



사진 288. 젊은 시절 매듭장 최은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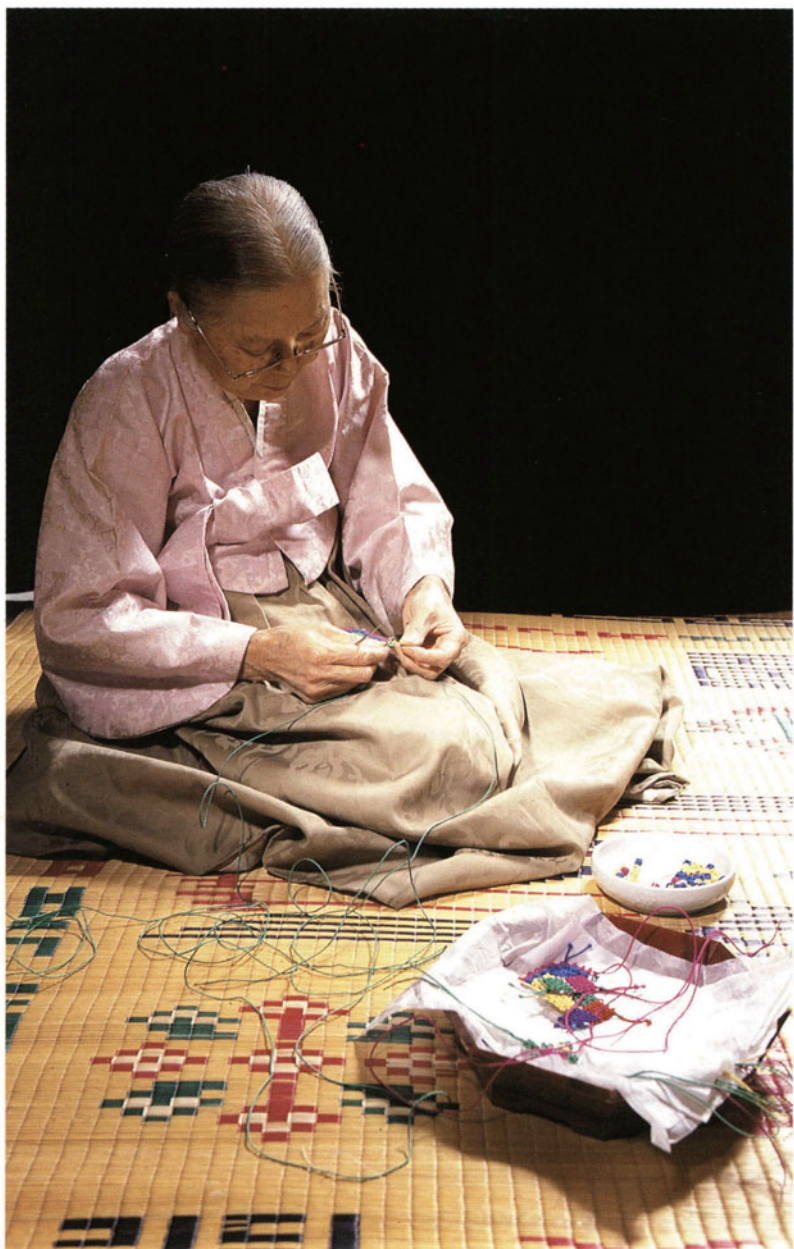


사진 289. 매듭장 최은순씨의 작업하는 모습



김희진씨는 1934년 황해도 해주 태생으로 여섯 남매 중에 딸로는 만이로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지냈다. 그러나 광복이 되고 모든 재산을 남겨둔 채 가족과 함께 남하한 김희진씨는 서울 진명여고(進明女高)를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당시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셨듯이 손수 옷을 해 입히셨다. 보수적인 가정이라 집에서는 늘 한복을 입어야 했고, 솜씨 좋은 그의 어머니는 옷감에 직접 물을 드려 치마·저고리·속치마, 심지어는 속고름까지 배색하여 옷을 만들어 주었다. 덕분에 김희진씨는 어릴 적부터 색감에 민



사진 290. 매듭장 정연수 선생께 사사받는 김희진씨

감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 재능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팔십이 가까울 때까지 늘 손에 바늘 잡기를 즐겨 하셨으며, 바늘꽃이라든가 베개·넙비 집게 등을 예쁘게 누워서 친지들에게 선물하는 등 남다른 솜씨가 있었다.



사진 291. 젊은 시절 김희진씨



이와 같이 전통을 지켜온 보수적인 가정 분위기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은 김희진씨가 매듭에 전념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김희진씨가 매듭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의 나이 20대 후반으로 예용해 선생의 소개로 매듭장 정연수 선생을 만나면서였다. 그가 처음으로 대한 매듭은 상여를 장식하는 대봉유소와 소봉유소로, 처음 보는 순간 오묘한 매듭의 결구와 원색의 강렬한 색감에 '흔을 빼앗겼다'고 회고했다. 1963년 정연수씨로부터 매듭의 기본형을 익힌 후에 그 당시 지방의 장인 몇 분을 탐방하면서 정연수씨에게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배울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다.

대구 지방의 매듭장 심철암씨(남, 1964년 당시 77세)는 1962년까지 매듭 일에 종사했는데, 그에게 안경매듭과 거꾸로 얹게 되는 나비매듭을 전수받았다. 또 남원 지방의 매듭장 강기만(남, 1964년 당시 66세)씨로부터는 삼발창·오발창·쌍코형 등 색다른 주머니끈의 명칭과 끈디기매듭·매미매듭·혼백매듭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염색하는 방법도 익혔다. 남원읍 노암리에 다회장 박용학(남, 1964년 당시 70세)씨로부터는 끈목 4사와 8사 짜는 기법을 배웠다. 김희진씨가 찾아갔던 1964년 당시 박용학씨는 수동식 기계로 당줄·주머니끈 등에 소용되는 끈을 치고 있었을 뿐, 예전에 사용하던 8사 틀은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당동의 김일비할머니한테는 술실의 공정(술의 바탕을 꼬는 작업)과 봉술의 공정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매듭장 정연수씨 외에 김희진씨가 사사받은 매듭장 및 다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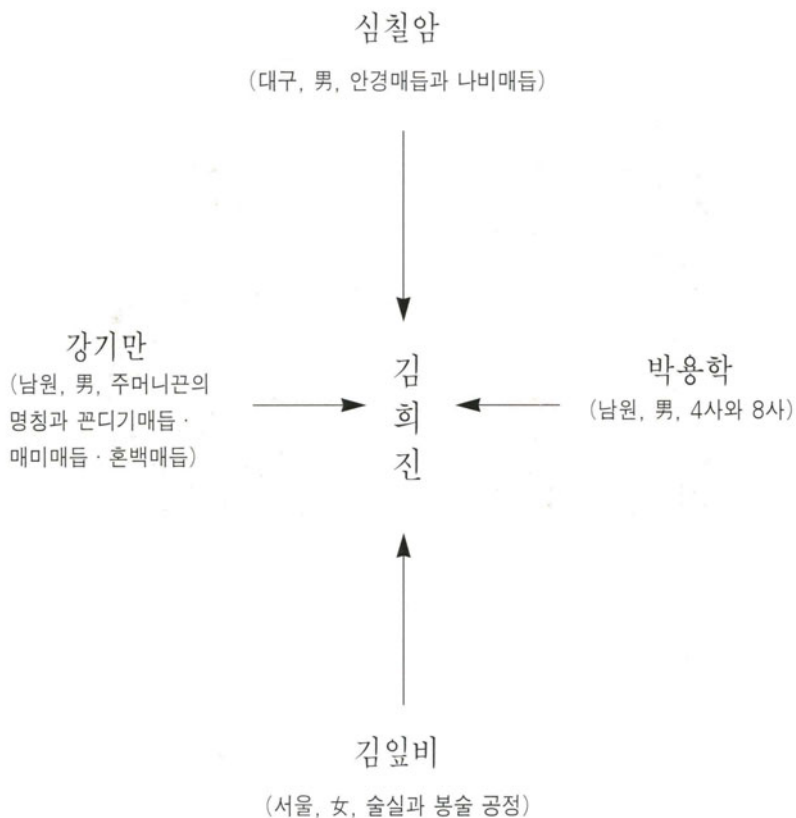




사진 292. 끈목장 박용학(朴龍學)

이렇듯 김희진씨는 여러 분의 장인으로부터 채집해서 연구 개발하여 매듭의 기본형과 다회치는 법, 술의 공정을 익혀 명실공히 끈목·매듭·술을 한손에 다 익히는 장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유물을 수집하면서 기본 작업을 익혀 완성된 처녀작을 공모전에 출품하기까지 만 4년여가 걸렸다고 한다.



사진 293. 동아공예대전 대상 수상 후 정연수 선생과 김희진씨

그리하여 1966년 문교부 주최 제 1회 민속공예대전에 처녀  
출품해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970년에는 제 4회 동아  
공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1971년 제 5회 동아공예대  
전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면서 매듭 공예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  
다. 그리고 1972년에는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974년에 《매듭과 대화》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또한 그 해에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장 초청으로 그곳에 가서 우리 나라의 유물



과 중국의 유물 자료를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다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인간문화재를 만나 우리 나라로부터 전해진 오늘의 일본 매듭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동양 삼국의 매듭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해 1974년에 제 1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197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22호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후 정부 주선으로 꾸준히 네덜란드·미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 등의 박물관이나 대학 공예회관에서 특별 전시 및 실기 강좌를 가졌으며, 외국에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매듭 분야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9년 10월에는 〈한국 매듭 연구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수 교육에 힘을 쏟아 한국 매듭의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1980년에 제 2회 개인전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었다. 1984년에는 카톨릭 한국 성인(聖人) 103위의 이름을 수놓은 성인산(聖人傘)을 만들어 유소를 드리웠는데, 현재 이 성인산은 서울 절두산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시성식 때 교황이 입으셨던 제의(祭衣)에도 수를 놓고 매듭으로 장식하여 제작했다. 그 옷은 지금 바티칸에 보관되어 있다. 1986년에는 제 3회 개인전을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외무성 초청으로 파리에서 열었다. 1988년에는 독일·프랑스에서, 1994년에는 이집트에서 초청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1981년부터 11회에 걸쳐 회원전을 주관했으며, 1973년부터 1996년까지 해마다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에 출품해 왔다.

김희진씨는 이제까지 수집 가능한 유물 가운데 비례와 빛깔이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시도했으며, 같은 것은 두 번 만들지 않았고 다작(多作)도 하지 않았다.





사진 294. 매듭장 김희진씨의 작업하는 모습

절제와 정갈함을 존중한 그의 완성된 작품은 모두 자료로 모아서 소장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즐기치게 매듭에만 온갖 정성을 바쳐 생활해 온 김희진씨는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에 전력을 쏟고 싶어하며, 전통의 전수에 그치지 않고 전통 매듭의 현대화 작업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끊임없이 하고 있다.



사진 295. 매듭장 김희진씨

## 2. 전수 현황

최은순씨는 매듭 기능을 딸인 정봉섭과 외손녀인 박선경에게 전수하여, 정봉섭은 현재 보유자 후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박선경은 조교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최은순씨는 고령으로 매듭 일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딸인 정봉섭은 금은방과 개인 주문용 노리개 매듭을 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외손녀인 박선경은 1996년부터 전통공예관에서 전통 매듭 기초반을 지도하고 있다.

매듭의 전수 교육은 오로지 일인일기(一人一技) 지도로만 가능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전수 교육을 위해 김희진씨는 1973년 처음으로 <전승공예연구소>를 개설하여 소수의 학생에게 실기 지도를 해 오다가, 1979년 <한국매듭연구회>를 설립하여 전수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전수 교육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초급 과정 6개월과 연구 과정 1년을 거쳐서 끈목·매듭·술의 공정을 익히게 된다. 그 동안 전수 교육 과정을 밟은 전수생이 150여 명이 되고, 이 중 계속해서 전시회에 출품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제자들은 30여 명에 이른다. 제자들 중에 김혜순은 조교로 지정되어 김희진씨를 도와 초급 과정과 연구 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박양자·김은숙·민정식은 이수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김은숙은 초급 과정 지도의 보조를 맡고 있다.

## V. 매듭의 전승과 개발

과거 매듭은 주체를 장식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지만 매듭 그 자체가 주체로서 훌륭한 장식 미술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다시 말해 매듭의 분야는 관광 선물의 포장에서 실내 장식품·신변 장식품·복식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격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더해 품위를 갖추게 하는 다양한 용도가 있다. 따라서 개발에 따라 개인의 품격은 물론 문화 생활 전반의 수준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현대인들은 산업의 발달로 기계 제품과 공산품 속에서 자연과 수제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동경하며 고달픈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매듭과 같은 수공예품은 무료함과 권태감을 없애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통이 지속되어 온 시기에는 선배들의 기술을 답습하므로써 기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매듭의 맥이 끊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는 것은 새롭게 연구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불모지와 다름없었다. 때문에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체험한 김희진씨는 전통 매듭의 기법을 바르게 익혀서 다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듭의 변형이나 응용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맥을 바로 잇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 따라서 매듭장 김희진씨의 매듭에 대한 긍지와 애정은 남다르다.

우리 매듭에 대한 계통을 확립한 현 시점에서 김희진씨는 매듭이 과거의 전통 매듭에서와 같이 주체를 장식하는 종속품 역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매듭 자체를 주체로 생각하고 남들도 하



나의 장식 미술 분야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김희진씨는 매듭 연구회 연구생들에게 우리 전통 매듭의 진수를 바르게 익히도록 가르치며, 이러한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재창조를 모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무엇이든 좀더 쉽게 빨리 배우고 익히려는 경향으로 인해 인내와 숨씨,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전통 매듭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매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열심히 알차고 맵시있는 숨씨를 다지고자 하는 미(美)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고학력의 전수생들이 있어 매듭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현대의 의·식·주 생활 양식에 맞는 디자인, 그러면서도 전통적 기법과 감각을 벗어나지 않은 우리의 매듭을 우리 것으로 또 국제적으로 보급·선양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김희진씨는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는한 한국 전통 매듭은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 기획

박상국(예능민속연구실장)

## 집필

김혜순(매듭장 조교)

## 사진

서헌강(사진작가)

## 편집

김삼대자(예능민속연구실 학예연구관)

오윤경(예능민속연구실 연구원)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④

## 매듭장

1997년 6월 초판인쇄

1997년 6월 초판발행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8800-86864-56-20

발행 국립문화재연구소

편집 예능민속연구실

인쇄 신부사

\* 본 내용의 무단 재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